

제 10 집

逍遙의脈

忠
顯
塔

李
宗
道

東豆川文化院

제 10 집

逍遙의脈

東豆川文化院

차 례

문예중흥선언	13
시민헌장	14
동두천의 노래	15
동두천시 연혁	16
시의 표상	17
동두천시 관내도	20

화 보/96 동두천문화원 행사 21

청소년의 달 기념 사생대회 입선 작품	28
발 간 사	문화원장 조인희 32
축 사	동두천시장 방재환 33
축 사	국회의원 목요상 34
축 사	동두천시의회회장 이영기 35

논 단

더불어 사는 삶의 길	동두천고등학교장 홍경섭 37
-------------------	-----------------

제2회 소요단풍제

[수필] 우수상/우리집 그 언저리	이미애 40
우수상/낙엽밟던 그 소리	최영미 42
가 작/낙엽밟던 소리	김정자 44
[시] 가 작/또 다른 가을을	김선주 45
가 작/우리집 그 언저리	손수경 46

시조 그 전통의 향기

[제5회 전국 시조백일장 수상작]

참방/철마는 달리고 싶다	박성호 48
장려/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경석 49
장려/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복열 50
참방/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상훈 51



총 현 탑

이승만 전대통령
친필 휘호
사진제공 이명수

참방/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준호 51
장려/선물을 받고	유수지 52
차상/선물을 받고	주현정 53

[교육청 시조 대회]

차상/우리 마을	구동희 53
차하/어머니	김정호 54
차하/어머니	백장호 54
장려/어머니	이선연 55
차하/동화책	최우수 55

[찬조 작품]

고 향	동두천여중 교사 연선흠 56
상 혼	동두천여중 교사 김정미 56
가 을	동두천여중 3년 서은희 56

특별기고

백백교 연구	동두천문화원 이사 이명수 57
--------------	------------------

문화원 백일장 수상작 모음 (I)

[신 원]

일 반 부

장원/손자의 소풍	조병란 86
차상/고부 사이	김정자 89
차상/육순을 맞으신 아버님	이복하 90
차하/아버지의 빈자리	장은숙 91
장려/어머니께 드리는 글	강현주 92
장려/아버지	박용숙 93
장려/감사의 마음	이문순 94
장려/마음의 창을 열며	이선숙 95
장려/신록의 자연을 느끼며	홍미선 96

고 등 부

장원/봄날의 회상	박영애 98
차상/사랑이라는 또다른 이름의 어머니 ..	엄소연 101
차상/내게 꼭 필요한 사람	주지동 103
차하/어머니의 젊음	이성희 105
차하/아버지의 여행과 어머니의 잔주름 ..	정지옥 107

장려/감사의 달	김수정	109
장려/어머니의 눈물	김승년	110
장려/어머니는 위대하다	원주영	112
장려/어머니	임호진	115
장려/여름 빛깔 사랑	한주희	117

중 등 부

장원/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문경순	119
차상/세상에서 하나뿐인아버지	김수연	121
차상/마음속의 카네이션	김운주	123
차하/그때는 말할 거예요	계승연	125
차하/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승환	127
차하/피카소도 나만큼은 못하다	송하늘	129
장려/부모님의 은혜를 보답으로	구영선	131
장려/그루터기에서 나는 열매	유수지	133
장려/하나뿐인 한글	이정심	135
장려/부모님의 은혜	최윤정	137
장려/미싱소리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	한진혁	139

초 등 부

장원/맑은산의 눈, 코, 입이 있다면	이유미	141
장원/엄마, 아빠 감사해요	황진숙	143
차하/감사해요. 선생님	김연진	144
차하/자연의 필요성	장동현	146
차하/할머니 사랑해요	정희재	148
장려/휴전선을 지키는 국군아저씨	김서로	149
장려/크나큰 은혜	송지애	150
장려/불과 싸우는 소방관 아저씨	송호영	152
장려/산새	이지혜	153
장려/어머님 은혜	임보름	155

전통문화

동두천시 이담농악에 관하여	157
----------------	-----

문화원 백일장 수상작 모음 (Ⅱ)

[시]

일 반 부

차상/오월	이보영	160
차상/어머니께 드리는 글	이복하	161

고 등 부	장원/경심가(敬心歌)	한재성	162
	차상/청송(靑松)	김요한	163
	차하/어머니	허재용	164
	장려/사랑 속의 눈물	한정우	165
	차하/어머니의 손마디	홍석중	166
	장려/외로운 이끼	남석우	167
	장려/도시락	남석우	168
	중 등 부	장원/햇살	윤희준
차상/어머니		서은희	170
차상/부모님		정운정	171
차하/아버지의 촛불		김소현	173
차하/아버지		김우진	175
차하/사랑이 고마움을 느낄 때		최원희	176
장려/아버지의 해		박영신	177
장려/고마운 이에게		이주연	178
장려/환경미화원 아저씨께 바치는 시		이진희	180
장려/선생님과 태양		서강원	181
초 등 부	장원/소묘산	조현아	182
	차상/어머니	박정은	183
	차상/스승의 사랑	허승일	184

문화유적/향토문화의 발자취

사패지 경계석	186
목행선 선생 묘	187
홍덕문선생 추모비	188
어유소 장군 묘 및 신도비	189
탐동 석불	191
정사호 선생 묘 및 신도비	192
어유소 장군 사당	194
자재암	195
삼충단	196
고령신씨 신도비군	198

동천문단

【 산문 】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장미자	200
	꿈꾸는 자의 행복	정인숙	203
	참 효	강현창	207
	겨울의 철학	서태원	209
	격몽요결	안현아	211
	현대사회의 부모와 자식관계	이민영	213
	할머니 사시던 고향은	송미사엘	215
	자랑스런 우리 아버지	노정미	217
【 시 】	예수를 바라보며	강신복	218
	가을에는	김동순	219
	어느날 밤에	박문희	220
	포 장	이은경	221
	길	조순자	222
	북에서 온 홍수	최영숙	223
	나목을 읽고나서	김기애	224
	항아리와 추억	김성은	225
	우리들은 노을에 노을을 태운다	유혜정	226
	익명의 섬	전애영	227
	잇는다는 건	조승미	228
	부 모	지 룡	229
	가을 하늘	김기선	230
	산 새	주현정	231
	자라나는 우정의 키	이지혜	232
	낙엽	김현민	233
	들 녀	임은지	234
	머무르고 싶은 순간들	김영태	235
	소요산 향기들	박혜련	236
	겨울 눈	이경상	237
	문화단체 명부		238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器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を 이어 받아 오늘 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業績이 世界에 부각 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業績이 世界에 부각 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活潑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시 민 헌 장

우리 동두천은 날로 발전하는 평화로운 전원도시로서 구수한 인정과 수려한 자연을 보람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손만대에 길이 물려줄 살기 좋은 복지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을 우리 모두 꾸준히 지킵시다.

1.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히 살림하며 성실하게 살아 감시다.
1. 온 시민이 한식구처럼 온 도시가 한집안처럼 따뜻하고 즐겁게 생활합시다.
1. 예의 바르고 질서를 존중하며 협동, 봉사, 창의의 능력있는 시민이 됩시다.
1. 향토문화와 자연을 지성스리 가꾸어 자랑스러운 문화도시를 이룩합시다.
1. 어른을 받들고 어린이를 아끼며 젊은이의 꿈을 키워줍시다.

동두천의 노래

류 달 영 작사

김 동 진 작곡

씩씩하고 명랑하게

소-요 산 작은금 강 아름다운 선경이 라 한-반 도
 광회정 승 어장군이 정을심어 살던터 전 의병들이

모든정기 이곳으로모였구 나 동 두천 우리 들 은
 벌배치 텃 나라위해 싸운고 장 동 두천 우리 들 은

그 정기 타고 나 인 물 좋고인심 좋 아 하는일 다잘된
 그 기상 이어서 덕 취스리서로 몽 처 새 낙천 이복한

다 어와 자살기 좋은 내 고향 어와 자살기 좋은 내 고향

천만대 살아갈 우리 낙천지 천만대 살아갈 우리 낙천지

東豆川市 沿革

高句麗時代에는 內乙買(一名 內兩米)에 屬하였고 新羅 景德王 16年(西紀 757)에 沙川縣으로 陞改하여 堅城郡(現 抱川郡)의 領縣이 되었다.

高麗 顯宗 9年(西紀 1018)에 見州가 楊州로 編入되고 堅城郡의 領縣이었던 沙川縣(本 市地域)도 楊州에 屬하였다.

朝鮮 世祖 12年(西紀 1466)에 楊州가 牧으로 昇格되고 坊里 34個面중의 하나인 伊淡面이 東豆川市의 起源이 되었다.

1963年 1月 1日 法律 第6543號로 抱川郡 抱川面 塔洞(3個)里를 編入하였으며 1981年 7月 1日 法律 第3425號로 東豆川市로 昇格 楊州郡에서 分離되었다.

1933年 2月 15日 楊州郡 隱縣面 上牌里가 編入되어 12個 法定洞(10個 行政洞)으로 現在에 이르고 있다.

시의 표상

● 동두천시의 기(旗)



● 도안설명(圖案說明)



“동”, “두”, “천”자(字)의 “ㅇ”, “ㄴ”, “ㅇ”을 표기



“동”, “두”, “천”의 “ㄱ”, “ㄷ”, “ㄴ”을 표기



“천”의 “ㅈ” 3개를 표기



진취적인 기상(氣象), 무한히 뻗어가는 시민의 기상을 의미하며 한국전(韓國戰) 당시 참전(參戰)하였던 우방국의 탑신(塔身)을 표시



단합(團合)된 시민(市民), 포용력 있는 시민을 상징(象徵)



수도권(首都圈) 1일 관광지(觀光地)이며 동두천(東豆川)의 대명사(代名詞)이기도 한 소요산을 의미.

동두천시의 나무



은행나무

- 장수한다.
- 병충해가 없다.
- 열매를 맺고 잎이 곱다.

동두천시의 꽃



장미

- 공해에 강하고 4계절 꽃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 줄기의 가시는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의 용기를 상징한다.

동두천시의 새



비둘기

- 생활력이 강하고 깃털이 아름답다.
- 평화를 상징한다.

동두천시관내도



'96 동두천문화원 행사



청소년 사생대회



제1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최우수상 수상)



청소년음악회



제11회 소요문화제 및 제2회 소요단풍축제



소요아가씨 선발대회



기념비 사진전



단기 4329년 개천제 봉행



문화학교 개강식



사물반



영어회화반



대금반



기타반



서예반



꽃꽂이반

청소년의 달 기념 사생대회 입선작품

초 등 부



【대 상】
생연초등학교 2학년
조 세 은



【최우수상】 생연초등학교 4학년 여 정 은

초 등 부



【최우수상】

생연초등학교 2학년 최 필 성



【최우수상】

생연초등학교 5학년 이 가 을

중 등 부



[대 상]

보영여자중학교 3학년 김 지 연



[최우수상]

동두천여자중학교 2학년 노 영 진

고 등 부



【대 상】

동두천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홍 예 정



【최우수상】

보령여자종합고교 3학년 이 은 영

선택과 초석



동두천시문화원장

조인희

진 정한 소요의 '脈'을 찾아 마치 구도자의 심정으로 覽遊한지 어언 십년입니다. 그간 '文化'라는 단어에 짓눌리기도 하고, 그 거대한 벽 앞에 서로 조소를 금할 수 없었던 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내 나름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이겨내곤 했습니다. 문화와 현실 사이에서 마치 시지프스처럼 살아오며, 그래도 자위하는 것은 척박한 이땅에 작은 한 톨 씨앗이 뿌려졌으리라는 확신과 신념 때문입니다. 하여 「소요의 맥」 제10집을 바라보는 나의 정회는 실로 남다른 수밖에 없습니다.

'10'은 하나의 굽이를 넘어선 수입니다. 하나의 매듭이 끝난 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일단락의 의미가 강하게 스며있는 관용어입니다.

10집 발간은 우리 지역 문화의 한 매듭으로 자리 매겨져야 합니다. 기지촌이라는 수식어를 늘 화두처럼 달고 사는 우리들로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국적 문화의 상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문화의 잔재와 미국문화, 국적 불명의 갖가지 문화, 그리

고 그것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어설픔게 꼬집어낸 소위 전통문화가 서로 뒤엉켜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문화 환경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문화이니까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논리적절한 해답은 문화 수용 주체자인 우리 자신이 체질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자면 문화가 갖는 체질을 잘 알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 것과 남의 것의 바탕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의식이고 선택입니다. 「소요의 맥」 제10집은 그러한 모색과 참문화의 선택을 위한 작은 초석이 고자 합니다.

부족한 공간이지만 귀한 원고를 주저 없이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우리 지역 문화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다짐하며 '소요의 맥'이 근사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1996년 12월 일

힘을 동반하지 않는 문화는 내일이라도 당장 사멸하는 문화가 될 것이다.

-W. 처칠-

오늘 동두천 문화원에서 “소요의 맥” 제10호 발간을 갖게 된 것을 7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인희 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시민의 높은 문화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원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기반시설과 문화의 저변이 취약한 우리시에서 이처럼 “소요의 맥” 제10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을 이때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미풍양속과 윤리관이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잊혀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도덕성 회복과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한편 우리시를 선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발전 및 복지향상과 더불어 지역문화를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원에서 정성과 숨결이 담겨진 “소요의 맥” 제10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노고가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일

축사



동두천시장
방 제 환

축사



신한국당 동두천시·양주군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 목요상

다 사 다난했던 96 “병자”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 보내고, 희망찬 97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어린 들뜬 마음으로 동두천의 종합 문예지인 “소요의 맥” 제10집을 발간하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동두천의 향토문화를 창달하겠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중단 없이 연연히 제10집까지 발간해 온 조인희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치하 드리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두천은 많은 세월을 거치는 동안 행정구역이 면(面)에서 시(市)로 승격되었을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도 많이 넓혀지는데 비례하여 고유문화와 외래문화가 접목되어,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의 요충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작 문예활동에 대한 인식과 활동이 저조하던 우리 동두천은 “소요의 맥” 발간을 계기로 문예활동인구가 저변으로 꾸준히 확대·추진되고 고장의 고유한 향토문화를 발굴하여 발전시켜야 된다는 새로운 각성과 함께 그 기반 조성이 마련되었음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윤택함이 한데 어울려 지역 발전이 이룩될 때에 비로소 지역 주민들은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열렬한 성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읽어내서, 지역 정서에 걸맞는 향토문화 발전에 일조할 굳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신문화의 향상을 위해 슬기와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합시다.

“소요의 맥” 발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 드리면서 시민 모든 분들의 땀내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1996년 12월 일

동 두천문화예술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요의 맥 제10집 발간을 7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요의 맥” 제10집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자료의 발굴과 정리에 온갖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조인희 원장님과 문화원 가족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두천 문화예술인들의 우수한 작품과 문화예술계의 소식을 시민여러분께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년 “소요의 맥”이 발간됨으로써 동두천 문화예술인들의 우수한 작품을 시민들이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기쁜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고장 문화예술인의 모든 정성을 모아 발간한 “소요의 맥” 발간은 우리의 문화예술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고장의 훌륭한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소요의 맥” 제10집 발간을 계기로하여 우리 동두천 문화예술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소요의 맥” 제10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언제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동두천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일

축사



동두천시회의회의장

이영기

여 백

더불어 사는 삶의 길

홍 경 섭 (동두천 고등학교장)

1. 더불어 사는 능력

인간은 社會的 動物이라고 하였다. 우리 인간은 홀로 살지 못하고, 여럿이 한데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인간이 서로 돕고 이해하며 모자리는 점들은 서로 보완해감으로써 아름답고 풍요로운 人間 社會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인간이 원만한 社會生活이나 共同體 生活을 하기 위해서 3D의 일 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일도 반드시 하여야 할 때가 있다. 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라도 참고 自制해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만

2. 더불어 사는 법

인간이 함께 사는 곳이면 어디를 막론하고 利害, 갈등, 의견의 대립 등이 없을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이 사는 모습이고 역사다. 의견이 다르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창조와 발전을 위해서는 批判도 필요하고 對立도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모든 것을 劃一化, 全體化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인간 의지와 자세일 것이다.

『禪苑清規』에서 출가 승려들의 共同生活規範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끼리 더불어 살 때에 지켜야 할 戒律을 여섯 가지(六和)

일 다른 사람이 내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남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거부한다든지 또는 이와 반대로 내가 꼭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남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함부로 하다보면 좋은 人間關係를 맺기가 힘들며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나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많다.

이는 친구와의 우정관계 또는 조직이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등 공동생활 어디에서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점이다. 그런 까닭에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 할 일을 가릴 수 있는 判斷力, 그리고 그것을 實行에 옮길 수 있는 勇氣야말로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의 능력이다.

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六和는 이들에게만 필요하고 지켜져야할 德目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생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戒和同修

같은 戒律을 지켜 和合하는 것이다. 차선이나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교통질서를 위한 계율이라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같이 지켜야 한다.

둘째, 見和同解

의견(뜻)을 같이하여 화합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거나 그른 것을 옳다고 해서 안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正見

을 같이 해야 한다.

셋째, 利和同均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려는 것이다. 모든 시비는 이익이 균등하게 나누어지지 않을 때 생긴다. 술수에 능한 사람이 많이 차지하거나 양심적 선량한 사람이 적게 갖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正義이다.

넷째, 身和共住

혼자만 호화롭게 살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딛고 자기만 부자가 되거나 생활이 지나

인도의 聖者 썬다 싱은 눈보라가 치는 어느날 네 팔 지방의 어느 산길을 가게 되었다. 그때에 마침 같은 여행자가 있어 두사람은 함께 위험속에서 눈보라를 헤치며 바빠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쯤 갔을까, 산비탈에 이르렀을 때 눈위에 쓰러져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썬다 싱은 그 여행자에게 “우리 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고 가면 분명히 죽고 말것ियो” 라고 말하였으나 여행자는 반대하였다. “미쳤소,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누구를 도와준다는 말이오?” 그는 화까지 내면서 서둘러 먼저 가버렸다. 썬다 싱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등에 업고 있는

인간의 삶은 어찌나 福되고 여유있는 것으로만 이어지지 못한다. 때로 개인적인 어려움도 닦쳐오고 사회적 혼란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때가 있다. 어려울 때에 우리는 共同體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각기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한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더 힘이 있고, 한사람의 힘보다 여러 사람의 합친 힘이 더욱 큰 능력이 된다. 여기에

치면 이웃의 지탄을 받게 마련이다.

다섯째, 口和無諍

입씨름, 말을 삼가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다툼은 필연적이다. 서로들 이해하려는 도량,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여섯째, 意和同事

일을 같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것이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지 않으면 和음이 어렵고, 꾀하고자 하는 일을 그르치게 된다. 易地思之의 자세가 중요한 계율이다.

3. 더불어 사는 敎訓

힘을 다해 가던 길을 재촉하였다. 눈보라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이제는 정말 걸기조차 힘들었다. 무거움을 참고 건디다 보니 온몸에서는 땀이 흘렀다. 그러자 등에 업힌 사람도 일었던 몸이 썬다 싱의 더운 체온으로 점점 녹아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다. 마침내 마을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일어 죽은 시체 하나를 발견하고는 몹시 놀랐다. 그는 먼저 가버렸던 바로 그 여행자였다. 먼저 혼자 가버렸던 여행자는 일어 죽었고, 죽어가던 사람을 업고 간 썬다 싱은 정말 힘들었고 피로웠으나 자신의 사랑과 서로의 체온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교훈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다.

4. 결론으로

는 다스림도 명령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편 의미에서 인간은 協同하기 위해 태어난 存在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면, 남도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 준다. 내가 죽고 사는 것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로 일치됨을 알아야 하겠다.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발휘하여, 밝고 건전한 생기 넘치는 미래 사회를 이룩하는데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수상작 모음

제 2 회

소요단풍제

[수필]

우수상 우리집 그 언저리/이미애

낙엽밟던 그 소리/최영기

가 작 낙엽밟던 그 소리/김정자

[시]

가 작 또 다른 가을을 /김선자

우리집 그 언저리/손수경

수필부문 우수상

우리집 그 언저리

이 미 애 (상봉암동)

초 록이 지친 낙엽에 가을빛이 곱게 내려 앉아 채색하는 계절, 높푸른 쪽빛 하늘과 맑고 따스하게 퍼지는 영근 햇살, 청량한 계절, 외로위하며 고독해 하며 책방에 틀러 시집 한권을 사야만 할 이유가 있는 계절, 아름다운 계절 가을 속의 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한다. 맑게 퍼지는 햇살아래 파란 가을 하늘을 이고 말끔히 뺨 빨래를 가을 솔솔 바람에 맡기고 친정엄마가 담구어 주신 고추장 단지의 뚜껑을 연다. 햇살이 잘들도록, 말끔히 청소된 거실의 탁자에 향내 그윽한 아이리시커피와 바삭한 쿠키를 준비하고 앉으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소박하고 행복한 예술가가 된다.

아득한 소녀시절, 中三때 국어 선생님께선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시와 내가 닮았다고 하셨었지.

문득 그리운 시간 속으로, 지금은 서울 모 여중에 계시는 선생님. 전화를 드렸더니 반가워 하시는 선생님 목소리는 20년을 뛰어 넘어, 나를 기억하시는 선생님께서 나는 나쁜 제자였다는걸 깨달았다. 내가 지금은 그 선생님의 나이가 되었으니, 선을 몇해 더 넘기신 연세가 되셨을 선생님. 전교생이 그림 그리기를 학교 뒷산에서 하던날, 그림을 마친 후 정원이와 난 “숨은 꽃”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필벽은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서양인이면서도 그의 작품은 동양적이었으며 우리 정서에 잘 맞았고 우리는 그의 작품을 좋아했었다. 그때 “마이 웨이”를 멋지게 부르시는 가수가 있었으니 다름아닌 선생님이셨다. 학교 뒷산 소나무 아래에서 쉬는 시간이면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국어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우”를 늘 불렀었던 그때를 그리워 해 본다.

전곡 4일장. 기차를 타고 시장 본다는 핑계로 집을 나선다. 기차를 타고 싶어

건너 소요역에서 차표를 산다. 기차에 몸을 실으면 수학여행 가는 학생처럼 설렌다. 텅빈 기차의 차창에 기대고 앉아 창밖의 풍경에 빠진다.

내가 좋아하는 하얀 이름모를 들꽃이 바람에 하늘거리면 “닥터 지바고”의 음악과 꽃 물결이 마음에 인다. 어느새 천곡역. 장에 다다르면 구경거리가 참으로 많다. 자상하고 사랑많은 남편의 입맛 돋우는 반찬거리를 제일 먼저 사고 아들과 딸애의 양말도 두켢레, 그리고 가을을 하나 가득 샀다.

노을빛 탐스런 열음, 감을 담고오는 가방에 기쁨 가득, “무거운게 뭐예요?”
“장에 다녀와요, 가을을 가득 사왔어요.”

주방에선 나의 가을 음악회가 솔로로 무대를 열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흥얼거리며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애들은 노란 은행나무 아래 머리를 나풀거리며 가을바람 속으로 한가롭게 자전거를 달리고 우리집 언저리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두 아이와 가을을 좋아하는 나와 가을빛 단풍잎 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행복으로 율타리 쳐진다.

수필부문 우수상

낙엽뻐던 그 소리

최영미 (생연3동 645-17 9/4)

깜 깜한 밤, 작은애의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들리고 빠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몸부림치는 잠버릇도 이제 슬슬 시작되었지만 그때까지도 C여사는 이 불밑에서 눈을 뜬채 숨을 죽이고 있다.

잠시후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오는 C여사의 얼굴엔 작은 설레임과 기쁨이 배시시 묻어 있다.

깜깜한 마루를 조심스럽게 지나 주방으로 가서는 여전히 조심조심 식탁을 차린다. 김치를 꺼내고 한 그릇 가득 대접에 밥을 푸고 “아! 참.” C여사는 살짝 손뼉을 치며 저녁에 남편이 먹다 남긴 맥주를 잊지 않고 유리컵에 주르르 따른다. 김이 빠진 맥주는 거품도 일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지만 C여사는 흐뭇하다.

이제서야 C여사만의 조용하고 여유있는, 그리고 비밀스러운 만찬이 시작된 까닭이다.

정성들여 상을 보고 몇번이나 식사하라고 불러대도 식구들은 꼭 먹어야 하느냐는 듯한 얼굴로 하나 둘씩 모여 들었다가는 물달라, 짜다, 싱겁다, 간장달라, 주문들을 외워대다가는 거기다 남편은 “어제 먹던 찌개 없어? 또 버린거 아냐?”

마치 C여사가 살림을 다 내다 버리기라도 하듯 눈썹을 치켜올리면 C여사는 부랴부랴 찌개를 데워내는 동안 작은애는 국에 말은 밥을 그새 얹어버리고 C여사를 뻥히 올려다 본다. “아유, 조심하지 않구!” C여사가 상냥하게 말하며 돌아서는 순간 “엄마 금동이가 내밥에 간장 쏟았어. 안 먹어!” 큰 애의 소란스러운 투정소리며 법석거리던 식구들이 모두 식사를 마치고 우루루 TV 앞으로 몰려가자 그제서야 C여사는 한숨을 푹 쉬며 밥상앞에 앉는다.

그러자 5분도 안돼서 “아직도 밥먹어 오래도 먹네, 아! 커피 안줘?!” 그놈의 커피는 때맞춰 먹는 보약인가, 남은 저녁도 안 먹었는데, 저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신랑이라니...

C여사는 먹던 상을 치우며 입맛이 가서버림을 느낀다.

커피를 타 놓고, 그새 장난치며 싸우는 아이들을 말리고 이부자리를 보며 그래도 C여사가 웃음을 잃지 않는건 모두 잠든 혼자만의 이 시간이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

밥을 먹고, 한잔의 맥주를 마시고, 주전자에 커피물을 끓이며 작은 부엌창문 사이로 바스스 거리는 대추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만의 아득한 기억의 조각을 꺼내볼 수 있는 이 시간.

C여사가 이렇게 혼자 밤중에 일어나 식구들 몰래 밤참을 즐기고 때로 새벽까지 이생각 저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 그때는 10월이 시작된 까닭이다.

서른이 훌쩍 넘고 아이를 둘이나 낳은 지금도 C여사는 10월이 시작되는 가을 밤이면 공연히 찢끔찢끔 눈물이 나와 슬퍼지는 마음, 식구들은 그런 C여사를 상상도 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 C여사가 몰래 화창한 10월 어느날 노란 단풍잎이 풀풀 날리던 한적한 포도밭위에서 낙엽 하나하나 꼭꼭 밟으며 바시락 바시락 대는 낙엽소리에 눈시울을 적셔가며 눈부신 가을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사실을 식구들은 까맣게 모른채 모두 꿈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수필부문 가작

낙엽밟던 그 소리

김정자 (보산동 424 3/2)

아 직도 붉어진 마음 그대로인줄 알았는데 그 수줍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행하니 빈 가슴 인양 흔적만을 차가운 맨 땅위에 던져놓는다. 결국 나의 흔적은 이 늦은 가을 농익은 계절의 바람에 채여 늘어져버린 이 모습은 아닐까 하는 허탈한 마음에 가슴이 시리디 시려온다.

잠깐 동안의 낭만과 허상에 폭 빠져 온갖 기쁜 마음과 들뜬 느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로 무엇이든 써내려갈 듯한 착각에 빠졌건만 붓이 자꾸만 꺾여져버리는 것은 어찌할꼬, 스무살 청춘은 간데 없고 그 푸르름 자랑하던 꽃다운 세월은 시냇물처럼 어디론가 기억속으로 흘러가버린지 오랜, 아니 뒤돌아보면 얼마 안된듯한 시간인데 내 모습은 그냥 낙엽을 슬퍼하는 그 시간위에 허전하게 서 있다.

한 발, 한 발 차곡차곡 쌓여진 그 얼굴위를 디디고 서며 걸음을 옮길때마다 아픔에 겨워서일까? 몸체에서 떨어져 나간 슬픔때문일까? 그 작은 몸을 뒤흔들며 소스라치게 울부짖는다. 깜짝 놀라 디뎠던 그 발을 들어올려도 아직도 소리는 남아 “사각 사각” “바스락 바스락” 또 숨죽여 흐느껴 우는 것 같다.

태고에서부터 잉태되어 한 생명의 개체가 자라면서 사회속에, 환경속에 물들고 길들어져 그냥 가진 감성들을 살짝 살짝 감추기도 드러내기도 하면서 또 낙엽은 해마다 해마다 생겨나고 또 흙으로 돌아감에 우리네 모습과 너무 닮은듯하다. 그래, 그래서 잊은 듯 한 해는 또 가고 또 뒤돌면 잊고, 한 여름 땀별과 장마가 휩쓸고 지나가면 푸른 하늘 맑은 공기속에 바람은 심술을 부리고 등산복 차림의 그리운 얼굴들이 보고싶어 또 낙엽을 보러간다. 그리곤 그 소리속에 묻혀 올해를 또 잊어야지.

시 부문 가작

또 다른 가을을

김 선 주 (생연4동)

투명한 가을 하늘을 시샘이라도 하듯
 촉촉히 가을비가 온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붉고 노란 그리고 갈색의 낙엽들이 한데 어우러져
 그리움의 색채를 더욱 짙게 하고 있음을 아시나요.

이 가을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며
 저만치 비껴나 있던 사색까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주홍빛 낙엽을 쓸어안으며 뒹굴고 싶어함을 아시나요.

싱그러운 바람결에 잎이 질때마다
 한 움큼의 고독과 낭만을 쏟아내며
 깊어가는 우리의 마음까지 더불어 한잎 두잎.
 조용히 대지를 덮어가는 낙엽의 겸허함을 아시나요.

시간은 모든 것을 뿌리며 지나가고
 다시 거두어 갑니다
 흐르는 시간의 물결에 한줌의 낙엽을 띄우며
 어디까지 흐르고 어디까지 가는지엔 전혀 생각하고 싶지않음도
 이 가을임을 아시나요.

잃었던 자신들을 찾기위해 우리는 많이 고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독과 사색과 낭만과 우리의 작은 고뇌와 절망까지도
 한무리의 낙엽과 함께 이제 떠나려 합니다.
 내일의 행복한 씨앗이 될 또 다른 가을을 준비하기 위함인걸 진정 아시나요.

시 부문 가작

우리집 그언저리

손수경 (생연동)

어머니
당신의 이마위로
세월의 강 골져 흐르고

작고 가난한 몸
찬바람에 얼고
가시길 굵혀진
푸른명 붉은 생채기있어

차마 마른눈으로
마주 보지 못해
늘 비껴섰던 까닭에

서른다섯해 함께 지내온
당신얼굴

끝내 우리집 그언저리
바람처럼 돌다가

흰도화지 앞에 놓고
검은심 녹도록
연필만 입에 문 채

당신의 강줄기 따라
온 하루가 흘렀습니다.

시 조

“시조 그 전통의 향기”

- I. 제5회 전국시조 백일장 수상작
- II. 교육청 시조대회 수상작
- III. 참조작품

시제 1. 철마는 달리고 싶다

참방

철마는 달리고 싶다

박 성 호(동두천고교 1년)

달리다 지쳐 버려 풀 속에 숨었는가.
돌연히 레일 위에 숨겨버린 네 모습
월정역 그 가운데서 홀로 무얼 하는가.

고철되어 찌그러져 슬퍼서 잠적했나.
예전에 우렁차던 기적소리 어디갔나.
풀속에 기대지 말고 다시 한 번 뛰어보렴.

전우들의 뜨거웠던 우정이 생각나는가.
이제사 밝혀지는 역사의 이야기들
오오나, 힘내자꾸나. 아픔일랑 묻어두고



장려

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 경 석 (동두천고교 1년)

그옛날 동산위에 비둘기 한 쌍 있어,
이제는 천지속에 소리없이 묻혔으니,
언제쯤 새생명 얻어 창공을 가르리요.

백록담 휘어돌고 백두산 감싸안다.
만물을 호령하던 기상 아니 잊었겠지.
녹이슨 그림자 둘레 잡초만이 내 벗인가.

역동하는 따스함도 슬피우는 저 달빛도
한맺힌 그울음은 잠재우지 못한다.
그러나 하이얀 옷깃 너울대며 춤추리라.

격동의 한숨소리 레일위를 달려도
스멀스멀 꺼져하는 흐릿한 안개만은
철새가 날으던 그 곳 바라보며 흐느낀다.

철쭉꽃 만발하고 갈대가 하늘거려
말없는 침묵만은 일어서려 하고 있다.
가슴 속 낡은 눈물을 분수마냥 던지련가.

장려

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 복 열 (동두천고교 1년)

씻소리 들리던 날 내 마음 어디이고.
날개짓 그 속에서 너 또한 그리운가.
두 팔의 원망들일랑 햇살로 비추어라.

바람도 들려오니 우렁찬 네 소리가
불꽃에 휘날리며 몸뚱이여 달리거라.
철쭉꽃 피어나거든 다시 한번 달리자꾸나.

내 육신 다하는 날 또 다른 생명인가.
비둘기 넘나드는 그 땅이 그림구나.
오늘도 달빛 맞으며 그날들을 그린다.

이슬이 슬피운다. 풀벌레 소리들아.
날 위해 울어주렴. 전우들의 함성 소리
들리는 그 네 목소리 다시금 외치거라.

참방

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 상 훈 (동두천고교 1년)

흙덩이 튀어 오르고 돌맹이 으깨진다.
이른 아침 부서지는 빛 조각이 비추어도
그대의 은빛 몸짓은 엄마 잃은 어린 아이

하늘 위로 날아가는 하이얀 백로들
당신도 날고 싶어 몸부림쳐 보지만
유유히 표류하듯이 그네들이 사라진다.

포기하지 마시오. 하늘을 보지마오.
저기 보이는 저 담장 그리높지 않으니
너와 나 여린 힘모아 마음껏 달려보자.

참방

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 존 호 (동두천고교 2년)

아득히 들려오는 폐허의 조각들
불같이 타오르던 깃발의 심장이여,
하얗게 피어 오르던 너의 노래는 서성인다.

힘차게 울러퍼지던 당당한 네 모습
자유를 토해내는 너의 기쁨 사라지고
구겨진 신음소리만 땅 위로 스며드는데...

시제 2. 선물을 받고

장려

선물을 받고

유 수 지 (보영여중 3년)

굴러가다 멈춰버린 달음없는 모퉁이에
박혀버린 돌맹이 안고지은 이끼처럼
한평생, 흘러감이니 틈 없이도 이룸이라.

나 홀로 던져짐이 아니라 말하거늘
그 어찌 받고내줌 없다하고 살으리오
이로움 상관치 않고 흘러간다 하오리오

빛 받은 처음 삶에 하늘의 축복이라
감로한 부모은혜 빈몸남아 없혀주신
조물주 지어주심이 첫번째 받음이네

나역시 받은만큼 내줌이 없으리오
빛지고 얻은 이몸 내 이룸이 힘다하고
지극히 효를 행함에 부족함이 없게하라

고인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함이요
이또한 받음이니 그어찌 감루않고
세상을 향내하면서 있게해줌 감사하네

이땅에 채워주신 모든 것이 받음이요
내줌도 있고하니 뜻깊은 인생이라
진정한 선물주심이 하늘아래 보배로다.

차상

선물을 받고

주 현 정 (보영여중 3년)

어릴 적 소꿉친구 저 멀리 떠나던 날
내 손에 곱게 떨친 조그만 나무인형
밤새워 깎아 만들었다며 미소짓던 네 얼굴

쓸쓸히 멀어져간 그 친구의 뒷 모습이
이제는 서랍 속의 내가 만든 인형되어
내마음 허전한 뜰을 하나 가득 메우고

언제나 날 지키는 그 애가 준 나무인형
결따라 깎아 놓은 부드러운 그 감촉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선물이야.

차상

우리 마을

구 동 회 (보산초등 5년)

아늑한 늪이가려 학들이 즐겨찾고
감나무 대추나무 즐비한 우리마을
산으로 올라가보면 반겨주는 장끼들

줄줄줄 시냇물에 아이들 뛰어들어
물장구 헤엄치며 가재를 잡아낸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랑스런 우리마을

하지만 요즈음엔 마니커 공장생겨
점점점 줄어드는 정다운 모습들이
아쉬움 하나가득히 안기워만 주구나

차하

어 머 니

김 정 호 (보산초등 4년)

벗어놓은 세탁물에 새어나는 엄마한숨
어머니 손만가면 뭐든지 깨끗하죠
구멍난 양말이라도 감쪽같이 없애죠

설거지 산더미에 요란한 소리날 때
어머니 얼굴보면 미안한 생각들죠
어머니 나와 마주치면 미소가득 짓지요

차하

어 머 니

백 장 호 (보산초등 5년)

언제나 바른마음 살아라 이르고
나에게 사랑으로 포근히 대해주는
어머닌 오직 사랑으로 저희들을 키웠죠

착한일 하게되면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을 저지르면 꾸중으로 가르치는
어머닌 가정의선생님 훌륭하신 선생님

장려

어 머 니

이 선 연 (보산초등 3년)

나에게 부모님은 둘도없이 중요해요
내곁에 가까이서 이처럼 아끼시니
부모님 없었더라면 오늘내가 있을까

환하게 웃으시며 일하시는 어머니
집안일 힘들지만 환한웃음 엄마보면
나는야 빨리자라서 어머니께 잘해야지

차하

동 화 책

최 우 수 (보산초등 3년)

한 번을 읽어보고 두 번을 읽어봐도
내맘에 쏘옥쏘옥 들어오는 동화책을
누군가 써주신 분이 정말정말 고맙죠

아기가 동화책을 보려고 애쓰지만
일센티 모자라서 보지를 못하지요
아기는 동화책 붙잡고 응애응애 울고 말죠

고 향

연 선 흙 (동두천여자중학교 교사)

젊어서 어디간들 내 고향 아니더냐
소리쳐 당당한 이가 되돌아 우는구나
가잔다 무릎파여진 아배의 산등성이에

내 살아 가리워진 속살의 가려움속에
이방인 되려하매 내살이 네 살되는
빗물이 썩어진 땅의 아배살 찾아가리

상 혼

김 정 미 (동두천여자중학교)

장왕한 미주의 질주 한밤중 이어라.
비밀한 빌미덩이 누룩의 실체 된바람 품고
머쓱한 자리바꿈에 황당하노라.

가 을

서 은 희 (동두천여자중학교 3년)

청아한 하늘안에 가을햇발 서려있고
저산의 가을불꽃 가실줄을 모르는데
길가의 낙엽더미 외로움을 부추기네.

白白教 研究



이 명 수

동두천문화원 이사
동두천시 재향군인회 부회장
동두천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동두천시 생연2동 방위협의회장

얼 미전 아가동산 사건으로 인해 세상이 떠들석했던 일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합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사이비종교에 그토록 현혹되어 왔다는 것이 언뜻 납득이 되지 않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사이비종교의 발단(發端)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 한 근거지를 소오산에서 마주 바라보는 마차산에 두기로 했던 백백교(白白教)가 우리나라 사이비종교의 시초격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지금부터 그 백백교의 실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930년대 일제치하(日帝治下)에서 중앙(中央) 및 지방정치(地方政治)의 부패(腐敗)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財政)이 극도로 문란(紊亂)할 때다.

전정(田政)이란 토지(土地)로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세납(稅納)의 이름인데 간악한 일본관리(日本官吏)들의 세재의 모순과 그 운영이 일본 앞잡이들이 가을에 벼농사를 다 지어 거두워 드릴 때 벼 잎세의 알까지 세어 한마지기(지방에 따라 200평 내지 300평)에 몇포기면 몇섬 나온다는 것까지 계산하여 악랄하게 공출(供出)해 갔으며 그 당시의 농민(農民)들은 추수할 때 일부로 벼이삭을 논바닥에 숨겨 놓았다가 타작하고 난 다음에 겨울에 꺼내어 절구에 찧어 먹던 암울한 시대였다.

한참 세계 2차대전과 태평양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일제는 농촌 생활용품, 낫쇠 숫가락, 대야(세수하는 그릇), 밥주발 등을 전쟁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일제관리들이 농촌마다 가호 방문하여 강제로 걷어 들이고 있을 때였다.

생활은 힘이 들고 배고픈 시대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불안했을 것이고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은 날로 점점 가중(加重)되었을 것이다.

세 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했던가, 아직도 옷깃을 여미게 하는 쌀쌀한 차가운 바람이 분다. 새 봄이 오는 길목에서부터 다시 첫눈이 내리는 길목까지 9개월이란 시간을 갖고 필자는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61년전을 거슬러 올라갔다. 1935년도에 있었던 백백교사건은 암울했던 일제시대의 내나라

를 잃은 처절했던 그때에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야 했는지 우리는 기억조차 하고싶지 않은 무지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이다. 백백교(白白敎)의 잉태시기는 93년전인 1899년 이조말기로 확정된다. 동학란(東學亂)이 일어난 후 가담자들 모두 붙잡아 들일 때 전국에 몸을 숨겨 흩어져 있던 동학교도 일부인 평안북도 영변의 가난한 농가출신 전정운(全廷雲 당시 30세) 이를 만난다. 이는 동학교 분파인 백도교(白道敎) 창설에 앞서 금강산에 천지신령(天地神靈)의 도(道)를 터득했다고 스스로 말한 뒤 기도에 정진한 결과 천지신령의 심리(深理)를 오득(奧得)했노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의 설은 일정한 주문을 외며 천지(天地)를 예배하면 무병식재로 장수하고 끝내는 신선(神仙)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교주는 장래 천자(天子)가 될 화신(化身)이라 칭하고 교도(敎徒) 중에 부녀자를 징발하여 후궁으로 삼는다고 띄어 첩으로 삼았는데 그 수가 6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교주 전정운은 아버지가 죽은 땅인 함경남도 문천군(文川郡) 운림면(雲林面) 마한리(馬汗里)에 나타나서 도(道)를 퍼기 시작하였다. 신도가 늘어나 교세를 확장하더니 1912년에는 강원도 김화군(金化郡) 근동면(近東面) 수태리(水泰里) 오성산(五聖山)에서 비로소 백도교(白道敎)를 정식으로 창설하였다. 그후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포교활동(布敎活動)을 한 결과 신도수가 1만여명으로 늘어나 교세가 왕성하였고 교주 전정운은 오성산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첩을 60여명이나 거느리고 지냈으며 애첩 4명을 산채로 묻어 생매장했다고 한다. 1919년 백도교주 전정운이 죽자 백도교 간부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전정운의 맏아들 전용주(全龍珠)와 이희룡(李禧龍)이 일파가 되고 둘째아들 전용해(全龍海)와 차병간(車秉幹)이 일파가 되어 형제간의 이권다툼이 벌어졌다. 표면상 이유는 전정운의 죽음을 계기로하여 공공연히 포교를 하자는 것과 종래의 밀교(密敎)의 형태로 하자는 것이었으나 분파가 된 형제간의 실질적 원인은 재산다툼이었다.

백도교주 전정운은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북면(北面) 적목리(赤木里)에 장인 우광현(禹光鉉)의 명의로 2만여원 상당의 부동산(구 조선 총독부 공사비 350만 원, 당시의 화폐가치)을 남겼는데 맏아들 전용주가 재산반환을 요구하는 와중에 동생 전용해는 재빨리 외조부 우광현과 결탁(結託)하여 재산을 지키며 장자(長子)인 형에게 상속 못하게 한 것이 실질적인 분파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1923년 5월 장남 전용주는 이희룡을 교주로 내세워 경성(京城) 마포구(麻浦區) 도화정(桃化町)에 인천교(人天敎)를 창립하고 뒤에 자기가 인천교 2세 교주가 되었다. 같은 해 7월에 동생 전용해는 차병간을 1세 교주로 내세워 가평군 북면 적목리, 재산 소유지에서 백백교(白白敎) 창립하여, 전용해는 제2세 교주가 되었다. 1924년부터 29년까지 인천교 백백교는 각각 포교, 신도 확보, 신자들의 재산 갈취, 여신도 간음, 강제추행, 살인 암매장 등을 일삼았다. 1930년 백도교 교주 전정운이 첩 4명을 생매장한 김화사건(金化事件)이 발각되어 백도교 간부 등에게 일제 검거령이 내려 수명이 검거되었던 일이 있었다. 이때 전용해 등 가평군 북면 적목리에서 교묘히 잠적, 검거를 피하여 완전히 지하로 숨어버렸다. 전용해는 주로 중부(中部) 이북지방을 돌아다니며 비밀리에 포교하며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각 지방 책임자까지 두고 비밀결사(秘密結社)의 형태를 갖추었다. 전정운의 3남(三男) 전용범(全龍範)은 이 해에 전용해의 백백교에서 탈퇴하여 도화교(桃花敎)를 창립하였고 본부를 인천교와 같은 곳인 경성 마포구(麻浦區) 도화정(桃花町, 지금의 마포구 도화동)에 자리를 마련하였다.

1934년 가을 전용해는 경성(서울)부로 이사하여 아지트를 잡기 시작하여 처음 한곳은 죽침정(竹添町) 1정목 72번지 전용해는 김두선이란 가명을 쓰고 이때부터 매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전용해는 자주 거처를 옮기기 시작하여 대도정(大島町), 연건정(蓮建町), 입정정(笠井町) 등을 전전하였다. 1935년 전용해는 앵정정(櫻井町) 1정목 49번지로 이사하였는데 이것은 막다른 골목 맨 안쪽에 들어앉은 안성맞춤인 집이어서 자살하기 직전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살인과 비행을 일삼던 음란지옥의 복마전(伏魔殿)이 되었다. 울 안에는 닭과 노루를 사육하여 그 고기와 피를 정력제로 복용, 이 앵정정 집에는 늘 4, 5명의 시녀(侍女)가 있었고 모두 전용해의 애욕의 노리개로 이용당하고 있었다. 해발 1,250m의 명지산 줄기 따라 남쪽으로 뻗은 곳이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본래는 영평군 이동면지역)(적목은 이깔나무란 뜻) 적목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가평군 상북면에서 다시 개편 도대리 일부를 병합하여 적목리라 해서 가평군 북면에 편입된 곳이다.

적목리 지당골(적목리에 있는 골짜기 산제당이 있었음) 명지산 골에 깊어 차갑고 맑은 물이 흘러 내려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며 험한 산길은 지금은

관광도로 뚫어 교통이 편리하여지면서 관광객들이 여름이면 많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산세가 좋은 가평에서 전용해가 백백교를 1923년 7월에 차병간을 1세 교주로 내세워 창설한 곳이다.

처음부터 사상적 근거를 갖지 못한 허무맹랑한 종교로서 백도교 사이비 교리중 그대로 맹종(盲從)하여 신도들로부터 재산을 바치게 하고 여신도들을 변태음란(變態淫亂) 등 음욕과 방종하여 부패와 타락을 초래하였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범죄를 용인하여 백백교속으로 육욕과 성적불륜(性的不倫)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부패와 타락을 초래하였다.

실증을 느낀 부녀자나 탄로가 날 우려가 있는 신도들은 가차없이 암매장하기도 하였다. 끝내는 여신도의 아들이 가평경찰서에 신고하여 백백교 간부 일부가 잡혀가고 교주 차병간과 몇 명의 간부는 지하로 숨어들어 경성(서울)에서 전용해와 만나게 되고 한편 명지산으로 피신한 차병간의 행방은 묘연(渺然) 하였으며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한다.

이후 지하로 숨어들은 몇 명의 간부들은 경성에서 전용해를 만나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현 동두천시) 상봉암 천원금광과 연천군 영근면(현 전곡읍) 간파리에 백백교를 짓고 아지트로 사용하며 다시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꿈을 펼치게 된다.

이해 8월 19일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이담면(伊談面) 현 동두천) 상봉암리(上鳳岩里) 봉암산에서 천원금광(天苑金鑛)을 장창엽(張昌燁) 명의로 정식 등록하여 등록번호 12.046호 동두천 등 양주군 유지 경찰서장까지 초빙해서 성대한 개광식까지 가졌다. 필자(筆者)는 바로 이 자료를 찾기까지 9개월이란 시간을 소비하였다. 그렇다면 東에 번쩍 西에 번쩍 하고 돌아다닌 전용해가 백백교 간부인 장창엽의 알선으로 천원금광을 개광하였을까? 다음 장에는 마차산 줄기 봉암산 뒤 산넘어 간파리라는 마을도 나오겠지만 상봉암동 주민 말에 의하면 마차산 줄기인 상봉암산 기슭에 자리잡은 천원금광은 우리 조상이 금을 캐던 곳 또는 일본인들이 금을 캐던 곳이라는 설이 있는데 결국은 금이 조금 나오다 나오지 않게 되자 폐광된 것을 백백교 교인들이 알고 간부인 장창엽이가 교주 전용해한테 보고하여 천원금광이라하여 이 곳을 다시 본거지로 삼아 사기 살인극을 벌였을 확률이 크다 하겠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천원금광이 중요한 것이다. 이 금광의

로 하여금 이곳에서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 당했으니 말이다. 1936년부터 37년까지는 전용해는 계속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천원금광은 장창엽이한테 맡겨 놓고 경성으로 올라오게 된다. 전용해는 계속 음학살인(淫虐殺人)을 감행하면서 2월 16일 유곤룡(柳昆龍)의 전용해 면담이 이루어진 끝에 싸움이 벌어지고 하왕십리 주재소의모리야 순사부장과 구니이 순사가 출동하여 백백교 검거에 실마리가 되기 시작하였다.

2월 17일, 오전 2시 앵정정 아지트에서 이순문(李順文), 장서오(張瑞五) 등 전용해의 비서격인 2명의 간부와 여인 두명을 검거하여 동대문 경찰서로 연행하였고 문봉조(文奉朝)는 즉시 연천군(蓮川郡) 영근면(嶺斤面 현재 전곡읍) 간파리(干波里)로 피신하였다. 2월 19일엔 간파리에서 조학초(趙學初)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용남(龍南) 17세 소녀, 병쇠(炳釧) 11세 소녀와 병쇠의 동생 병하(炳河) 8세 소년을 살해하고, 한편 전용해는 경성에 있던 장자봉 23세 처녀 해순(海順), 15세 소녀 손희(孫姬) 15세 소녀를 데리고 승용차를 대절하여 양평군(楊平郡) 단월면(丹月面) 행소리(杏蘇里)로 도피하였다 하는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손희(孫姬)가 선기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양평으로 도피하면서 승용차가 아닌 시외버스편으로 갔다고 되어 있다.

2월 17일~20일,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검거된 자를 중심으로 철저한 문초(問招)를 한 끝에 이미 잡혀와 있는 간부 및 신도들은 굳게 입을 다물었으나 일부가 자백함에 따라 2월 21일 오후 7시 경찰수사대는 연천군 영근면(현재 전곡읍) 간파리로 출동하여 문봉조(文奉朝), 김군옥(金君玉) 등 간부 몇 명과 신도들을 검거 경성(서울)으로 압송(押送)해 오는 도중 문봉조는 칼로 자살을 기도 경성제국 부속병원으로 입원하고 이날 전용해는 행소리 산막에서 장자봉 해순 손희를 살해하여 부엌바닥에 암장(다른자료에 의하면 마당에 암매장)했다고 되어 있다.

2월 22일 경찰수사대는 양평 행소리로 출동하여 이삼득(李三得)의 집에서 남녀 5~6명을 검거하여 경성으로 압송하여 그후 속속 신도들을 검거, 전곡에서 경성으로 연행하였다. 3월 7일 이삼득이 한테서 정용해의 장자봉 해순, 손희 살인 자백을 받아내고 경찰 수사진은 비로소 백백교가 살인을 감행한 사실을 알고 초긴장하여 이날 행소리 산막에서 장자봉등 3구의 시체를 발굴하였다.

3월 10일 자살미수로 입원했던 문봉조가 퇴원 즉시 동대문 경찰서에 수감되어

경찰의 살인극에 대한 집중수사를하여 이날까지 전용해의 행방은 묘연(墓然), 인근 가평경찰서에서도 총동원 되다시피하여 전용해의 체포에 출동하였다.

3월 25일 동대문 경찰서에 연행되어 온 간부와 신도수는 150명, 여신도 50명은 유도장에 따로 수용하였다.

4월 6일 수색대는 용문산 도일봉에서 백백교 교주 전용해의 자살시체를 발견 자살추정시간은 2월 23일 정오 무렵 4월 8일 동대문 경찰서에서 전종기(아들) 등을 대동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백백교 교주 전용해의 신원확인을 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시체발굴 작업을 시작하여 발굴총수 346명, 추정 2,000명, 살인횃수 문봉조 50여회, 김산옥 30여회 37년 12월 13일 백백교 간부들을 14죄목으로 단죄한 이후 재판이 수년 예심만 3년이상 끝었으며 이때 재판중 세계 제2차대전 이 한창이었으므로 자연 관심이 전쟁으로 쏠렸고 일제의 극한 수탈등으로 대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갔으며 또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정간되어 재판 진행 기록도 국립도서관 등에 보관된 것이라고 한다. 당시 급박한 국제정세에 휘말려 재판한 언도 및 형벌사항등 기록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1937년 이후로 백백교교주 전용해의 두 개골은 범죄형 두 개골의 표본으로 일제시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영구 보존하고 있다한다.

여기까지가 백백교의 처음과 끝이다. 그렇다면 상봉암동의 백백교의 참상(慘狀)의 실체(實體)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는 기록자료에는 없지만 상봉암리 봉암산 천원금광이 그래도 짙막하나마 기록자료가 다행히 있기에 상봉암동 주민의 말에 의하여 그동안 여러차례 현장을 찾아가 상봉암동 주민들의 도움으로 필자가 전해들은 그대로 옮겨적어 보기로 한다.

마차산 줄기인 봉암산 중턱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산1 마차산 줄기따라 뺨어온 바위산 아래 중턱에는 하늘에서 쏟아부은 듯 돌로 덮여있는 산 그 위에 바로 자연동굴이 있다. 직경 2m가 더 되어보이는 동굴 입구 6. 25 때에는 군작전지였고 1. 4후퇴 때는 빨치산들이 은거(隱居)했다는 이름없는 동굴이다. 이곳이 한때 백백교 교주 전용해가 머물렀다는 곳이다. 【사진 1】

쏟아부은 듯한 돌비탈을 조심스럽게 내려오다보면 겨울에도 따스한 물이 샘솟았다는 용달샘. 지금은 메꾸어진 채 흔적의 자리만 있다. 【사진 2】 그 옆을 끼고 돌아오다보면 수만년의 세월에 비바람에 시달린 듯 겹겹이 두꺼운 책을 쌓아 접

어놓은 듯 한 큰 바위가 백백교의 모든 기록이 담겨져 있듯 그렇게 옆으로 누워 있다. 【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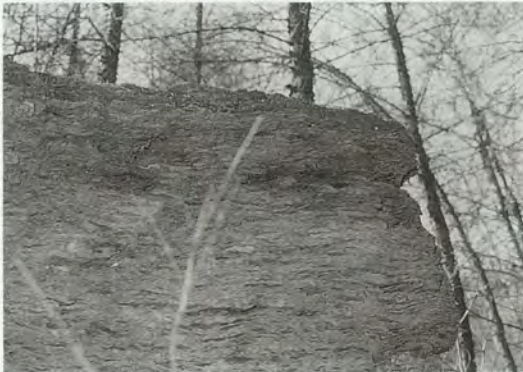
또 다시 옆으로 돌아 내려오면 을씨년스럽게도 백백교주와 간부급들이 무대가 되어 사기 살인극을 연출했던 천원금광의 그 옛날 처참했던 사건들을 말해주듯 그 슬한 세월의 흐름에 씻기고 허물어져 그저 그렇게 인적이 끊긴 채 버려져 있다. 【사진 4】



▲ 사진 1 마차산 줄기 봉암산 자연동굴



▲ 사진 2 따뜻한 물이 샘솟았다는 웅달샘 자리



▲ 사진 3 책바위



▲ 사진 4 오랜 세월의 흐름속에 무너져 내린 문제의 천원금광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정도의 높이 그 안에는 넓고 높다고 한다. 일어서서 다닐 정도의 높이



마차산 줄기 봉암산에서 내려다 본 동두천 시가지 바로 아래 긴 건물 소요초등학교가 보이고 있다.



간파리 가는골(細谷洞)
간파리 북쪽에 위치한 마을



천원금광 아래 큰 골짜기 물
이곳 옆에 천원금광 사무실 터가 있다.



백백교 천원금광 들어가는 입구
왼쪽 길로 500m~70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백백교 교주 전용해가 가끔씩 머물렀다는 봉암산 자연
동굴이 바로 아래 위치해 있으며 그 맨 아래 돌아서면
천원금광이 있다.



천원금광 좁은 골짜기 현장



자연동굴
필자 소요동 양지슈퍼 모자쓴이가 최 훈섭씨,
얏은이가 문화원 양승탁 이사.
동굴의 입구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천원금광 산줄기 오른쪽에 있는 책바위

그 바로 밑에는 조그마한 골짜기 물이 졸졸 힘없는 소리를 내며 말없이 흐른다. 작은 돌을 들쳐보니 백백교의 증인이나 된 것처럼 가재가 집게손을 휘저으며 뒷걸음 치면서 몸을 숨겨버린다. 이곳에 와보니 돌뿌리에서부터 풀잎까지 그모두가 슬픈 빛으로 마주보며 그시대의 너무나 가혹한 쓰라린 아픈마음으로 눈에 비쳐진다. 좁고 작고 짧은 산골물 따라 내려오면 천원금광 사무실터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통나무 가운데 사각의 공간을 남겨두고 나무와 진흙을 발라 토담집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기 살인을 일삼던 곳이다. 60여년의 세월이 바뀌면서도 흔적만 남기고 있는 까닭은 언젠가는 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원혼을 달래주고 한을 풀어 달라는 애절한 기다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10여년전만 해도 해마다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힘없이 발길을 돌려 갔다는 말이 있다. 어느 모 TV방송국에서도 촬영하러 왔다가 백백교 현장 증거자료가 없어 주민들에게 몇마디 문의하고 가고난 뒤 발길이 끊기고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 필자는 독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백백교가 잉태하기까지와 최후의 죄가를 받고 종말을 고할 때까지를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았다.

백백교 사건은 기록에는 너무 단순하고 천원금광에서 벌어졌던 비참한 일들이 당시 목격했던 증인들이 없기 때문에 아쉬웠고 답답하였다.

지금부터 61년전 일이기에 그 당시 상봉암리에 생활하셨던 분들은 모두가 고인이 되셨기에 직접 목격하신 분들의 증언을 못듣는 것이 안타까웠다. 누군가에 의해 10년 전에만 이일이 추진되었어도 더 자세히 필자는 알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만 남긴채 그분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집필할 수밖에 없었다. 그분들까지도 안계셨다면 상봉암리 백백교 사건은 영원히 우리 기억속에 전설인양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니까 필자는 4번씩이나 현장답사와 주민 5~6분들의 후손들로부터 사건현장을 전해들은 그대로 옮겨보기로 한다. 필자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때는 1935년 어디 한군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몸을 숨겨가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전국을 누비고 다니던 백백교 교주 전용해 1~2년 후면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뜨는 것이 특징이다.

어디서 누구의 제의를 받았는지 소문을 듣고 교주 전용해는 상봉암리까지 마수의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금을 캐는 폐광(廢鑛)을 이용하여 사기살인 행각을 벌이기 위해 장창업과 함께

장창엽의 명의로 정식 등록하여 등록번호 12046호 일제하의 양주군수, 경찰서장, 지방유지들을 초청하여 소, 돼지를 잡아서 제를 올리는 등 성대하게 개광식까지 가졌다 한다.

전용혜는 잔인무쌍한 자로써 우매한 교도들로부터 편취한 재물로 군주와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교도들을 위협해서 비밀을 지키게 하고 또 자기 기분에 따라 맞지 않거나 자기 하는일에 방해가 되거나 탄로날 우려가 있을 때는 거침없이 인명을 살상했다는 잔인무도한 자이다.

천원금광은 6. 25사변 당시에는 상봉암동 주민들의 피난처로 사용될 정도로 은밀하고 안전한 곳이기도 하였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그 당시에도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입구가 붕괴되어 좁았지만 엮드려 들어가 다보면 안이 넓다는 것은 1958년 당시 초등(국민)학교 3학년생인 송명호씨의 말에 의하면 50m 깊이의 길이에 천원금광속은 안은 넓고 우물까지 있어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으며 물옆에는 제를 지내는 커다란 제단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지금은 고인이된 송명호씨이기에 더 이상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때 송명호씨로부터 전해들은 문화원 양승탁 이사의 말이다. 더불어 말하자면 천원금광은 발굴할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천원금광 안에도 우물이 있어 돌절구를 빠뜨리면 돌과 돌이 부딪치는 굉음과 함께 깊이 빠져 들면 몇일후에 그 돌절구는 임진강 물줄기로 나왔다 한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우물을 갖고 있는 소요산 자락의 한골짜기에 위치한 금송굴(金씨와 宋씨성을 가진 분이 발견했다하여 금송굴이라고 함) 그곳에도 자연동굴속을 한참 들어가 돌절구를 던져 놓으면 그해 농사때 비가 적당히 와서 이돌절구로 많은 벼 이삭을 뿜을 수 있게끔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그런 의식을 했던 것이다. 그곳 금송동굴에 우물깊이도 끝간데 없이 얼마나 깊은지 천원금광같이 몇일 후에 그 돌절구가 임진강으로 흘러 내려왔다는 전설이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다.

지금도 천원금광이 위치해 있는 안흥리(구 아리랑다리 300~400m) 북쪽 언저리에도 30년전만 해도 안흥골짜기 물과 신천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금을(크기는 수수알이나 좁쌀의 크기였다함. 까만 색깔에 반짝반짝 빛이나고 납작하며 각이 있다고 한다.) 캐는 사람들이 많았다하며 물가에서 삼태기나 체에 받쳐 사금

을 그런대로 많이 켜다고 한다. 어쨌든 그래도 금 종류가 천원금광을 중심으로 나오긴 나왔던 모양이다.

백백교 교주 전용해와 장창엽은 비밀리에 모의를하여 천원금광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할 수 있는 꿈을 꾸기 시작하여 장창엽이는 읍내에 나가서 순금 닷냥을 사가지고 와 또는 다른분의 말에 의하면 경성(서울)에서 전용해가 사왔다는 설도 있다.

아무튼 전용해와 장창엽은 캄캄한 그믐밤에 사가져온 순금 다섯냥을 모두 잘게 깎아 내어 돌로 두들겨서 자연스럽게 잘게 만들어 교도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전용해와 장창섭은 깊이 50m의 천원금광 막장에 흙과 같이 섞어서 박아 놓았다 한다.

이 모든 것이 금광개광전에 준비하였다 한다.

우선 각 도의 전도한 교도들부터 금 캐는 광경을 보여준 뒤 그것을 백백교도들에게 믿게하고 이때부터 백백교도들은 주로 경기도 이웃도인 황해도, 강원도를 시발점으로하여 평안남도 평양까지 소문을 퍼뜨려 찾아오게끔하여 악마의 손을 뻗치기 시작한다.

이남지방에는 인천교인 장남 교주 전용주가 교세를 확장하여 내려갔기 때문에 전용해는 주로 북쪽지방을 선택하였다 하는데 주로 부유한 평양사람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인간으로서의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기에 상봉암리 주민들은 알고 하지도 않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밖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제치하에서 압박을 받아가며 일년에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으면 세금으로 농산물을 강제로 공출해 가는 시대였기에 먹고 사는 것 외에 다른 관심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이다. 소달구지에 살림도구를 싣고 그 뒤에는 열몇식구나 되는 가족들과 그룹이 되어 계속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왜 이러한 살골짜기로 들어갔는지 의문을 안가졌다하는 것이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아무튼 백백교주 전용해와 간부 장창섭의 사기극에 놀아난 교도들은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평안도, 황해도 평양, 강원도 철원 등을 다니며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상봉암리 마차산 줄기인 일명 그들이 말하는 봉암산 천원금광.

이곳 백백교 현장 마차산 줄기따라 내려온 큰 골짜기에는 60여년의 세월이 떠나갔지만 골짜기의 물은 여전히 맑은 빛으로 흘러 내려 오고 그 산을 한참 오르다보면 마차산 산등성이가 보이고 바로 이 곳이 옛날 양주군과 지금의 연천군 경계선이다. 그 넘어 내려가다보면 연천군 영근면(전곡읍) 간파리라는 마을이 나타난다.

산골짜기 비탈 지리적으로 여기 저기 띄엄 띄엄 초가집들이 흩어져 마을을 이루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끼니 때가 되면 초가집 굴뚝의 연기는 간파리 골짜기 안개낀 듯이 마을을 덮고 이곳에서 본 저 산넘어에는 상봉암 천원금광이 있고 이곳에는 백백교인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교도들도 같이 생활하는 그들의 은신처이기도 했다.

천원금광에서 나왔다는 금을 갖고 다니면서 각 도(道)에서 데리고온 가족중 부녀자를 징발(徵發)하여 교주 전용해 간부 장창섭의 음란지옥의 애욕의 노리개를 삼다가 계속 새로운 부녀자가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실증을 느껴 도피할 우려나 자기들의 은신처가 탈로 날 기미(機微)가 있는 사람들은 간파리 이 곳에서 암매장 했다고 한다.

천지를 예배하고 무병장수(無病長壽)하고 유·불·선(儒·佛·禪) 3도를 종합하여 피폐(疲弊)한 세도인심을 교화하여 광명한 세계를 실현한다고 주장했다. 백백교 간부급인 교도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영을 받아 상봉암리 천원금광에서는 엄청난 금이 나오고 있다 하며 금광에서 나온 금 일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군중들을 현혹하게 하며 직접 천원금광에 데리고 와서 금캐는 장면을 보게 한 다음 장창섭이 와 면담이 끝나면 고향으로 되돌아가 문전옥답을 모두 팔아 소마차에 살림도구를 싣고 왔다고도 하고 현장에 와본 가장(家長)인 사람들은 직접 고향집으로 편지를 써서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정리가 되면 다시 교도들이 가서 가족들까지 안내하여 데려왔다고도 한다.

이렇게 해서 가족단위로 끌려 들어간 수는 헤일 수는 없다는 말이고 보면 몇 년사이에 많은 가족들이 희생당했을 거라고 짐작된다. 천원금광은 안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입구를 좁게 만들었는데 그안에 금광높이와 넓이는 사람이 서서 다닐정도이며 불편하지 않았다고 한다.

백백교 간부인 장창섭은 가족들을 이 금광에 무릎꿇게 하고 그들은 주문을 외

는 동안에 뒤에서 처서 죽인후 한곳에 매장했다는 것이다. 일본순사들한테 누가 신고를 했는지는 몰라도 경찰서에서 덮쳐 상봉암리 백백교 설체가 벗겨지기 시작했다. 백백교주 전용혜는 경성에서 어찌다 한 번씩 내려왔고 백백교 간부인 장창섭이가 모든일을 주도하였다가 장창섭과 교도 몇십명이 경찰에 체포되어 갔다하며 그 후에 일본 경찰서에서 조선인 노역자들을 동원하여 시체발굴 70여구를 가마니를 뜯어 들 것을 만들어 상봉암 마을을 지나 지금의 벨기에탑이 그때에는 공동묘지 자리였기에 그곳에 시체 한구씩 매장해 주었다 한다.

지금 이 시대에도 몇 년전 오대양 집단 자살 및 살인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지난 94년에는 사기등 혐의로 구속되어 7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에 있는 영생교 교주 조희성(曹熙星 64세)에 대한 영생교 신도들의 피해를 본 친, 인척들은 채수사와 실종자 발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생교주 조희성은 경기도 부천시 역곡2동에 영생교 승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창설하여 지난 94년 2월 서울지법에 의해 종교와 사업을 묶어 운영된 사이비 종교집단이라고 규정돼 교주인 조(曹)씨가 사기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교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당시 수사결과는 영생불사(永生不死)라는 교리를 내걸고 (부부동침 금지)등 총 1백 31가지의 강령(降靈)을 규정한 격암유록이라는 경전(經典)을 통해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도 여러곳에 집단으로 암매장 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한곳만 발굴한 것도 이정도이니 당시 엄청난 살인극이 짐작되어진다.

마차산 즐기따라 내려온 큰 골짜기에는 60여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골따라 흘러내려온 맑은 물은 길게 꿈꿈 얼어붙어 눈 빛으로 한낮에 태양의 빛을 받아 눈이 부시고 올라가는 산길에는 인적이 끊긴채 눈이 쌓여있고 울창한 참나무 숲을 헤치며 마차산 등성이를 오르니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갈까마귀만 그때의 슬픔을 말해주듯 까악-까악 울며 날아가고 있었다.

필자는 잠시 땀을 식힐겸 바위에 걸터앉아 상념에 깊이 잠겨본다.

60여년전 백백교의 감언이설에 속아 스스로 억울하게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녀자들. 한손에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등에는 갓난아이를 업고 그렇게 힘들게 이 안흥고개를 넘었을거라는 생각을 해보니 인생무상(人生無常)이라는 글귀와 허무함과 슬픔이 밀려온다. 한모금 뿜은 담배연기만 흩어져버린다.

눈아래 내려다 보이는 간파리 가는골 낮은 눈덮인 산길따라 넘어오다보니 저 끝아래 밀알기도원이 보이고 그 위로 가는골 몇채의 집들이 보인다.

행정구역은 1914년 이전에는 경기도 양주군 영근면 간파리 가는골이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폐합에 따라 간파리 산넘어 송산골과 병합하여 간파리라해서 연천군에 편입되어 영근면이 없어지면서 전곡면에서 전곡읍으로 승격되어 지금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가는골 또는 세곡동(細谷洞)이라고도 한다. 마차산 안흥고개를 중심으로 간파리 가는골은 백백교 간부 문봉세가 도맡아 모든 이를 처리하였다. 상봉암 천원금광은 장창엽이 사기 살인극을 펼친곳이다.

간파리 가는골은 골짜기가 좁고 한곳으로 길이 있다하여 가는골이라 하며 산굽이마다 마을이 있어 간파리 북쪽에 있는 곳이 가는골이고 이곳을 넘어가면 송산골이 보인다.

1930년 그때의 가옥들은 찾아볼 수 없고 백백교터만 화전밭으로 변해 을씨년스럽게 잡초만 무성하게 마른 숲으로 변하여 있다.

이곳에 백백교를 세우고 실내에는 절간같이 원색으로 치장하여 꾸몄으며 금은 보화, 패물을 받치고 1백번을 절을 하면 호화로운 세상이 펼쳐지며 무병식재로 장수하고 소원성취를 이룰 수 있다하여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녀자들도 많이 찾아왔다고 한다.

경성(서울) 죽점정 일정목에서 교주 전용해와 같이 있던 문봉세의 친동생인 문봉조는 형이 있는 간파리 가는골로 피신한 곳이기도 한다.

이곳에서 상봉암 천원금광에서 온 부녀자들을 자기가 들어갈 구덩이를 파게한 다음 백백교교회에서 패물을 바친후 1백번 절을 한 다음 간부 문봉세가 무병장수 약제술을 부녀자들에게 먹인후 구덩이를 파 놓은 곳에 엎드려 기도할 때 뒤에서 밀어넣어 그대로 생매장 했다고 하며 아이를 업은 부녀자들도 같이 생매장 했다고도 한다. 한편 동둔해(지금의 동두천) 주재소 일본순사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백백교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이곳 가는골 천지신령께 재물을 바치면서 일백번 절을 올리게 한후 구덩이를 파라고 했는데 나는 힘이 없어서 못판다고 이미 순사의 부인은 눈치를 챘다고 한다.

한편 일본순사는 자기부인이 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수소문 끝에 간파리로 기도드리러 갔다하자 동료들과 같이 간파리를 급습하여 모두 체포하여 경성으로

압송했다는 설도 있고 하왕십리 주재소 모리아 순사부장과 구나이 순사가 문봉조를 체포하러 간파리에 왔다가 백백교의 실체와 본거지가 들통났다는 설도 있다.

계절에 따라 간파리 주민들에게 쌀, 야채, 과일(복숭아, 밤, 대추) 등을 팔아주기도 하였으며 간파리 주민 남인희(69세)씨의 말에 의하면 어릴 때 아버지가 백백교에 대추팔러 갔을 때 같이 따라가서 보니까 실내를 호화스럽게 꾸며 놓았으며 백백교 앞에는 문지기들이 서 있었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농촌에서 먹기힘든 과자, 사탕종류를 맛보았으며 간파리 주민들에게는 비교적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곳에서 여러 주민들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백백교란 일백번 절을 하고 일백명 인명을 살생하여야 하며 교주 전용해는 백명의 첩을 두어야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며 소원성취하고 무병장수하다고 하였다. 교주 전용해는 99번 100번째 첩이 동둔해(동두천) 주재소에 신고하여 모두 체포했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교통편은 경성(서울), 원산(북한) 방향에서 집단으로 열차(기차)를 이용하여 동두천역(지금의 동안역)에서 내려 상봉암동 마차산(그들이 말하는 봉암산)을 넘어 간파리 가는골까지 넘어왔다고 한다.

황해도, 강원도 철원지방에서는 우마차에 곡물을 싣고 가족단위로 왔다는 설도 있다.

아무튼 남자들은 상봉암 천원금광에서, 여자들은 간파리 가는골에서 백백교 간부들에 의하여 '암매장'의 잔학성에 희생물이 되었다.

20~30년전만해도 간파리 가는골에 가을에 도토리를 따러가면 옛날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한다.

일본순사들이 간파리 주민들을 동원하여 부역을 시켜 시체발굴작업을 하여 한 구덩이에서 4~5명 또는 10~15명의 시체를 찾아낸 숫자가 80여구에 이른다고 하며 이곳에 사는 민씨성을 가진분이 야산을 내놓아 그곳에 모두 산소를 만들어 주었다 하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간파리 백백교 간부인 문봉세는 체구가 작았다하며 교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60여년전 농촌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염소를 키웠으며 닭도 많이 키웠고 가끔씩 신도들이 잡아오는 노루의 생피를 먹어가며 부너자, 처녀들을 애육의 노리개로 삼아 간음을 일삼았고 염소와 닭도 정력제로 사용하여 먹어가며 밤낮으로 음란지옥을 연출했다한다. 교주 전용해는 자기가 능욕한 여자 또는 마음에 들지않은 여자

들은 간부들에게 불하해 주었으며 간부들도 보통 7~8명의 여자들을 거느렸다고 한다.

교주 전용해가 능욕한 여자들은 셀 수 없을만큼 많았으며 그중에서 얼굴이 예쁘고 몸매도 뛰어난 애첩은 몇 명뿐이었고 그녀들도 끝내는 무차별 살생, 암매장했으며 그들의 세계에서는 천지신령을 예배하고 무병식재로 장수하고 호화롭게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강조하며 신도들을 현혹했다고 하며 전용해를 천부님의 아들로 받들고 세상은 멀지않아 물심판과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살아남기 위해서 피난소를 찾아야 한다며 전국에 53개소에 임시분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조(曹)씨는 한때 전국 55곳에 지회를 두고 3천여명에 이르는 신도를 거느려 왔으나 94년 曹씨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자 교세가 급격히 줄어들어 조(曹)씨 사건 이후 영생교측은 본부를 부산으로 옮겨 현재 1천여명의 신도가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필자는 병자년 한해가 또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는 이즈음 이천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金己順 여 56세) 사이비 종교(似而非 宗教 : 겉으로는 그것과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다르고 아닌 것, 겉과 속이 다르고 남을 속일 수도 있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면 사이비 종교의 뜻에 이해가 쉽게 가리라 본다.) 암매장 사건으로 요즈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 이천 대월면 대대2리(아가동산) 협동농장 교주 김기순의 원적은 함경남도이며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여고를 졸업하고 재학당시 IQ가 140이 넘는 정도로 수재(秀才)였다고 한다.

봉암산 백백교 사건이 난지 6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사이비 종교 감언이설에 속아 현혹되어 노예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그렇게도 인간으로서 무지(無知)할 수 있을까 하는 연민(憐憫)의 정을 느끼기도 한다.

사이비 종교 영원히 이 땅에서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은 없는 것일까?

백백교에 대하여 글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 보는 이로하여 다시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아가동산 자료를 수집하여 곁들여서 집필할까 한다.

1996년 한해가 조용히 마무리 되는가 했더니 몸도 마음도 추운 12월 겨울의 끝자락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 이천 대월면 대대2리 아가동산 협동농장 주인 김기순은 서울 소재 박태선 장로교회에서 교리에 회의를 느끼며

1978년 12월 경에 이천 소재 주현교회 식발교(전도하려 다닐 때 식발하고 다녔다 함.), 또 다른 자료에 의하여 한때는 주현교회가 전북 이리시 174-4번지에도 있었다고도 하는데 확인할 수는 없다.

김기순은 1968년 8월경에는 전북 익산(교회명은 불분명함.)에 있는 그곳에서 교주 김현봉이와도 몇 년 같이 있으면서 한때 추종했다고도 한다.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이천 주현교회 이교부는 그를 따르는 세 여인이 있었는데 이교부는 각각 세 여인에게 ‘내사랑’ ‘내목시’ ‘내꿈’이라는 명칭(칭호)을 붙여 준 다음 이 세 여인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하였으며 그중에 한 여인이 김기순이었으며 교인들에게 숭배하도록 하였다 한다.

이교부를 따르는 열성신도가 많았는데 이교부를 추종하는 신도들의 패가 갈리면서 싸움이 일어났고 폭력사태까지 발생하여 이교부는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때 이교부를 따르던 김기순은 교도소와 주현교회를 오가며 다리역할을 했고 이교부를 하나님이라 믿었던 김기순은 자신을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며 이교부의 영이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떠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 했고 교도소에 있던 이교부도 김기순의 행동을 전해 듣고 면회온 교인들에게 김기순이의 말을 믿지 말라고 신도들에게 말했다 한다. 하지만 김기순은 이교부의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말이 곧 진리이며 이교부의 말은 전부 거꾸로 해석해야 한다며 김기순은 이상한 논리를 폈다.

결국 김기순의 감언이설에 많은 신도들이 넘어갔고 추종자가 되어야 했다.

그때가 우리나라가 한참 공업발전국가로 나아갈 때 마침 메스컴과 사회가 공해문제로 시끄러울 때 였다. 김기순은 기회가 이때다 싶어 공해문제와 종말론을 연결시켜 그런 일들이 모두 세상이 곧 멸망할 때가 되어서 그렇다고 설교하였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에텐동산을 만들어 순결하게 살다가 신이 되어야 세상이 멸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교를 하였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김기순의 권유에 따라 재산도 바치고 가족들을 데리고 에텐동산에서 아가동산으로 둔갑하여 아가동산 김기순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때 처음 아가동산을 만들어 나갈 무렵 천국에 가려면 체질개선을 하고 그러

려면 식단을 바꾸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아가동산 사람들을 새벽일찍 일어나 한밤중에 끝나는 힘든 막노동을 하는데도 저녁은 딱딱하게 식은 현미 주먹밥 한덩어리로 떼우고 점심은 쌀겨죽으로 떼웠다 한다.

김기순은 현미안에는 모든 영양소가 있으므로 이것만 하나 먹으면 된다고 했다. 점심으로 먹은 쌀겨죽은 정미소에서 도와주어서 남은 쌀겨와 쌀눈을 공짜로 얻어서 끓였다 한다.

그것도 많이 먹어 똥똥해지면 일찍 죽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세상도 볼 수 없으니 이런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기순이도 스스로 너무했다는 것은 그래도 털끝만한 양심은 있었는지 나중에는 남들이 알면 욕하겠다고 하면서 몇 년을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한다음 정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무언가 알수 없는 것에 대하여 호기심과 시선을 보낸다.

인생의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더라도 자기 현실에서 잠시 떠나려 한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그에 상응하는 고뇌와 우려를 가지고 무엇인가 다른 것에 대한 이상에 애달픈 희망을 걸고 인생의 황야를 방황하는 우리에게 있어 인생의 이정표는 꼭 필요한 것이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생활의 가치를 아는 정신문화의 힘을 쌓아갈 때야만 행복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 본다.

이때에 김기순은 박태선, 김현봉, 이교부 사이를 오가며 각 사이비 종교마다 특유한 것을 연구하여 사이비 행각을 계획하며 김기순은 앞으로의 에텐동산을 빙자하여 아가동산의 이상의 나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준비작업에 몰두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아가동산의 실체는 이교부, 박태선, 김현봉의 합작품을 모아 연출한 김기순의 대작이라고 볼 수 있다. 교주 김기순은 기독교와는 달리 내세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지 않다.

이곳은 어떠한 종교의식도 없다. 아가동산은 현실속에서 천당 또는 극락세계를 이룩하자는 소망으로 지상낙원을 세우며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사랑이 되어 천년을 함께 영생의 삶을 살자는 것이 교주 김기순의 교리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기순은 아가동산을 작은 왕국으로 세웠으며 신도 300여명이 하루 18시간 무보수로 노동력 임금을 착취 당하며 15년간이나 신도들은 억척스럽게 일하며 세인들이 놀랄만큼 오늘에 김기순은 부를 축적해 가며 오늘의 아가동산이 되었을 것이다.

10만 5천평중 4만여평의 농지를 불법전용해 가며 국비등 32억원을 무상으로 지원받으면서 음반제작-유통석권-레코드 왕국으로 올 매출액 350억 예상으로 전국시장 점유율도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지금 여주지청에서는 아가동산 신도 20여명을 1996년 12월 26일 기소했다고 한다. 아가동산으로부터 압수한 거래장부 등을 분석한 결과 1백여개 음반 제작유통업자와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져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며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여주지원에서 강미경양(당시 21세)의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아가동산 신도 윤모씨(44 굴삭기 기사)에 대한 공판전 증인 신문을 실시하여 윤씨로부터 암매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냈다고도 한다.

여주지청은 교주 김기순이 지난 9일 달아난 날인 아가동산 사람들이 서류들을 과수원 부근인 땅에 파묻은 것을 보았다는 제보에 따라 굴삭기를 동원해 이날 오후 8시 25분쯤 지하 6m 지점에서 15kg들이 아가동산 사과라고 쓰인 신나라유통 등 5개 업체의 각종 장부와 세금계산서 테이프 등을 발굴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신나라유통 부사장 정문교(44세)씨는 레코드 제조 및 판매업체인 신나라유통과 킹레코드등 5개 업체를 관리하면서 지난 91년부터 1백 50여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회계장부에는 지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며 72억 1천 7백만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기순은 일요일 저녁마다 신도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병치료에 대한 특유한 문답식으로 설교를 했으며 말인 즉 항암제는 사람을 죽이는 극약인데 암은 죽음을 먹으면 재발이 없으며 죽엄 자체가 햇바닥에 킴하고 합치면 암세포나 결핵균이 없어진다는 허무맹랑한 설교를 하였다.

김기순의 18번은 “저별은 나의 별”을 “아가의 별”로 불렀고 가수 현철이 “앞이나 서나 당신생각”을 “앞이나 서나 아가생각”으로 신도들에게 고쳐 부르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예수란 단어를 모두 김기순이를 뜻하는 “아가야”로 바꿔 부르도록 강요했으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반항하거나 비밀이 탄로날 신도가 있으면 강미경(20세)양 같이 살해하여 암매장을 하기도 하였다.

김기순의 교시에 따라 총관리인(김호웅 52세) (신도 정재각 45세 여) (최경란 50세 여) 등들이 주로 사주를 받아 살인 감금 암매장 등에 가담하여(현재 여주

검찰청에 교주 김기순과 함께 구속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김기순 교주는 신도들에게 살아 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으며 그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법과 같았다. 아가동산 신도들은 한때 이교부를 세례 요한으로 김기순은 재림예수로 각각 신봉해 왔으며 김교주는 자신이 한때 추종해 왔던 이씨의 교리에 따라 신도들에게 인정선, 정육선, 물질선과 단절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교했으며 부모 형제 처자들과 관련된 인륜선을 끊고 아가처럼 죄가 없이 깨끗한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과 선을 이어야 영과 육이 영생을 이룬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단 유사종교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몸과 마음 정신이 건강해야겠으며 건전한 직업의식과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가정환경이 불우할 경우 즉, 부부간의 불화, 자식들의 소외감, 부모형제들의 갈등, 사회나 가정에서 공동의식을 느끼지 못할 경우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쉽다.

적어도 외형상으로 그들은 따뜻한 형제애로 강조하며 신자끼리 호칭도 형제 자매 식구 등으로 따스하고 정답게 부르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감언이설에 속아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기 쉽다하겠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속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다만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 미혹(迷惑)의 영을 받아 역사(役事)한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악령에 속임을 당해왔고, 종노릇 등 모든 헌신을 다하도록 로봇노릇을 해 왔을 뿐이다. 그들은 이단 종파에서 교리들을 하나씩 성경의 기준에 맞추워 비교하며 그들은 자기들이 받아온 교리적 훈련에 대해 의외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이비 종교들의 특성은 한결같이 종말론을 내세운다. 사람들로 하여금 절박한 위기 의식에 스며들게 하고 절박한 위기에 빠지게 되면 으시시한 세상의 종말에 살아남으려면 유일한 길은 교주 말에 따르라는 것이었다. 우선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이상한 말로 꾀어 맞추어 잠을 못자도록 공포감에 떨게하고 불안해서 몸둘바를 모르고 있을 때 사이비 교주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안정되게 감언이설로 설교를 하여 불확실하고 불안으로 떨고있는 신도들에게 세뇌 설교를 한다. 자기이익과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모두 자기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기를 요구하고 그들은 인간의 개개인이냐 영혼이냐 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지위 안락을 위하여 신도들을 도구와 기계처럼 이용할 뿐이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 행하면 될 것을 말이다.

우리는 진실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자기의 삶에 비추어볼 때 이단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일은 못할 망정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사람 못된 것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뜻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주를 부려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원숭이 이야기를 몇자 더불어 적어본다.

원숭이는 평생을 사과나무에 의존해 가면서 살아간다. 사과나무는 비바람을 피하여 주고 오르내리며 놀이도 즐기며 숙식도 제공한다. 평생을 원숭이는 사과열매를 주식으로 하고 살아간다. 세월이 흘러 노후가 된 원숭이는 죽음을 직감하고 스스로 사과나무 밑 뿌리속에 굴을 파고 죽음이 다가온 원숭이는 끝내 생을 마감한다. 우리 인간이 지켜보아야 할 것은 원숭이의 죽음보다 원숭이는 평생을 사과나무에 열매를 따 먹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사과나무에 거름이 되어 후세에 원숭이들이 많은 사과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거름이 되어 후세를 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인간으로써 느끼는 바가 많다 하겠다.

하물며 원숭이도 자신의 환경과 후세에 도움이 될 죽음을 알건만 사이비 종교로 세상 사람을 미혹하는 모습이 참으로 추악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국내에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관계 전문가들은 현재 1백개 이상에 30만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 이들은 일반인들이 식별해 내기는 쉽지 않다. 조직과 활동이 비밀스러운 데다 창교역사가 짧지만 건전한 신흥종교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의 탈을 쓰고 반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이비 종교들은 몇가지 공통적인 것이 특징이다.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교주를 신격화 하고 모든 재산을 사유재산화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역사가 없으며 기성 종교의 경전과 교리를 교묘하게 재 해석하여 교주에게 끼워 맞추는 식의 방법이다. 교회와 사찰 등 기성 종교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며 극단적인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다. 기적, 영생불사, 신병치유, 시한부 종말론, 신비체험, 황당무개한 예언 등을 강조하는 점도 두드러진 점이 특징이다. 이들은 신도들이 조작해 맹종하도록 요구

하고 개인의 삶을 희생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며 금품을 강요한다. 재산을 헌납한 만큼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전 재산을 내 놓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력이 없는 신도들에게는 노동력을 착취하는게 특징이다.

교주와 지도급 인사들이 간음, 성폭행, 혼음 등을 일삼으면서도 이를 종교적 이유로 포장해 피해자들이 범죄로 여기지 않도록 한다.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단순하고 일면만 보고 그냥 믿어 버리는 순진한 편심, 즉 한가지 뜻과 정신적 마음만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어버리니까 누가 뭐래도 자기가 택한 길이 오직 옳다고 생각하는 단순형이라 볼 수 있다. 과학문명이 최고도로 발전되고 첨단과학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아직도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사이비 종교를 빙자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교리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더 이상 이 시대에 이용당하거나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필자는 몇일 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테레사 수녀의 신문 기사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 테레사 수녀는 심장질환으로 입원은 물론 수술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극진한 치료와 간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가난한 사람들처럼 죽어 가도록 내버려 달라고 주치의에게 호소했다고 한다.

생로병사의 철칙에 따라 사람이 늙으면 죽기 마련인데 순환에 순응해 호사스럽게 생명을 연장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듯 최선을 다해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준비가 되어 깨끗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게 떠나는 삶이 되도록 말이다.

백백교 사건은 교주 전용해가 자살하고 장창엽이가 교도들과 함께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압송한후 부터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기록에 없다한다.

돌이켜 보면 꽃샘추위 속의 이른 봄부터 첫눈 내리는 계절까지 9개월동안 심적인 부담을 갖고 백백교에 대한 근거자료를 찾기위한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 본적이 없었다.

마치 백백교 혼령에 홀린 것처럼 홀연히 봉암산(천원금광 및 자연동굴) 오르내리기를 몇번이었던가.

내려오는 마을 어귀를 돌다 나이드신 분이면 아무나 붙잡고 백백교 사건에 문의를 몇번을 했던가!

집필을 끝내고 보니 모든 것이 주마등 마냥 그저 외롭고 쓸쓸하게 스쳐지나간다. 무엇을 완성해 놓고난 다음의 허전함이라 할까 필자는 혼자 중얼거려본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토록 백백교의 실상을 파헤치는데 동분서주 했을까?

새벽 2~3시 필자의 아들(신흥중 3)은 아빠 왜 무엇을 쓰길래 밤이면 이른 새벽까지 그 힘든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

필자는 백백교에 대한 연구논문을 작성해서 박사학위를 취득코져 한 것도 아니고 또한 백백교로 인하여 영웅심에서 집필한 것도 아니다.

최근 영생교 휴거론, 아가동산 등의 일련의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 사이버 종교의 원조격인 백백교의 실상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후세에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사건만을 역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치욕과 상처의 지난일 또한 역사이며 그러한 역사를 아는것도 반듯이 필요한 일인 것이다. 그때 상황을 바로 알 때 다시는 그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백백교 조사를 마치면서 필자의 바람이 있다면 소요산 국민관광지와 연계해서 백백교 현장(자연동굴→책바위→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웅달샘→천원금광→사무실터)을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뿐아니라 이러한 실상을 후세에 알려 흑세(惑世) 무민의 사이버 종교에 현혹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주지하는바와 같이 우리 동두천고장은 1개면(이담面) 이 시(市)로 승격되는 관계로 지역이 좁다보니 문화유산이 빈약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좋은 것만 발굴할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후세에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라도 더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차피 역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치며 문제를 만들어 놓으며 생기는 일이기에 우리가 인간사회를 거처온 변화하는 모습을 담은 것인만큼 후세에 남을 사건이든 아니든 기록에 의해 평가나 심판대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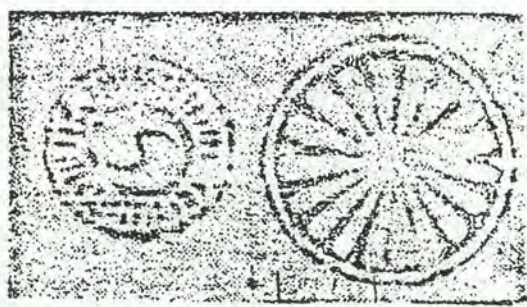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백백교 집필에 도움을 주신 소요동 양지슈퍼 최순섭씨, 동두천문화원 이사 양승탁씨, 세진문구 김석훈씨, 소설가겸 신흥종교 연구가 이문현씨, 덕호

교회 목사겸 유사종교 연구가 박민기씨 그동안 집필을 하느라고 원고 정리 뒷바라지에 무던히 애를 쓴 필자의 아내 그밖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떠오르는 태양은 오늘도 싸늘한 날씨속에 눈내린 흰 빛 세계를 내려다 보며 해는 어김없이 서산으로 넘어가지만 세월이 가고 때가 오면 우리가 찾아가는 마을에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우리를 따듯이 맞아주는 햇빛은 자연의 꽃을 또 피우겠지...

1996년 병자년 12월 하순





첩지에 찍던 인장 첩지에 찍던 인장

백백교 천하가 되면 벼슬자리를 줄 것을 약속하는 등으로 속여 재산을 갈취한 후 첩지(牒紙)에 찍던 백백교의 인장(印章).

沃畚眞操 獻上

愚民남근魔의策術

... (transcription of the vertical text columns) ...

백백교의 간판

1923년 살인음마사교(殺人淫癡邪教)인 백백교를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에서 창립했을 때 내건 간판

1930년 백도교주(전용해의 아버지)가 힘 5명을 생매장하여 살해한 사건이 드러나 백백교까지 수배령이 내려 지하로 숨으면서 간판을 내리고 밀교가 되었으며 살인비밀결사형태로 물결아갔다.

〈동아일보〉기사

10세부터 50세까지의 소녀, 처녀, 유부녀 등은 계신뿐만 아니라 정조까지 바치고 변태적 가학(加虐)으로 고통을 당한 뒤 간인하게 살해되었다는 기사.



정력제 노루

오대산에서 잡은 노루를 여신도가 선사하여
전용하는 그 피를 정력제로 복용하며
밤낮으로 유란지옥(淫亂地獄)을 험출했다.

白白教幹部의 妻妾

五十餘名處置難

四名은 仙道教에 關聯

<동아일보> 기사

전용하는 자기가 능욕한 여자,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간부에게 불허해 주어,
간부들은 평균 7, 8명의 여자들을 침으로
기느렸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

간부 전용하는 자기가 능욕한 여자,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간부에게 불허해 주어,
간부들은 평균 7, 8명의 여자들을 침으로
기느렸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

白白教의 地獄案內者

全龍海의 愛妾屍等

男女屍六個發掘

四十二名을 十二月初旬送局

渡邊檢證隊探查結果

간부 전용하는 자기가 능욕한 여자,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간부에게 불허해 주어,
간부들은 평균 7, 8명의 여자들을 침으로
기느렸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

<동아일보> 기사

전용해가 능욕한 여자의 숫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나 그 가운데 침으로 귀여위한
것은 몇몇뿐이었으며 그녀들도 끝내는
무참하게 죽었다는 내용.

여 백

수상작 모음

문화원 백일장 (I)

[산문]

<일반부>

장 원 손자의 소풍/조병란 外

<고등부>

장 원 봄날의 회상/박영애 外

<중등부>

장 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문경순 外

<고등부>

장 원 맑은 산의 눈, 코, 입이 있다면/이유미 外

일 반 부

장원

손자의 소풍

조 병 란 (동두천시 동두천동)

살 짝 열어 놓은 샷시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이 방 안에 먼지를 일으키고 직장생활하는 딸을 조금치라도 깨우지 않으시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는, 몇 년 있으면 팔순이신 친정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따라 초로의 머리칼이 더욱 하얗게 빛났다. 얼마 전에 큰 애의 소풍을 다녀왔고, 둘째 녀석의 소풍 때문에 새벽을 설치며 김밥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식탁에 앉아서 들이 말 없이 김밥을 말고 있으면서 내심 이번에는 모시고 가야지 하면서 힘들게 꺼낸 말 한 마디,

“소풍 같이 가요.”

“싫다. 안 간다.”

위낙 말씀이 없으신 분인 줄 알지만, 묵묵한 말씨가 때로는 심한 불쾌감을 안겨 주곤 했지만 오늘만큼은 부드럽게 대했다. 고소한 밥 위에 여러 가지를 넣으며 김밥을 꼭꼭 말고 있을 때, 귀엽고 애교있는 둘째 녀석이 할머니와 같이 가자며 한참을 졸라대니 그제서야 승낙을 하시고 우리는 소풍을 같이 가기로 했다. 친정어머니와 아주 오랜만에 김밥 싸 들고 소풍을 간 기억은 헝클어진 단발머리 휘날리며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먼지를 내며 손잡고 간 때가 아마도 거의 30년 전이 마지막이었다.

한 두차례 비가 올 거라는 기상예보의 불운한 소식 때문에 작은 녀석은 기가 죽고, 여러차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대로 소풍을 가기로 하고, 하얀 이

를 드러내며 차에 올라탔다.

출발한지 얼마 후, 바깥에는 어두어지면서 소나기가 오기 시작했다. 그 때 모두들 번덕스런 날씨를 원망하며 툭툭거리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잠깐 오는 비라면서 손자를 격려하자마자 무섭게 비가 그쳤고 그 이후로는 큰 비는 오지 않고 잠깐 지나가는 비가 내렸다.

날씨 굴곡으로 겨우 정착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열두시가 조금 지나 호령없는 점심시간은 시작되고 모두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열심히 먹었다. 이것 저것 싸가지고 온 것을 먹고 나니 가방이 훨씬 가벼워지고 짐을 차에다 싣고 간단한 것만 들고 식물원과 동물원을 거쳐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놀이동산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조차 동심으로 돌아간 듯 신나는 모습으로 놀이 기구를 타려고 매표소에 길게 늘어선 끝 자리에 서 있었다. 몇몇 젊은 할머니들의 모습이 그 속에 끼어 있었다. 그 분들도 여느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워낙 얌전하신 친정어머니는 손자의 빨리 못 걷는다는 핀잔을 들으시면서 손자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열심히 쫓아 오셨는지 벤치에 털썩 주저 앉으시면서, 나 걱정말고 실컷 놀고 오라 하시면서 무거운 다리를 의자위에 올려 놓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친정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벤치옆에는 마치 벗이라도 되려고 온 듯 비둘기떼가 한 무리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이를 열심히 쫓아대는 비둘기떼를 뒤로 한 채 잠깐 울적한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펄쩍거리는 작은 녀석과 뽕박질 시합이라도 하듯 뛰기 시작했다. 남녀노소 같이 즐기는 놀이동산에는 모두들 아이들이 되었다.

갑자기 썩썩달리고, 기차가 둥근 원을 달리고 거기에 맞춰 비명을 질러대는 아이들에 얼굴에는 더 신나는 것은 없을까? 하는 호기심에 차 푸른 나무에 걸린 눈망울은 더욱 즐거워 보였다. 모든 어린이 손에 들려있는 장난감은 더욱 신나보였다. 살짝 틈을 내어 친정어머니 계시는 벤치를 목을 빼어 보았다. 좀처럼 큰 움직임이 없는 그 분에게는 아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단지 힘없이 작은 녀석에게 들어 올리는 팔뿐이다.

긴 소매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살짝 부는 봄 바람에 우리는 하루가 어떻게 간 줄 모르게 즐겁게 보냈다. 축 쳐진 어깨를 한 우리는 지친 몸을 긴 의자에 맡기고 한참을 자고 있을 때에 어느덧 5월의 끝자락에서는 이 마지막 행사를 마감

했다.

늘 상투적인 말의 가정의 달 5월, 수 없이 많은 행사를 치뤄야 하는 5월, 우리 어머니의 하얀 머리 뒤로 살랑 살랑 부는 푸른 나무와 새싹들은 영원히 푸르게 자랐으면...

가슴 가득히 밀려오는 뻑뻑한 그 무엇은 나를 한참 생각케하고 힘들게 살아오신 친정어머니의 삶, 오늘만큼 환하고 평온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에 오는 소풍때도 같이 가리라, 마음으로 약속하며, 말씀없으신 친정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누런 이를 드러내는 미소를 보며 나는 그 대답을 알았다. 서쪽으로 지는 해를 등지며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다.



차상

고부 사이

김정자 (동두천시 보산동)

“**할** 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유치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치맛자락을 나풀거리며 여섯살박이 막내가 힘들게 인사를 한다. 두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제법 고개를 숙이며 점잖게 예쁘게 웃음을 흘린다. 아들 셋을 가진 어머님께 나는 딸 셋을 낳아 딸 없는 집안에 딸만 풍성하게(?) 안겨 드렸다. 세 딸을 모두 제왕절개를 통하여 낳았을 때, 한 번도 싫은 표정하지 않으셨던 시어머님. 병원의 입원기간을 내내 옆에서 지켜주시며 수발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 아기를 분만한 후 고통을 호소하면 그저 당신 딸처럼 애처러워 모두 ‘오냐 오냐’ 하시며 받아 주셨다. 분비물이 흘러 불편해 하는 며느리의 얼굴 표정을 이내 읽으시곤 기저귀도 몇번을 갈아 주셨다. 장손의 남편을 의식해 ‘아들 선호’라는 선입견으로 나 또한 보통 아낙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가져야겠다는 강박관념으로 무리하게 세 번째의 제왕절개를 감행하였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하시는 시어머님, 건강이 최고며 건강을 잃고선 아들이 무슨 소용이냐며 꾸지람이 심하셨던 어머님.

요즘 세상은 딸이 최고라면서 은근히 며느리 편에 서서 변호해 주셨던 분. 살다 보면 한 집안에서 고부간의 다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절대 거짓말, 때때로 부모가 자식에게 섭섭하게 나무라셨을 때 잠시 당신의 노고가, 며느리에 대한 애정을 의심했을 때의 갈등들이...

남편과 시동생 들간의 어찌다 일어났음직한 다툼에 불똥이 내게로 쏟아졌을때 잠깐 잠깐이었지만 나의 미움의 대상이기도 했었던 분, 5월이 오면 해마다 싱그러운 초록의 계절이 돌아오면 이런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숨을 곳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한다. 진심으로 가슴이 따뜻한 붉은 카아네이션을 당신의 조그맣고 작아진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새겨 드리고 싶습니다.

차상

육순을 맞으신 어버님

이 복 하 (동두천시 하봉암동)

파란 등나무 줄기, 연보라색 향기 속에서 무수한 아이들이 재잘거림이 산울림을 시기한 듯 흐뭇하고 날씨조차도 한 부조하듯 더욱 따사롭고 시원함이 가슴을 파고 든다. 내일은 우리 형제들에게는 아니 친정 식구 모두에게 뜻깊은 날이다. 항상 5월이면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 있어서 한 번쯤은 가정의 소중함을 되돌아 보겠지만 우리 육남매에게는 더욱이 새롭게 다가오는 친정 아버님의 육순이시다.

머리카락조차도 세월속에 세탁된 듯 검은빛 보다 더 빛나 보이고 주름살 깊은 그 모습에 검게 그으른 얼굴 모습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한다.

육십년의 세월 당신은 개구리소리 컷전에 요란한 한밤중에 땀내 진하게 베어든 베개 베고 돌아 누우셔 무슨 생각으로 그 많은 시간을 흘리고 계실까. 아니 시간의 흐름조차도 돌아볼 여유없이 금세 잠속으로 파고 드실지도 모르겠다.

제대하면 슬슬 놀아가며 만석군집 큰 아들 노릇 툭툭히 하며 머슴 부리며 앞에 보이는 강가에서 낚시나 하며 지내리라는 그런 한가로움도 잠시 그 꿈을 접어 두시고 삼십 팔년의 세월을 오로지 농사밖에는 모르고 살아 오셨다.

다정 다감하시지도 그렇다고 무섭지도 않으신 그런 성격으로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가르침을 몸으로 보이시며 살아오신 그 생애 박수를 보낼 뿐이다.

지금도 논이 이만평이 넘고 느타리버섯을 여름·겨울 두 번이나 재배하시며 열심히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으시게 너무 씩씩하게 사시는 모습이 그저 존경스럽고 항상 마음 한구석의 든든함으로 남아서 모든 일에 저 자신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듯하다.

결혼생활 10년이 된 나도 여러사람들의 사시는 모습을 보고 경험해 왔지만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생애 얼마나 큰 재산인지 새삼 느끼며 살아간다.

아버지의 생이 허탈하고 헛고생 했노라고 낙심하시지 않고 한 평생 고생하고 사신 것을 커다란 낙으로 생각하시도록 우리 형제들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자신들의 생활속에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아버님의 인생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분의 노고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

차하

아버지의 빈자리

장은숙 (동두천시 생연4동)

분 흥빛 카네이션 한 송이를 외할머니께 달아 드린다고 사온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 살아계실제 효도하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새삼 떠 오른다.

내 나이 30이 넘으면서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가끔씩 떠 오른다. 벌써 우리의 곁을 떠나신지도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술 때문에 얻으신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대는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눈물도 나지 않았다. 내 나이 15살까지 손수 옷이며 학용품을 사다 주셨던 아버지!

분홍색 세라복 옷을 사주시면서 은숙이는 이 옷을 입으면 참 예뻐거야 하시던 아버지 말씀! 내 결혼식 마치고 3일을 우셨다는 내 아버지! 하나 있는 딸자식 훌쩍 시집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연세드신 노인들이 걸어가시면 난 아버지 생각이 난다. 아버지도 살아계시면 흰머리에 까만 얼굴을 하고 계시겠지. 흰머리를 하고 걸어가시는 노인이 내 앞을 지나가면 노인의 뒷모습이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계속 바라본다.

지금은 안계신 아버지!

왜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조금더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후회스럽다.

지금은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빈자리를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는 볼 수 있다. 집안 큰 행사에 가시면 아버지 생각에 눈물 지우시는 우리 어머니!

많이 여위신 어머니를 바라보면 난 가슴이 아프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못한 내 자신이 밉고 후회스럽다. 지금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할 도리는 아버지께 못다한 자식의 도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밖엔 없을 것 같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장려

어머니께 드리는 글

강 현 주 (동두천시 청학연립)

자연과 더불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글을 쓰니 어떠한 마음으로 글을 올려야 할지 망설여 진다. 며칠 전 어머니가 백내장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정말 이제는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당신 곁에서 지냈을 때는 마냥 어리고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나의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나도 옆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을 하다보니 새삼스레 어머니가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님 누가 말했죠 어머니가 가장 강하다고 정말 당신의 이름이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나는 집안 살림과 아이들 핑계로 어머니의 병 수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동생들한테 미웠습니다. 퇴원을 하시고 집에 와 계실 때 제대로 가 보지도 못하고 이번 5월달도 정말이지 무엇이 그리 바쁜지 한번 가 뵙지도 못하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제는 어머니를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항상 마음이 아닌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겠습니다.

지면으로 이렇게 글을 쓰니 눈물이 나는군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장려

아 버 지

박 용 숙 (동안동)

아버지!
어느 사이에 산과 들에 푸르름이 짙어 가고 있어요. 작은딸 지현이의 입학식이 어제 같은데...

지난 어버이날 아버지를 뵈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작아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시절 아버지의 등은 너무나도 넓어 보였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지고 외롭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지난날은 몰랐으나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입학시키며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외롭고 힘드신 세월이 조금씩 조금씩 가슴에 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 철이 드나봐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길은 가정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결혼한지 12년 이제 저의 작은 힘이지만 아버지를 위해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노력하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아 주세요.

장려

감사의 마음

이 문 순 (동두천시 생연4동)

이 글을 쓴다는 것이 가슴 떨리지만 한편 즐겁다. 언제 글을 썼는지 아득한데 이런 행사에 참여한 것을 감사드리며 서투른 글이나마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열심히 사는 남편과 세 아이의 엄마로서 잘 살지는 못하지만 평범한 가정을 갖고 사는 것을 감사드리며 삽니다. 그리고 이곳 동두천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느때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좋은 이웃이 있고,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묵묵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겠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조그만 힘이지만 우리 마을의 봉사자가 되고 싶다.

나는 항상 이렇게 좋은 계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우리 가족 모두가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나는 나의 가족과 좋은 이웃과 이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남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려

마음의 창을 열며

이 선 숙 (동두천시 생연4동)

녹 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5월에 맑은 하늘을 향해 심호흡 한번 하며 지나간 일들을 회상해 본다.

반지꽃을 뜯어 목걸이 엮어 주던 그때 그 친구는, 고무줄놀이 할 때 고무줄 잘라 가던 그렇게도 알밋던 그 친구들은 그러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줬던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꿈을 먹고 살던 어린시절 나는 언제나 어른이 될까? 나도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했었지.

그 현실이 어느 결엔가 벌써 나에게 다가와 두 자녀의 어머니요 지아버를 섬기는 아내로서 또한 부모님을 모시는 며느리로서 오늘에 다가와 있다.

즐겁고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가며 때로는 짜증스러움과 허무함도 있는 삶을 살아가며 맑고 밝게 자라나는 나의 아이들이 무척이나 고맙고 대견스럽다.

성희야! 상우야! 아름답고 소박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후회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나의 지아비여! 야속한 마음이 때론 있지만 우리 더욱 분발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보다 더 좋은 내일을 기약하며 열심히 살아봅시다. 연로하신 부모님 무슨말로 고마움을 표시해야 합니까.

오늘 이글을 쓰는 소요산에서 웅장한 산보다 더 넓은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열심히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 대자연속에서 자연의 고귀함을 느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생각하며 5월의 냄새를 음미하며 저 푸른 녹음속으로 나는 다시 들어간다.

장려

-가정의 달 5월-

신록의 자연을 느끼며

홍미선 (동두천시 생연4동)

푸 르름이 가득한 5월.

자연과 벗하여 앉아 있는 이 시간이 한없이 여유롭기만 하다.

넷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는 저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각진 교실에서 벗어남을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자연을 대하니 마냥 개구장이가 되고 싶은 것인지. 나또한 두아이 등교시키고 정신없이 집 치우고 이 자리에 나오니, 자연의 고마움을 몸속 깊이 느끼며 모처럼의 여유를 갖는다.

가정의 달이니, 감사의 달이니 하는 5월에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어릴적 못느꼈던 자연의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잠시 어린시절을 생각해 본다.

옆집 언니 따라 겁없이 산에 올랐다. 산나물이라고는 채취한번 안해봤는데 원추리, 두릅, 취나물 등을 뜯는다고 즐거운 마음만 가득한채 산행을 했다.

그 시절엔 진달래꽃도 마음놓고 따 먹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얼마전 진달래꽃이 한창 피었을 때 큰 아이에게 먹어 보라고 뜯어 줬다. 오랜 망설임 끝에 정말로 조금 씹어 보더니 이내 뱉어버리고 말았다.

무슨 맛을 느낀 것일까.

그렇다. 우리의 입맛탓도 있겠지만 환경의 변화속에 꽃잎 또한 어릴적 그 맛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접하던 나물들이 이제는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은 웬일인가. 우리 나이 정도면 '싱아'라는 야채를 많이 먹어온 기억이 있을 것이다. 뒷동산만 올라가도 쉽게 한다발을 뜯어 씹어 먹었는데, 지금은 구경조차 할 수 없으니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자연은 누구 것인가. 누가 주인인가, 바로 너와 나 우리 것이다. 이렇게 시멘트 건물에서 나와 가까운 이곳 소요산만 찾아와도 근심걱정없이 자연을 느끼지 않는가.

나는 봄과 여름철 비온 다음날 아침 이곳을 찾는다. 풀냄새를 맡기 위해서이다. 두아이 또한 가볍게 절터까지 오른다. 상쾌한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도 자연의 고마움을 몸소 느끼며 자랄 것이다.

있을 때 잘 보존하여 서로에게 꼭 필요한 좋은 공기와 환경을 남겨 주어야 한다.



고 등 부

장원

봄날의 회상

박 영 애 (중앙고 2년)

5월의 싱그러운 햇살이 비추는 지금 난 너무 푸른 산에 와 있다. 이곳 저곳에서는 많은 새소리가 들리고 나를 둘러싼 나무들은 나를 반기는 듯 하다. 조용하고 맑은 이곳은 나를 흥분시킨다. 이곳에서 나는 글을 쓰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싱그럽고 따사로운 5월. 난 너무도 감사한다. 날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어버이날과 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리는 스승의 날이 있는 이 5월을 너무도 사랑한다.

나뭇잎 사이로 나를 비추는 햇살에 빠져 든다.

불과 1년 전의 이야기다.

추운 겨울, 난 고입시험을 보았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시험을 보는 것이고 왠지 자신감이 있었다. 그리고 떨어진다는 생각 또한 나와는 거리가 먼 것 이라고 느꼈다.

시험보는날,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힘을 주시던 부모님의 얼굴이 생각난다. 드디어 발표날이 되었다. 이 큰 종이에 내 이름 석자 들어간 곳은 없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춤듯 했고 어둠 속에 빠져 있는 나는 그곳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옆에 있는 예비 합격자 명단에 크게 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간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할 말을 잃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합격한 아이들은 좋아서 날뛰며 부모님께 연락을 하는데 난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부모님께 연락을 했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고 난 그만 눈물이 흘렀다. 전화 수화기 사이로 들려오는 아빠의 목소리는 꼭 꿈이라고 말해 줄 것만 같았다.

쓰러질 듯한 몸을 버스에 싣고 집으로 향했다. 내 마음을 종잡을 수 없었다. 그 종이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닌데...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날 보시고 마냥 우셨다. 내가 자꾸 울자 아빠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며 날 위로 해 주셨다. 그리고 아빠는 나의 뒤에서 눈물을 참고 계셨다.

그때부터 2차 시험을 볼 때까지 우리집은 거의 내 눈치를 보았다. 마음 상하지 않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중간 중간 바람도 쏘여 주시고 내가 말하는 것은 거의 우리 집에는 즉각 즉각 실행 되었다. 그러는 동안 난 우연히 밤 늦게 아빠의 쓸쓸한 뒷 모습을 보았다. 술을 드시며 너무도 힘들어 하시고 슬퍼 하셨다. 시험에 떨어진 내가 너무 안되 보이셨나보다. 난 거의 부모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와서 저녁에 들어와 쳐박혀 있었다. 기죽기도 하고 웬지 미안해서 부모님을 피하는 나를 눈치 채신 모양이었다. 눈치를 보는 나에게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 섭섭해 하기도 하셨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눈치도 보게 되고 피하게도 되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2차 시험일이 되었다. 떨어진 경험이 있는 나는 마음을 걸잡을 수 없었다. 시험을 마치고부터 발표일까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부모님은 나와 함께 초조해 하셨다.

합격자 발표일이 되자 발표를 볼 엄두가 나질 않았다. 꼭 내 이름이 없을 것만 같았다.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친구들만 보이고 나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허탈감에 빠졌다. 그런데 친구들이 내 이름을 찾아 말해 주었을 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집에 합격을 알리고 집에 돌아가니 부모님은 긴장이 어느 정도 풀리신 듯 했다. 그리고 나를 축하해 주셨다. 비로소 우리집이 원래의 우리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지금은 그 기억에서 벗어나 최선을 다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부모님, 내가 즐거울 때는 항상 같이 즐거워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 주시는 부모님, 나의 부모님을 존경한다.

아빠,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난 이 기억을 글로 남기며 이 푸른 산에서 글을 쓰게 되어 너무 감사한다.

난 싱그러운 햇살을 쬐이며 이 곳을 떠난다.



차상

-5월 감사의 달-

사랑이라는 또다른 이름의 어머니

엄 소 연 (동두천 여자상업고등학교 2년)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맞이하는 것 같다. 서늘한 바람도 내 곁에서 놀고 있고 향긋한 아카시아 향기도 잠시 내 코 끝을 즐겁게 한다. 햇살도 주위를 온통 푸르게 수 놓은 나뭇잎과 맞닿았다. 그 모양이 마치 새하얀 조가비를 닮았다. 우습지만 문득 바다향이 나는 듯하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고향은 바닷가이다. 하늘을 닮은 바다의 수평선이 넓게 펼쳐진 울산 앞바닷가. 그 곳에서 보낸 어머니의 어린 시절은 무척 즐거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하지만 아버지께 시집오신 후 그 곳을 항상 마음으로 그리고만 사신다. 게다가 외갓집도 이미 오래전에 부산으로 이사를 간 터라 한동안 어머니 입버릇처럼 ‘옛날 그 곳에 다시 가봤으면 좋겠구나’ 하며 쓴 웃음을 짓곤 하셨다.

그러나 요즘은 그 웃음마저 잊어버리고 사시는 듯하다. 빠듯하게 꾸려지는 살림살이. 조금씩 나약해져 가는 육신. 그래,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잊으려 노력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다.

요즘엔 돈 한 푼이 아쉬워 아등바등 하시다가 작은 식당을 하나 내셨다. 힘들어 보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다가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기쁨에서 인지 내가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으면 웃으시며 고개를 좌우로 저으시곤 나 낳을 때보단 훨씬 편하다며 웃음을 매듭지으신다.

그래, 난 열달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발치기도 하며 꼼지락 거리다가 어머니에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아픔까지 안겨주곤 이 세상이라는 무지막지한 곳으로 나왔다. 게다가 커가면서 얼마나 말썹을 부렸을까? 어머니 그 뒤치닥거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아 주셨을 테지...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어머니께 염치가 없어 진다.

우리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 같지 않게 좀 묵묵한 면이 있으시다. 그래서 나와 내 동생을 사랑한단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신다. 하지만 난 느낄 수 있다. 우릴 크게 야단치시고는 우리 침대 머리 곁에서 조용히 흐느끼시는 모습에서 바쁘다며 식사를 거를 때 학생이 무슨 바쁜 일이냐며 화내시는 모습에서도 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는 걸...

너무나 고귀하신 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고 그 마음이 너무나 깊고 넓어 감사하다는 한마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단 한 사람, 어머니...

이 세상에 조물주가 지어놓은 피조물중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 바로 사랑이라 지칭되는 어머니라는 이름.

난 이 이름을 사랑한다.



차상

내게 꼭 필요한 사람

주 지 동 (신흥고등학교 2년)

철 이는 어느 날, 분주한 소리에 눈을 떴다. 창밖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고 철이의 방엔 적막만이 자리하고 있을 때, 눈을 뜨고 밖으로 나왔다. 커다란 짐이 놓여 있는 것처럼 무거운 어깨를 가지신 아버지가 직장을 향해 나가고 계셨다. 너무도 지쳐보이는 모습으로….

학교가 일찍 끝난 날 철이가 집에 들어와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의 피로가 가득하신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셨다. 초췌해 보이기만 한 어머니의 모습은 철이의 마른 눈을 젖게 만들어 버렸다.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잊으려 눈을 감았다. 어느 새 말라버린 철이의 눈물은 더 이상 그의 눈에 자극을 주지 않았다. 철이는 깊이, 아주 깊이 꿈 속으로 빠져 들고 있었다.

어머니의 모습이 철이의 눈에 들어왔다. 새벽에 눈을 뜨신 어머니는 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하시고 아버지의 출근을 도우셨다. 그 후, 철이를 깨우고 학교를 보내셨다. 하루 종일 말 그대로 쉴 틈없이 어머니에겐 일이 주어졌고 잠시의 휴식도 없이 그 일을 꾸준히 하셨다. 얼굴엔 피로기가 가득한데 몸도 움직이기 힘드신데, 철이가 돌아오자 애써 피로를 감추고 미소를 보내 주셨다. 그리곤 철이가 가끔 화를 낼때도 아무말 없이 철이의 불만을 들어주었다. 미소를 얼굴에 가득 담은채 ….

아버지의 모습이 철이의 눈에 들어왔다. 여명과 함께 눈을 뜨신 아버지는 여기 저기 곳곳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에 시달리셨다. 겉보기엔 쉬운 것처럼 보이기만 하던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이 이토록 힘들 줄은 몰랐던 철이였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신 집에는 응석받이 철이가 있었고, 철이는 피로한 아버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응석을 부리고 있던 것이다. 피로를 젖혀 두고 철이와

함께 아버지는 웃고 계셨다. 피로를 뒤로 한 채...

눈을 떴을 때, 축축히 젖어 있는 그의 볼을 철이는 닦지 않았다. 그리고 철이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볼에 무엇인가 축축한 것이 흘러 내리는 것을 너무도 어리석었던 자신의 모습이 마냥 부끄러워서 철이는 눈물도 닦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철이는 영상처럼 머릿 속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들을 슬퍼보고 있었다. 너무도 부끄럽기만 한 지난 날들을...

철이는 욕심이 많은 아이였다. 남이 가진 것은 모두 손에 넣어야 성이 풀리는 철부지 아이였다. 부모님의 사정은 철이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욕심만이 중요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미소를 보내주던 부모님이었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깨달은 지금은 너무 늦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다. 아니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다고 자책하고 있었다. 아침의 아버지의 모습, 주무시는 어머니의 모습들은 지금까지 철이가 보았던 가식이 아니었던 것이다. 철이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밖에...

철이는 밖으로 나갔다. 철이는 지나버린 어버이 날을 잊은게 한이 되었던 것이다. 카네이션 두 송이를 산 철이는 집으로 돌아와 손수 저녁을 준비했다.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나자 철이는 꽃을 달아드렸다. 그리곤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오랜만에 함께하는 진실된 함박웃음을 터트렸다.

철이는 누웠다. 그리곤 눈을 감았다. 지난 날을 다시 떠올렸다. 어머니, 아버지는 철이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이었다. 그리고 꼭,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철이는 행복의 세계로 여행을 평생 하고 싶은 여행을 꿈꾸며 깊은 잠에 들어갔다. 철이의 귓가에선 부모님의 함박웃음 소리가 떠나질 않았다. 철이는 환한 미소를 띄었다.

차하

어머니의 젊음

이 성 희 (동두천중앙중고 2년)

위를 올려다 보면 장대같은 나뭇가지 사이로 새파란 빛이 새어나오고 발밑으로는 투명하고 맑은 물사이로 자질구레한 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어머니 얼굴이다.

내 기억속에서 가장 젊은 어머니 모습은 한 30대 초반쯤일까? 우리 삼남매를 연년생으로 낳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다른 아줌마들 보다도 곱고 어려보이셨다. 피부도 유달리 하얗고 머리카락도 유난히 까맣기 때문에 화장을 안하셔도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어머니 어린나이부터 수많은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버지가 하시던 한뼨 흥했다던 옷가게에 도둑이 들어 가게문을 닫고, 고향을 떠나 멀리 울산까지 가서서는 아버지인 막노동을 하시고 어머니는 조선공장에서 커다란 무역선에 페인트칠을 하는 일을 하셨다. 집이 빈 사이 어리고 철없던 우리 삼남매를 돌봐주기 위해 할머니가 집에 와 계셨다. 그때 우리집은 넓은 방 하나에 다락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방이 궁궐처럼 커 보였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 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방에서 6명이 잠자기 복잡했던지 난 곧잘 다락을 차지하고 누워 자곤했다. 어느날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엄마가 어디서 일하시는지 보러가지 않을래?”

하시며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밭떼기로 이용하는 듯 한 언덕으로 데리고 가셨다. 언덕 아래로 펼쳐진 조선소의 풍경. 무척 어렸을 때 본 것인데도 기억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 엄청나게 큰 배들, 사람들, 화물들, 창고들, 난 어머니가 굉장히 자랑스러워 보였다.

“할머니, 엄마가 저기서 일해요?”

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머니를 찾아보려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려 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 해가 질 무렵, 석양이 비추는 사이를 할머니는 우리를 재촉해 가며 언덕을 내려가셨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손은 쉼이 없다. 이제는 집도 새로 장만하고 아버지의 직업도 안정되었고, 우리들도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건만,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신다. 40년을 넘어서 중년의 여성이란 호칭을 받으시는 어머니, 기억 속의 아름답던 어머니 모습이 눈가의 주름살과 희끗희끗 숨어있는 흰 머리칼로 변해버렸지만 어머니는 젊은 시절 꾸미지 못하셨던게 아쉬워서인지, 나이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싫어서인지 예전보다 더 가꾸시고 더 젊어지시려고 애쓰신다. 그래서, 아무도 어머니를 보고 40대 아줌마라고 하는 이는 없다. 그런 어머니가 가끔은 못마땅할 때도 있다. 낡은 옛 사진 속에서 수수한 차림의 어머니 모습이 그림고 보고 싶을 때가 참 많다. 어딘지 모를 서글픔과 가난에 찌든 모습을 그리워하는 이유를 나도 알 수가 없다. 어머니한테는 고생스러운 시절이었을 그때가 나한테는 행복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일까?

지금은 어머니가 조선소에서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리저리 이사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어머니의 모습도 이제는 밝아지셨는데, 아마도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뽑아드려야 하는 것이 싫어서인 것 같다. 없는 것 같으면서도 틈틈히 나타나는 흰 머리칼이 어머니의 젊음을 빼앗아 간 것 만 같다.

오늘도 어머니는 직장으로 나가셨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지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잠을 청하실 것이다. 웬지 허전한 듯한 뭔가가 빈듯한 어머니의 뒷모습이 어느 때가 되어야 편안해 질 수 있을 지 모르겠다. 다만 그런 어머니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는 수 밖에 난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한다.

차하

아버지의 여행과 어머니의 잔주름

정지욱 (동두천중앙중고 2년)

하늘은 유난히 높고 구름 한점 없는 이 화창한 봄 날 나는 문득 나를 있게 해주신 두분의 얼굴을 그려본다.

한 분의 얼굴은 왜소한 체구에 회색빛 파마머리를 하시고 잔주름이 많이 새겨져 있는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다른 한 분의 얼굴은...

이미 기억속에서는 지워지고 없는 얼굴 유난히도 짙은 눈썹을 하시고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지셨던 분. 그리고 병환중에도 나를 훈계 하셨던 바로 그 분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은 매일 본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얼굴에 날이 갈수록 잔주름이 더해간다. 그럴때면 나는 어머니께 잘 해드려야 할텐데 하고 생각하지만 실상 어머니께 해 드리는 것은 고통과 불안 그리고 실망뿐이었다.

그리고, 또다른 원인으로 바로 우리집의 가장이자 나의 아버지이신분의 멀고도 긴 여행때문일 것이다.

아버지께서 떠나신 여행의 목적지는 누구나 갈수 있지만 누구도 가려고 하지 못하는 곳,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저승이란 곳이다. 아버지께선 바로 그 저승이란 곳을 향해 멀고도 힘든 여행을 떠나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선 당신 혼자 괴로워 하시고 계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드신 여행을 시작한 것이 내가 중3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봄때였다. 당시 아버지께 여행을 떠나도록 만든 것은 후두암이라는 조그만 세포덩어리 녀석이었다. 당시 아버지께선 그 여행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셨지만 불가항력으로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난 아직도 기억한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헤어지기 직전에 지으셨던 그 얼굴 표정을 아버지께선 숨을 한 번 두 번 천천히 내쉬면서 입술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당시 나로

선 그것이 가족과 헤어지기 싫으신 아버지의 한숨쉬는 것으로만 보였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를 남겨두고 저승을 향해서 떠나셨다.

그 후 어머니의 얼굴엔 주름이 하나 둘 늘어만 갔다. 어머니의 주름횟수는 곧 나의 불행이자 나의 잘못이며 나의 고통 횟수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주름수가 잠깐동안 줄어드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면 나의 마음도 티없이 맑아지는 것 같고, 만사가 잘 될 것만 같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주름수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용돈을 아껴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산소에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한 내 노력이 어머니의 주름수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여행뒤에 남은 우리집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은 모두 어머니의 잔주름으로 남아 있게 되어서 두 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항상 무섭기만 하셨던 분, 그렇지만 속마음을 어느 누구 보다도 부드러우셨던 분, 그런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항상 고생만 하시다가 늙어 버리신 분, 그런 어머니께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문득,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의 얼굴과 어머니의 잔주름살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눈앞에 아른거려 마음이 허전하기만 하다. 그리고, 두 분께 효도 한 번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매우 원망스럽기만 하다.



장려

감사의 달

김수정 (동두천여상 1년)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곳은 내가 어릴 때 부모님과 자주 놀러왔던 곳이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찾아오니 어렸을적 기억이 난다. 어머니, 아버지는 돛자리를 펴시고, 나와 동생은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놀다가 배가 고플 때마다 달려와 어머니께서 정성들여 만드신 김밥을 하나씩 집어 들고 다시 뛰어다니곤 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단지 어릴 때의 기억일 뿐이다.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하는 동안 어떤 가족모임에도 함께 해 본 기억이 없다. 언제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가족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어릴땐 가족과 놀러가는 것이 가장 즐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부모님께 참 죄송한 일이다. 나를 낳으셔서 여태껏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시며 이렇게 몸 건강히 잘 키워주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만 하고 혼자있고 싶어하고 부모님이 서운해 하실 일만 했다.

지난 8일 어버이날을 지내면서도 형식적인 카네이션만으로 하루를 보냈다.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해도 모자랄텐데 부모님은 요구하지 않으신다. 나를 낳고, 키우시는 것 만으로 기쁨으로 삼으시고 또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다. 죄송스럽다. 그리고 감사드린다. 어린시절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다시 찾아오니 어머니, 아버지께 좀 더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감사의 달을 맞아 글을 통해서라도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장려

어머니의 눈물

김 승 년 (동두천고 2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사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일 것이다. 연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알 수 없는 힘은 이세상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것이다.

9년전 어느날의 일이다. 집으로 전화 한 통이 왔다. 우리집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런 전화였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고 소식이였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수화기를 든 채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 전화가 끊기고 어머니께서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셨다. 아직 어렸던 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의 허둥대는 모습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께서는 가망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 앉으셨다. 그러나 웬일인지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아버지를 잃는다는 생각 보다는 어린 우리와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눈물대신 강한 의지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고 누워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시는 어머니 그것은 마치 숭고한 사랑을 보는 것 같았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셨다. 농사철이라 일손이 모자랄 때면 어김없이 나가셔서 일을 하셨다. 남자들이 하는 힘든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모두 하셨다. 그렇게 하루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의 손과 발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눈물 한 번 안 흘리시고 힘든 소리 한 번 안하셨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힘이 들어 지칠대로 지쳐버린 보기에 안타까운 모습이였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아무리 어린 나 였지만 눈물이 절로 나왔다. 그리고 어머니의 위대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시고 또 밤에는 아직 의식도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를 간호 하시느라 밤을 세울때가 한두

변이 아니었다. 원래부터 몸이 약하셨던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께는 정신력 하나만으로 버티신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노고와 정성에 하늘이 감동이라도 받았는지. 아버지께서 의식을 회복하셨다. 아버지의 회복은 바로 어머니의 강인한 정신력과 숭고한 사랑에 대한 하늘의 선물이었다.

얼마후 아버지께서는 정신을 차리셨다. 그리고 어머니를 불렀을 때 어머니의 눈가에는 그때까지도 참고 또 참았던 한 줄기의 눈물이 어머니의 볼을 타고 흘러 내렸다. 그 눈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때의 어머니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하며 이 글을 어머니께 바친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



장려

어머니는 위대하다

원 주 영 (동두천중앙중합고등학교 2년)

5 월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찬 달이다. 푸르른 싱그러움과 함께 우리의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게 한다.

그 중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이며 나를 있게 한 분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여 본다.

어느 날 밤이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전화벨이 울렸다. '이 밤에 누굴까' 난 어머니의 전화받는 소리를 들은채 반쯤 감긴 눈으로 다시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느껴지고 있었다. 어머니께 전하는 말이었다.

“장모님이 임종하셨대. 내일 내려가 봐야겠어.”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장사를 하시는 터라 무척 바쁘셨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그달의 마지막 날이라 아버지께서는 그 다음날 저녁에 원주로 출발하셔야만 했다. 어머니와 이모들은 아침일찍 기차를 타고 외갓집으로 떠나셨다.

할머니께서는 20년 동안을 중풍으로 앓으셨다. 어머니께서는 결혼전에도 누워서 꼼짝 못하시는 외할머니를 돌보셨다고 한다. 할머니께서 임종하시기 전에도 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많았다.

어머니가 원주로 떠나시고 난지 하루가 지났다. 난 너무도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마음이 유난히도 여리신 어머니, 어머니께서 우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동생들과 나는 안타까워 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어머니께서는 많이 울어 짙 잠긴 목소리로 안간힘을 써가며 우릴 걱정하시고 계셨다.

“주영이니? 잘 있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동생들 잘 보고 있어라. 알았지.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동생과 나, 우리들은 어머니의 전화를 돌아가며 받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우리의 눈에서 맑은 어떤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난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엄마, 우리 잘 있어. 알았어. 동생들이랑 안 싸우고 잘 있을게 근데 엄마 괜찮아?”

난 그렇게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다. 그 전화를 받고 난 후 나의 머릿속에 무엇인가 꼭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여성으로서의 어머니이기 전에 그 어머니의 딸로 자식들의 정다운 어머니로 남편의 사랑스런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몽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 어머니는 우릴 너무 걱정하셨다.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 독립된 인간이기보다 한 가정의 안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신다. 그 쓸쓸한 고생을 서슴치 않고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신 것이다. 나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는 나의 미래를 느끼는 듯 했다. ‘나도 그러 하겠지. 내 자신을 걱정하기 전에 가족들을 염려하고 자식들을 챙기며 살아 가겠지. 요즘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무능하고 답답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하다고 생각된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이 새삼스레 다시 되새겨 지는 것 같다.

어머니의 정성으로 자라난 우리는 어머니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물질만능주의, 금욕주의에 눈먼 요즘 어른들은 어머니 은혜를 갚지는 못할망정 어머니를 버리고 또는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 많이 접할 수 있다. 모두 다 그런건 아니지만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얼마전 TV를 통해 효자이야기는 현대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3년상을 하려 산으로 들어간 사람. 약간의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현실이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이 전달되는 순간 사람들은 무언가를 생각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태어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그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어머니, 난 그들을 존경하며 사랑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머니들에게 끝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없는 사랑을 받

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는 사랑을 돌려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흔히 어른들이 말하길 효도하려 하면 그때는 이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라고 한다.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피곤한 어머니들에게 정성된 말 한마디로 항상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마음을 전하는게 우리의 몫이라 생각된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정성을 우리 스스로 느낄 때이다.



장려

어 머 니

임 호 진 (동두천고등학교 3년)

누 구나 다 어머니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태어남은 우리집안 불행의 시작이었다. 남아선호사상이 다른 집들보다는 적었지만 아들이 없었던 우리집에는 아들을 바랬던 것은 사실이었으리라.

여름으로 넘어가던 어느해. 나의 울음소리는 아들을 바라던 우리집에 경사의 울음소리라고 할 수 있었다. 내가 태어난 그 때는 나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올 줄은 몰랐으리라. 내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나의 태어남이 없었다면 행복함이 유지되었으리라.

내가 태어났을 때 주위에서는 부러운 눈치들이었다고 한다. 최소한 내가 다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가 4살이 되던 해 봄. 갑작스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나의 변화는 온 집안 식구를 어둠으로 이끌고 갔던 것이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한 달여 밖에 하지 못했고, 사고를 낸 사람을 집안사정으로 단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한 달여밖에 안되는 병원생활동안도 수술을 3번이나 해서 어머니의 마음은 검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병원에서의 퇴원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니 더했으리라. 퇴원했던 그 순간부터 어머니께서는 나를 조금이나마 낫게 하려고 매일 운동을 시키셨다. 그때만 해도 나는 식물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백일장도 나오고, 학교도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학교에 입학한 후 어머니의 고생은 더 했으리라 생각한다. 집안일을 하시랴 나의 뒷바라지를 하시랴, 어머니께선 나의 그림자나 마찬가지였다. 학교를 갈 때도 어머니께서는 함께 하였고, 소풍을 갈 때도 어머니께선 항상 함께 하셨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고생은 더 했으리라 생각한다.

다른 집 아들들은 건강하게 굳건히 잘 해 나갈 때 그 아이들에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 아들 때문에 마음에 아픔도 더 했으리라.

· 어머니의 고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게 하였으리라. 그러기에 더욱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 나를 포기하는 것은 곧 어머니 은혜를 저 버리는 것이기에 더욱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 같다.

성인의 문턱에 선 지금, 어머니께선 내가 힘들까봐 모든 일에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길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어머니께선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일이 생길 것이라 예상되지만 어머니의 고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열심히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장려

여름 빛깔 사랑

한 주 희 (신홍고등학교 2년)

세 상에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감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의 사랑 보다도 아름답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고귀할 것이다.

부모님의 사랑은 여름과 같습니다. 여름은 그 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의 강렬한 태양빛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온 종일 들뜬에 내리쬐는 태양빛
 은 가을의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기다립니다. 엄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태양은 자
 기의 뜨거운 꾸지람과 가르침을 받으며 튼튼하고 건실한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마에 구슬땀이 흐르고, 찌는 듯한 무더위에 힘들어 할 때 어머니의 품속 같
 은 나무 그들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 줍니다. 그늘 밖의 힘든 세상을 작은 품 속
 의 그늘로 땀을 닦아 주시고, 더위를 잊게 해 줍니다. 그들은 곧 어머니의 품속이
 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삶에 지친 몸을 쉴 수 있습니다.

가장 무더운 계절에 가장 시원한 색깔로 장식한 나무 숲은 아버지의 든든한 어
 깨입니다. 아무리 삶의 무더위에 찌들어도 아버지의 푸른 어깨를 보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푸른 나무숲,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언제나 용기를 잃지 않
 게 해 줄 것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갈증나는 가슴을 적셔 주는 샘물은 어머니의 손길입니다. 가
 슴 깊이 숨어 있는 삶에 대한 갈증을 시원한 샘물은 금세 사라지게 해 줍니다.
 언제나 샘물은 흐르고 있고, 마르지 않으며 우리가 찾으면 언제나 손길을 아까지
 않습니다.

여름에 내리는 장마는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입니다. 장마기간 동안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장마가 없다면 우리 논의 벼들은 많은 물을 먹

고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여름의 장미는 한때의 고난을 지어 주지만 후에 훌륭한 결실을 맺게 해 줍니다.

여름날 해변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삶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살도록 도와 줍니다. 발바닥에 묻어 오는 모래의 감촉과 부서지는 파도는 우리의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을 전해 줍니다. 어머니와의 시간은 참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여름은 땀의 의미를 알게 해 줍니다. 모든 것들이 가장 왕성하고, 힘차게 자라는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땀으로 논과 밭을 일구고, 그것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커갈 때 바로 땀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름같은 부모님은 그러한 땀의 중요성과 진실된 의미를 알게 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름이 모든 것으로 베풀어 주는 그 많은 사랑의 형태를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여름의 정열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삶의 대부분을 희생하시는 그 분들께 이제는 감사하고 보답할 때입니다.



중 등 부

장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문 경 순 (동두천여자중학교 2년)

산 이 온통 푸르고 잡초 한 포기, 포기마다 다 자기의 푸르름을 뽐내는 계절이 되었다.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에는 어느새 평안이 찾아온다. 나뭇잎과 꽃들은 자기가 다른 나뭇잎들과 어울려 놀 수 있고 자기의 푸르름을 맘껏 자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바람타고 놀고 있는 나뭇잎과 꽃들이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나도 자연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순간에도 감사하려고 노력한다.

내게는 소원이 한가지 있다. 지금 이 순간처럼 자유로운 꽃과 나뭇잎을 보면서 내가 그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을, 어디에 가서나 무슨 일이든 감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나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자연의 신비함과 자유로움을 감상하고 있다. 그런데 문득 한 책에서의 내용이 떠올랐다.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았다. 어느날 그 청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이 실명되었다. 좌절에 빠져 있던 그는 어느날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하면 한 쪽 눈은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기뻐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 그는 다시 절망에 빠졌다. 한 쪽 뿐인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어머니께 한탄하며 울었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가 깨자 흐릿흐릿하게 어머니의 얼

굴이 보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이 하나 뿐이었다. 그 청년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청년의 눈물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머니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사랑하셨는데, 자기는 두쪽 다 실명되었을 눈인데 한쪽 눈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한 쪽 눈만 갖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불평만 했으니 그에 대한 죄책감, 어머니에 대해 미안함 또 한편, 한쪽 눈을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 일화를 읽으면서, 또 다시 한 번 떠올려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많았다.

나는 평상시에 내 생활속에서 고마움을 찾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 가족들, 건강한 신체... 우리가 찾아 보면 우리 주변에 고마워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다.

나는 5월을 맞아, 또 여러 행사를 통해 감사함의 의미와 방법을 찾게 된 것 같다.

‘어버이날’이나 ‘스승의날’ 선물과 돈이 오가는 우리 사회!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이면 최고다!’라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는 감사의 표현을 내면적인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종이에 옮겨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도 더 기뻐하실 것 같다.

나는 하늘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꽃들앞에서 생각했다. 이제는 뇌물적인 것보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을 하겠다고 말이다.

꽃잎과 나뭇잎들이 바람결에 한층 더 흔들거리는 것 같았다.

차상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버지

김수연 (중앙중학교 2년)

오늘 아침, 어머니와 난 분주하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까지 가야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이다.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시고, 손가락마저 절단하시게 된 아버지는 연세도 60을 넘으셔서 마땅히 일자리가 없었다. 그러다 아시는 분의 도움으로 어렵게 지금의 일자리를 구한 것이었다.

기차를 타고 의정부역에서 내려 다시 전철을 탔다. 곧 성남에 도착할 수 있었다. 주소가 적어진 메모지를 보며 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았다. 한 아파트단지에 들어서니 저만치에서 아버지께서 손짓하고 계셨다.

어색하게도 다친 한 손을 감싸 쥐시고는 어머니와 나를 향해 웃고 계셨다.

“아빠!”

“우리 공주 왔네.”

“피_ 이렇게 못생긴 공주가 어딴어?”

못생기고 그저 평범한 나도, 아버지 앞에선 어여쁜 공주이고 특별한 아이였다. 그저 부모님에게 있어 자식은 못 생겨도, 잘난게 없어도, 사랑스럽고 예쁜 모양이었다.

아버지께서 초소를 안내해 주셨다. 초소안은 비좁아서 어머니와 내가 들어서자 딱 찼다. 낡은 책상과 쇼파 하나가 있었다. 초소 앞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다. 갑자기 나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것 때문일까?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다. 특히 내 또래의 아이들이 지나갈 때면 더 그랬다. 「내가 단 몇 분도 참기 힘든 이 자리를 아버지는 날 위해 우리 식구를 위해 매일같이 나와 계시는구나.」 순간 아버지께 죄송했다.

학기 초에 아버지께서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 뵙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난 완강히 아버지를 말렸다. 선생님께, 반 친구들에게 듣고 초라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

여 드러선 안된다는 뼈뚫어진 자존심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건 부끄러운게 아닌데... 나만 잘하면 되는 건데... 아버지도 내 마음을 눈치채신 것일까? 아버지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우리 수연이 아빠 사업할 때보다 용돈 적어져서 부족하지는 않아?”

“아뇨.”

난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도, 용돈을 더 달라고 조를 수도 없었다.

15년 동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난 그동안 무얼 더 바랬던 것일까. 내가 너무나 한심스러웠다. 어머니께서 챙겨왔던 도시락을 꺼내셨다. 뚜껑이 열리자 배고팠던 난 얼른 하나를 집었다. 그러나 차마 입에 넣을 수 없는 이유는 왜일까. 아마 아버지께 그동안 너무나 부끄럽고 모자란 딸이 되어서 그런 것이겠지.

“아빠, 아, 해 보세요.”

“딸이나 많이 먹지.”

“아이, 지금 안 드시면 나중에 이런 기회 적어요.”

난 아버지의 입에 얼른 하나를 넣어 드렸다. 아버지께서 흐뭇해 하셨다. 음식을 먹고 나니 어느덧 갈시간이 되었다. 난 힘있는 어조로 말했다.

“아빠, 차시간 되었어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하고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아빠—”

어머니와 난 서둘러 역을 향했다. 뒤에서 아버지께서 손짓하고 계셨다. 제법 먼 곳에 계셨는데도 아버지의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60년을 살아오신 아버지의 훈장.

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아빠 힘들어 보이시지?” “네.”

“그러니까 용돈 아껴쓰고,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오늘 난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다. 전에는 무능력하게만 보이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젠 자랑스러웠다.

‘아빠, 모든 아버지의 의무라지만 전 하늘만큼 땅만큼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번 일요일엔 아버지를 꼭 안아 드려야지. 그리고 엄마께는 안들리게 말씀 드려야지. 아버지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차상

마음 속의 카네이션

김 윤 주 (보영여자중학교 1년)

새 싹이 꿈틀꿈틀거리며 땅위로 얼굴을 내미는 봄.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려는 꽃들로 가득찬 봄. 해마다 이맘때 쫓이면 고마운 분들의 얼굴이 생각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

8살때의 일이다.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다. 물건진열대에는 맛있는 과자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나는 그 과자들이 매우 먹고 싶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순간 나는 과자 한 개를 주머니에 넣고 말았다.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애, 너 뭐하니?”

“네?”

나는 무척 당황하였다. 그런데, 물건을 고르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애, 다 골랐니?”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나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말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나에게 미안한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밖으로 나왔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앞에 세우고 말씀하셨다.

“애, 남의 물건을 훔치는건 나쁜 사람이나 하는거야. 다음부터는 이런짓 하면 안돼. 다음에 또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혼내줄꺼야. 알았어?”

“네.”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그때는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미웠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주름지고 쭈글쭈글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 지금 그 분을 만나뵙게 된다면 예쁜 카네이션 한송이를 달아 드리고 싶다. 만약 그때 그 할아버지께서 꾸짖지 않으셨다면 난 지금까지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했을 것이고 남의 물건을 많이 훔쳤을 것

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할아버지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다. 또, 그때의 일이 나의 일생에 큰 도움을 주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마웠던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 누구보다도 그 할아버지를 얘기하고 싶다. 그 할아버지를 못 만나게 되더라도 마음속으로 카네이션을 달아 드릴 것이다.



차하

그때는 말할 거예요.

계 승 연 (중앙중학교 2년)

이 맘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선생님이 계시다. 언제나 사랑으로만 감싸주셨던 그 분, 그때 정말 선생님의 마음을 몰랐었는데...

1993년 3월 말쯤의 일이었다.

“엄마, 꼭 가야돼?” “어쩔수 없어. 엄마도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단다.”

아빠가 먼곳에서 일하게 되고 엄마 혼자서 살림을 꾸리기는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나와 엄마, 동생 이렇게 세 식구는 이곳에 있는 할머니댁에 오게 되었고 난 정들은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곳에 온지 얼마 안되서 엄마도 일본으로 가시고 또다시 나와 할머니, 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되었다. 아빠는 소식도 없고 엄마는 한달에 한 번씩 돈을 부쳐 주셨지만 그 돈도 생활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에 늙으신 할머니께서 나물을 캐다 팔면서 생활비를 대셨다. 난 너무 서글펐다. 우리 식구가 이렇게 떨어져서 살게 된 것이, 그리고 작은 주먹을 꼭 쥐며 세상에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 후부터 난 바뀌기 시작했다. 어리광과 의타심이 많던 나는 고집이 세고 독한 성격으로 변해갔고 세상을 빼돌게만 보기 시작했다. 이런 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시다. 나의 그 잘난 자존심, 사실은 고집이었지만, 어쨌든 나의 고집과 선생님의 대결은 팽팽했었다. 선생님께서는 내 고집을 꺾기 위해 집에도 안보내며 반성문을 쓰라고 하시기도 하였고 무서운 얼굴로 혼내기도 하셨다. 하지만 꾸지람 속에도 선생님의 사랑은 배어 있었던 것 같다. 비록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늘 나를 관찰하신 것 같다. 나의 작은 표정까지도 놓치지 않으셨으니까.

어느 날이었다. 그 때는 수업시간이었는데 조별로 모여서 토의를 하게 되었다. 그날 따라 울적해 있던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훌쩍거리며 울고 있

는 나에게 선생님께선 ‘엄마가 보고 싶니?’ 하시며 나를 달래주셨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나를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다. 한번은 세상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다. 그 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승연아, 세상은 네 마음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란다. 가끔은 세상일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때의 그 말씀은 나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었고 이 세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해 주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선생님께서도 무척 힘드셨을 것이다. 방학때 선생님께 편지를 썼더니 이런 내용의 답장을 보내오셨다.

“승연아, 선생님도 참 어려웠단다. 아침에 학교와서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널 보면 자신도 모르게 널 멀리할 때도 있었단다. 그래도 할머니를 모시고 동생과 열심히 사는 너를 보면 내가 부끄러워질 때도 있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렇듯 선생님께서는 항상 날 배려해 주셨고 격려도 잊지 않으셨다.

이런 걱정의 나날은 지나고 우리집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다. 누군가 「아픈만큼 성숙한다」 라는 말을 했다. 나 역시 아픈 시간을 겪으며 조금씩 발돋움했고 벌써 이 만큼이나 컸다. 그때 선생님께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요즘 흔히 말하는 비행청소년이 되었을 것이다. 철없던 시절 어둠 속을 방황하며 길을 찾던 나에게 사랑으로 길을 밝혀 주시며 도와주신 고마우신 선생님.

“선생님, 5월의 높고 푸른 하늘만큼이나 선생님의 은혜가 높게만 느껴지는군요. 이 글을 빌어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괜히 쓸데없는 고집만 부리고... 그땐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힘들때면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고는 해요. 「세상일이 뜻대로 안되도 슬퍼하지 말고 항상 웃음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한다」 는 그 말씀. 「가끔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는 그 말씀, 전 잊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해 낼 거예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컸어요. 언젠가 제가 훌륭하게 자란 후에 「선생님이 누구셨니?」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전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정확히 선생님이라고...”

차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김 승 한 (동두천중학교 2년)

언제나 나를 사랑속에서 부모님의 사랑만큼 키워주시던 할아버지께 정말로 감사한 마음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내가 어릴적에 주로 할아버지께 키워졌던 그 어릴적의 시절들은 나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태양으로 남아 있다. 또 옛적에 2남5녀를 기르시고 그 힘든 고생 속에서도, 곳곳이 살아가셨던 할아버지께서 손자인 나에게도 그 만큼의 사랑으로 키우셨다. 그리고 5살쯤에 있었던 기억을 머릿속에 새겨보면 거의 할아버지댁은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었다. 방 안은 벽지도 바르지 않은 벽에 뜬어저가는 장판이 깔려져 있었다. 그리고 마루에는 메주가 놓여 있고, 부엌에는 다 찌그러진 솥과 그릇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가난속에서도 할아버지께서는 하루에 1끼 잡수시고 나에게 3끼를 꼭 먹여 주셨다. 나는 지금 어린시절에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해 주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하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꼬옥 감은 두 눈 속에는 깊게 패인 주름살들이 있고 힘드신 모습이 보였다. 손은 고목나무와 같이 꺼칠꺼칠하고 손톱은 남아난 구석 하나도 없으신 모습을 보고 있을 적에는 아픔이 마음속에 파고 드는 듯 하였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힘드신 모습을 볼 적마다 묵묵히 슬픔의 눈물을 삼키며 바라 보았다. 난 언제나 마음속으로 새겨 왔던 말이 있다. 그것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할아버지께 보답하는 일이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는 항상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 노력하면 그 만큼의 빛이 자기에게 비추게 된다는 할아버지 말씀을 받들어 살아갈 것이다. 난 정말 할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제는 할아버지의 생활도 달라지셨다. 집도 변하고 2남5녀인 이모, 삼촌들께서 효도 하시는 모습을 볼 적마다 정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끝은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끝나는 듯 하였다. 그렇지만 아니였다. 왜냐하

면 3월달 쯤에 있었던 일이다. 할아버지께서 속이 미식거리고 아프시다고 하셨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병원에 모시고 가셨다.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 결과만을 기다리고 계셨다. 드디어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할아버지 병환을 그 병원에서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진찰을 받으러 또 갔다. 진단은 받고 결과만 기다렸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진단에 의하면 암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 말을 듣고 눈 앞이 캄캄해 왔다. 어린시절의 그 일들이 하나씩 머리를 스쳐갔다. 한달도 아닌 3주정도 사신다는 것이다. 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음식도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하신다. 언제나 부모님께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이제 나의 하나뿐인 말상대이셨던 할아버지께서도 가시니 정말 슬프다. 할아버지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지금까지 힘드신 일만 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행복을 누리려 하였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그 기회마저 놓치셨다. 할아버지 정말 불쌍하시다. 나를 이만큼 길러 주신 분이신데 나의 소원마저 받지 못하시고 가신다. 난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항상 말씀으로써 나를 가르쳐 주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실거라 믿는다.

나는 알게 되었다. 항상 누구에게나 잘 대해 주면 자신도 보답을 받게 되고 자신이 죽는 날까지도 기쁠 것이라 믿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같이 항상 저를 어둠속에서 건져 주시는 할아버지 죽는 날까지도 할아버지의 감사함을 간직하겠다. 그리고 커서는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바라셨던 목사님이 되겠다. 할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 되는 것이 하늘에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냥 한 번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몇번이라도 도전하여 꼭 그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마음도 한가지 일에 목표를 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바람직한 사람이 되겠다. 언제나 바르게 생활하도록 하겠다.

차하

피카소도 나만큼은 못하다

송하늘 (보령여중중학교 3년)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필무렵, 나는 중학생이 된 기분에 한참 들떠 있었다. 새 친구들, 새 학교 그리고 초등학생 때보다 조금은 컸다는 기분이 나를 들뜨게 했다. 어린이라는 이름표 대신 청소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두렵고, 겁나지만 가슴 가득 담긴 소망과 신념으로 첫발을 내딛은 중학교 생활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고난을 주었다.

초등학교 때는 나의 모습 어느 것 하나 남보다 모자랄게 없다고 느꼈었다. 그런데 막상 중학교에 올라와 보니 나는 헛점투성이였다. 미술, 국어, 음악 등, 나는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았다. 그 중에서 나는 '미술'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다른 과목은 남들보다 1시간만 더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는 것이었지만, 미술은 아니었다. 수채화를 좀 더 잘 그려 보려는 생각에 이 색깔 저 색깔 겹겹히 칠해보지만 결과는 그림이 탁해지고 조각을 좀 잘 해 보려고 두 손 걷어 부치고 파다보면 어느새 구멍이 생기고, 내가 미술에 쏟아부은 열성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2학년 미술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선생님의 재미있는 말씀씨와 걸모습 때문에 선생님께 다가갔었는데, 선생님을 알면 알수록 선생님이 좋아졌다. 결국, 나는 미술 때문에 걱정인 내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고, 선생님께선 그런 나를 더욱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미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셨다. 선생님께서 해 주신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다.

피카소가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 그림을 그린 이유는 아름다운 것만이 예술로 인정받는 사회에서 자기만의 시각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해 냈다는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얘기를 해 주셨다. 그 얘기 속에는 세상에 줄작이란 없다는 것과 자신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그림은 다른 사람들이 욕한다 해도 걸작이

라는 것이었다. 즉, 자신이 자신의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은 책을 끝에서부터 읽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어떻게 그릴 것인가 순서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작품에 대해 '세상에서 이런 그림은 내가 그린 것 딱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피카소도 나만큼은 못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그 다음부터는 미술이 싫지 않고, 즐거웠다. 붓 잡는 것조차 싫어했던 내가 붓을 한 번 잡으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렸다. 내겐 참 신기한 일이었다. 그 모든 것을 내게 준 이가 바로 미술 선생님이셨다. 비록, 미술시간에 만나진 못했지만, 그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에 주신 도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1학년을 이렇게 보내고 난 후, 2학년이 되어서 나는 드디어 미술 선생님을 수업시간에 만나게 되었다. 단연, 선생님께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제일 높으셨다. 난 그때 꼭 선생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쉬웠다.

하지만 전과 다름없이 대해 주시는 선생님께 서운해 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1학년때 선생님 도움 덕분에 나는 2학년때 비교적 미술분야에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다.

2학년 겨울, 나는 내가 존경하고, 감사해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를 떠나왔다. 떠나올 때 말 한마디 없이 와버려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른다.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이번 스승의날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그리고 어제 전화를 드렸다. 선생님께선 잘 지내냐며 반가워 하셨다. 이제나 전화올까? 저제나 편지올까? 기다렸다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울뻐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방학때 꼭 찾아 뵙겠다고 약속했다.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을 마음이 아닌 형식으로 대하고 있다. 심지어는 스승의날 선물을 포장까지 다 된 것을 사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 스승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정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선물보다는 진정한 마음이 담긴 편지 한 장이 더 소중할거라 생각된다.

햇살은 선생님과 같다고 생각된다. 따갑지만 결코 차지않은 따뜻함을 가진 햇살같은... 등나무 꽃잎이 바람에 시달리다 떨어지는 지금 '피카소도 나만큼은 못하다'는 용기를 주신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어진 꽃잎에 담겨 있는 듯 하다.

장려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으로

구 영 선 (동두천여자중학교 1년)

따 뜻한 봄 햇살에 어렴풋이 생각나는 신선함과 산뜻함, 싱그런 공기마저 느끼는 훈훈한 계절 5월!

어느새 산골짜기에 남아있는 눈이 녹아 물이 흐르고, 산기슭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시골올타리에 노오랗게 핀 개나리꽃과 산에 빨갭게 핀 진달래 조차 점차 사라져 갔다. 그렇게 봄이면 쫓아오던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고 나뭇잎이 움트는 모습들도 언제 있었냐는 듯이 모두 없어졌다. 오히려 바다와 푸른 하늘위의 색깔인 “파란색”이 떠올라 산과 들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하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짧은 옷과 얇은 옷을 입었다. 요즘 들어서 더욱 그 시원함과 통쾌함 모두 빠져들고 싶을 정도다. 이렇게 계절도 바뀌어 가듯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어야 한다. 이번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모님 손에 깃든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알아야 한다. 꽃봉오리는 해님의 빛을 받아 하나의 꽃이 된다. 이에 비유하면 아기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초롱초롱 자라난다. 누구나 똑같이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키워 주셨기에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수 있었고, 그 덕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뜻깊은 인생! 슬프고 고달픈 인생! 인간이 생애 마지막 날까지 추억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고 맛볼 수 있어 이 능력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스럽던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을 위해 여름에는 햇볕이 광열하게 쨍쨍 쬐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고 겨울에는 손발이 다 닳고 심하면 얼어서 동상이 걸려가면서까지 추위와 더위 다 이겨내시면서까지 고생하지 않았던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양심없는 사람처럼 미련한 것만한다. 부모님께선 우리를 위해 설새없이 힘을 기울이시지만,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 허수아비 행세만 하고, 남들 따라서 옷 사달라, 신발 사달라, 먹을거 사달라 등 끈질기게도 북아서

폐만 끼쳐 드리는 경우가 빈번히 많다. 어떤때는 “남들은 이러지 않는데, 왜 꼭 나만 이모양 이 꼴이냐고” 하는 친구들도 많다. 그런말과 행동을 보고 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가슴 찢어지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속상할 것이다. 卍나실체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실체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이없어라卍 이 노래가사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늘이 아무리 높고 푸르다고 하지만, 아니 땅이 아무리 넓고 깊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높고 넓은 것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다. 부모님의 따뜻한 정성과 사랑을 느끼면서 효도하는 몸과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진정으로 부른다면, 누구나 수정같이 맑은 눈동자에 샘물처럼 눈물이 고일 것이다.

흰 비둘기나 검은 제비도 둥지에 새끼를 모아두고 먹이를 힘들게 구해와서 자신은 희생하고 먼저 새끼부터 챙긴다. 동물과 짐승도 사람과 같다. 어찌면 동물이 “사랑”이란 단어를 좀더 쉽게 빨리 파악하여 사람보다 더 나올 수 있다. 사람의 체면에서 명예가 무시된다면 어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자존심이 무너지는데, 사람들은 자존심을 서로 세우고 강하게 여기는데 말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동물보다 더 못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 우리 시대, 우리 나이에 맞는 효도방법으로는 남들 부럽지 않게 착하고, 고운 딸이되고,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이 되어야 한다. 말은바 충실히 하고 근면, 성실하게 그저 깨끗하게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바랄것이 있을까?

부모님이 100년을 살아도 지상에서 하늘 끝까지 못잇을 영원한 은혜를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보답하여 조화를 이룬다면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의 박수속에 매일같이 기쁨에 찬 영광스러운 생활이 계속될 것이다. 부모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원활하게 하여 보람찬 삶과 자신감 있는 삶에 한 번 도전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여 화목한 가정, 훌륭한 사회, 더 나아가서는 발전되는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장려

그루터기에서 나는 열매

유수지 (보영여자중학교 3년)

시 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광활한 우주 그 수많은 별중에 하나인 지구, 그 안쪽 어느 한 모퉁이에 자리잡고 있는 나. 지금 이 순간도 난 나를 위해 삶의 한 부분을 견고 있다. 언제든지 생각하고 있다. 나에게 대해서 또 내가 느끼는 무언가들에 대해서... 지금도 역시 난 내 기억의 부분으로 내가 감사하게 느끼는 것들에 대해 되짚어 본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조금씩만 깊게 느끼고 생각해 본다면 무엇인가라도 적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람이란 존재를 있게 해 주신 조물주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세상을 지금까지 보존케 한 모든 자연에게 감사하며 나란 존재도 있게 해 주신 부모님께 역시 감사드린다.

이렇듯 모든 것에 감사하며 뜻있고 즐겁게 사는 삶, 나는 이 삶이 누군가를 위한 삶이기 보다 내 자신에게 우선 충실하며 이루는 삶이길 원한다. 지금 나의 현 위치와 과거를 돌이켜 보고 또, 미래를 상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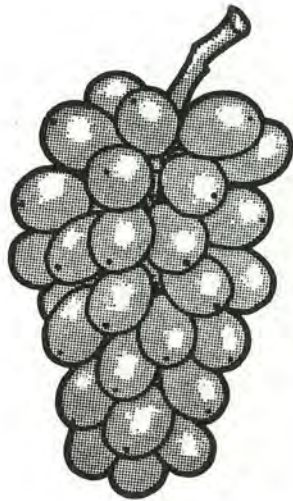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엔 내가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기 보다는 마냥 신비롭고 무한한 동경을 느낄 뿐이었다. 지금의 나는 의존적이면서도, 내 의지력이 강한 삶을 살고 싶어한다. 내 삶을 지금까지 만들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좀더 생각하는 삶을 살고싶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앞으로의 내 삶과 지금부터 지속되어야 할 모든 것들을 위해 나에게 충실한 삶, 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의 모든 것을 있게 해 준 것이 조물주, 부모님, 자연... 이 모든 것들의 뜻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만들어야 할 삶은 내앞에 주어진 나의 현실이다. 감사하게 느끼는 그들을 위한 삶보다는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또한 내 방식이다.

나,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거슬러 왔는지는 상관없다. 다만, 내게는 친근한 나를 위한 모든 것들 -창조주의 정성과 부모님의 사랑, 자연의 숨소리-에 감사의 뜻을 잊지는 말아야겠다.

지금의 나, 현실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삶, 이런 삶에도 웃으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에 대해 조금은 신뢰감을 느낀다.

봄의 향내에 가득 쌓인 이 공간, 그리고 지금, 난 5월의 싱그러움과 꿈을 노래할 수 있는 내 자신에게 만족하며 깊고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맑은 새소리처럼 상큼한 꿈을 가질 수 있는 내게 감사한다.



장려

하나뿐인 한글

이 정 심 (보영여자중학교 2년)

을 해는 문학의 해이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문학작품은 마음의 생명수이다. 요즘처럼 삭막한 현대의 문명사회에서는 더욱 좋은 문학 작품을 필요로 한다. 메마른 사막에 있는 하나의 웅달샘처럼 샘물이 솟아나듯 문학작품은 우리의 메마른 인심을 적셔주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언어 즉, 우리의 한글로 되어있다.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옛날, 조선시대 세종대왕께서는 3형제중 막내로 태어나셨다. 그 때의 왕위 세습은 원래 장남이 물려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3형제 중 막내 아들이 가장 왕이 되기에 꼭 알맞았다. 학식도 높고, 제일 영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은 막내 아들인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 주었다. 장남도, 둘째도 순순히 막내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했다. 그들도 세종대왕이 영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세종대왕께서는 학문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집현전'이라는 학문 연구기관도 세우셨다. 또 세종대왕께서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중병에 걸려 이를 걱정한 부모님께서는 세종대왕 방의 책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는 책 한 권을 숨겨서 후에 책이 걸레가 될 정도로 몇번이고 읽으셨다고 한다.

이 성격이 바탕이 되어 세종대왕께서는 여러 학자와 함께 한글을 창제해 내셨다.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한자를 쓰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우리나라만의 글을 창제하셨던 것이다. 한글은 현대에도 놀랄만큼 과학적인 글로 전 세계에서 단 한나라, 우리 나라만이 사용하는 글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한글보다 외래어에 더욱 많이 치중하고 있다. 외래

어를 쓰면 더욱 유식해 보이고, 멋지다는 쓸데없는 선입견에 빠져들어 우리 나라 말은 뒷전에 처지고 있다. 물론 지금은 세계화의 목소리가 높아져 외래어도 많이 배워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나라의 언어도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외래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같은 것이다. 오늘의 거리를 보아도 간판은 온통 알 수 없는 외래어 투성이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우리의 옷, 가방, 심지어 신발까지 외래어가 적혀 있다. 어린 아이들도 우리말보다는 외래어를 먼저 배우고 있다. 그렇다. 지금 우리는 세종대왕을 잊은 것이다. 우리의 한글도 잊은 것이다. 세종대왕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한글을 창제해 주신 세종대왕께 감사드린다.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게 멸시와 무시를 받았을 것이다. 한글을 볼 때마다 세종대왕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파아란 하늘에 우리의 한글로 편지를 곱게 써 본다.



장려

부모님의 은혜

최윤정 (중앙중학교 1년)

하 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다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모를때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가 한 순간에 그냥 지나쳐 버리는 공기나 나무의 소중한처럼 부모님의 은혜도 그때 당시만 소중히 여길 줄 알지 그 시간이 지니고 가면 잊어버리기가 십상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 덕분인데 그 정성과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써 그 책임마저도 모르는 꼴이 될 것이다.

부모님! 자신의 일생을 우리에게 헌신적으로 바치고도 아깝지 않으신 분들이다. 그런데도 난 그 사랑을 너무나 몰라주는 것 같아 죄송스럽다. 행여나, 남에게 뒤질세라 남이 하는 것은 모두 다 해 주고픈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때의 일이다. 그때 당시 우리 엄마께서는 우유배달을 하고 계셨다. 난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다. 왜 꼭 우리엄마가 아니면 안되냐는 고정관념으로 꼭 차 있었던 때였다. 엄마를 만나면 친구들 사이에 망신을 당할까봐 고개를 폭숙인 채 다녔다. 그런데 드디어 일은 터지고 말았다.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엄마를 만난 것이다.

“윤정아”

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우유를 많이 실은 수레를 잠시 멈추고 나를 바라보셨지만 난 너무도 창피한 나머지 고개를 폭숙인채 집을 향해 막 뛰어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무척이나 후회를 하였다.

‘내가 왜 그랬지? 엄마가 굉장히 섭섭해 하셨을꺼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창피당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날 난 문밖에서 엄마를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난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다.

‘혹시 나 때문에 화나서 돌아오지 않으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자 코끝이 찡해졌다. 그러나 엄마는 저녁이 되서야 집으로 돌아 오셨다. 난 정말 기뻐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엄마의 우유배달이 창피하지 않았다. 지금은 우유배달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만약 또 엄마가 그런일을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엄마를 모른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참 한심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남부럽지 않게 해 주시려고 열심히 일하시고도 피곤함을 잊어버 리시는 그런 조건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시기에 우리는 마음껏 뛰어 놀 수도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께서서는 우리들 때문에 조금씩 늙어가신다. 머리에는 흰 머리가 얼굴에는 잔 주름이 무성하지만 부모님께서서는 그런 것 들에 신경이 쓰이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들 하나만을 바라 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장려

미싱 소리에 담긴 어머니 마음

한진혁 (동두천 중학교 1년)

오늘도 어머니께서는 미싱일을 하신다. 나는 이 미싱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끔 화를 내지만 어머니께서는 나를 남부럽지 않게 기르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을 하셨다. 그러다가 몸이 매우 약해지셨는데 나를 낳을 때에는 매우 고생하셨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유치원 때였다. 첫날, 어머니께서는 나를 데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가도록 하셨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우산하나 갖다 주지않으셨다. 나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매우 싫어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때부터 길들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지금 나는 혼자 스스로 하는 힘이 생긴 것인 지도 모른다.

몇 달뒤, 어머니께서는 직장에 다니게 되셨다. 역시 미싱일 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집은 비어 있었다. 그럴 때 나는 스스로 밥을 차려 먹었다. 나도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께 보답하는 뜻에서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은 것이다. 저녁 때 돌아오신 어머니께서는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울먹이셨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 퇴근하셨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나는 다른 집에 맡겨져 생활하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가끔 나를 보러 오실뿐 자주 만나지는 많았다.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 나는 다시 부모님과 생활하게 되었다. 전보다 집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부모님께서 많이 고생하신 것이다. 그후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주말이었다. 아버지 가게 앞에 조립식 완구가 있었다. 탐이 난 나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종아리를 때리셨다. 남의 것을 훔친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그것을 훔친 것조차 몰랐었

다. 철이 없었던 것이다. 종아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어머니께서는 다시는 그런짓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올바른 그리고 참된 사람으로 가르치셨다. 나는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집에는 미성 소리가 들린다. 나는 이 소리가 매우 좋다. 어머니의 마음, 사랑이 담겨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께서 보답할 차례인 것 같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초 등 부

장원

맑은산의 눈, 코, 입이 있다면...

이 유 미 (탐동초등학교 3년)

맑은 산이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맑은 산이 만약에 눈이 있다면 우리를 볼 수 있겠지. 나무가 없다면 산이 울겠지요? 나무야, 산을 멋있게 뒤 덮어 주렴. “나무야 고맙구나 나를 뒤덮어 주어서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지? 나는 이곳에서 너희들을 살게 해 줄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비가 오는 걸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갑자기 맑은 산은 비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산은 마음 속으로 빗소리를 들었던 것이예요. 나무도 자기가 눈과 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나무가 힘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산은 나무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무야 너도 들을 수 있단다.”

산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응,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 그럼 들을 수 있을 거야”

나무는 곰곰히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나무가 큰 목소리로 대답 하였습니다. 나무는 희망을 갖고 산이 말해 준대로 하였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그치자 참새들이 짹짹 노래를 하였습니다. 나무도 마음속으로 참새의 노래를 마음껏 들었습니다.

산은 들었습니다. 나무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을 들었습니다. 맑은 산도 기쁜 마음을 나무에게 들려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마음속으로 귀를 기울였더니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맑은 산과 맑은 나무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무와 산을 축복한 것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나무와 산이 비를 많이 마셨습니다.

“목마르셨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산과 나무는 아니라고 하며 비나 많이 내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장원

엄마, 아빠 감사해요!

황진숙 (사동초등학교 4년)

저희 아버지께서는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도원리에서 10월 5일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셔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시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와중, 3살때에 마루에서 넘어 지셨는데, 그때에는 형편이 좋지않아 그때 치료를 못 한 것이 아직도 남아 지금은 등이 볼록하게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기를 전공하셨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시고, 바로 계량기를 만드시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시다가 엄마를 만나셔서 점점 나아지셨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엄마를 만나서, 엄마가 아빠를 만나서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같이 살아오시면서 엄마는 가정부일을, 아빠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저축을 하시고 엄마는 아주 알뜰살뜰하게 살림하셔서, 소중한 가족을 가꾸어 나가시고, 중요한 재산을 지켜가서 지금의 우리 가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전 엄마가 시집살이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은 다른 큰엄마들을 아들이 1명씩은 꼭 있는데, 엄마만 아들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에 친할머니가 엄마만 싫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4월 7일날 내 남동생 인철이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난 지금의 우리 가족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엄마 아빠가 싸우시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가정의 달 5월

차하

감사해요 선생님

김 연 진 (사동초등학교 6년)

파란 하늘과 울창한 나무, 그리고 피플 새소리, 이런 곳에서 나는 지금 글을 써요. 그런데 지금 내가 글을 쓸 수 있게 용기를 주신 정지영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할까, 말까 하던 마음을 굳게 다져 주신 선생님.

저번 글짓기 대회에도 오늘처럼 망설이다가 대회에 나가 어처구니 없이 떨어지긴 하였지만 울먹이던 나에게 달래주시며 용기를 주셨죠.

“글과 글씨에 소질이 있다.” 하시며 등을 쳐 주시고 할 수 있다며 다시 굳은 다짐을 약속하셨죠.

“선생님, 저 이번 글짓기 대회에서 꼭 상타서 선생님께 자랑할 거예요.”

하며 큰 소리 치고 나왔죠. 그때 선생님의 짧은 미소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제가 아직 6학년이라 그렇게 선생님을 사랑할 거예요. 며칠전 스승의 날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오신 선생님께 걱정끼쳐 드리며 속상하게 한 우리반 아이들 모두 다 미워요

저는 반 아이들에게 인기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지금 푸르름이 가득한 소요산에서 선생님께 감사하고 용서를 빌며 글을 쓰고 있어요. 파란 하늘아래 선생님과 노래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그림으로도 그려 보았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란 말 아시죠! 선생님, 저는 아직 마음이 작고 어려워요. 선생님,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교실 반 분위기를 잡아주시려고 애쓰시지요. 부임하신 지 1년 4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낯봐도 선생님 아시죠? 용기를 가지세요. 연진이기가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극기훈련, 수학여행 등등 가지요. 즐거워요. 뭐냐면 선생님과

1년동안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 선생님 제가 쓰는 글 지금 보시면 웃으시겠죠? 선생님 제가 상 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조운미랑 계화랑 아니 우리반 전체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 6학년 지금 이순간, 아니 영원토록 잊지 않을 꺼예요.

선생님의 특기인 노래, 책읽기 저도 노래와 책읽기가 특기예요. 선생님이랑 저는 닮은 곳도 참 많죠. 성격 그리고 모습도요.

그리고 어떤때는 선생님이 저의 언니였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것처럼 선생님이 좋고, 친근해요. 선생님, 이 세상에 선생님처럼 마음씨 고운 선생님이 있을까? 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정지영 선생님이 저에 답임이란 것 1~6학년 때까지 이렇게 친근한 선생님은 못보았어요.

선생님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 언제까지 선생님을 존경할래요.

사랑해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꺼예요.

세상에 하나뿐인 선생님에게

1996년 5월 22일

연진 올림

차하

자연의 필요성

장 동 현 (소요초등학교 6년)

자 연이 왜 필요한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자연이 파괴된다면 공책의 원료인 나무가 파괴되어 공책이 없어지고, 농촌에서는 나무가 없어 산사태, 가뭄, 홍수 등이 많이 일어난다.

또, 흙이 썩어 농작물이 자라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나무가 없으니 나무에 사는 곤충들이 죽는다. 그로인해 곤충들을 먹는 새들이 죽고, 풀도 없어 토끼, 영양 등 풀을 먹는 동물들이 죽는다.

그로인하여 사람이 피해를 안 입을 수는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동물과 식물이 모두 없어져서 굶주림에 죽는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면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연보호를 잘 하려면 먼저 휴지를 버리지 말고 산에서 음식을 해 먹지 말며, 산이나 도로 등에 휴지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또 자연을 파괴하는 린스, 샴푸 등을 되도록 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죽, 청바지, 천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염색의 물질을 물이나 하천, 강으로 내 보내는데 그것도 하나의 자연 파괴이다.

또 해수욕장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놀러온 여행객들이 썬텐을 한다고 몸에 기름칠을 한채 그대로 바닷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다가 온통 기름 투성이가 되기 때문이다.

바다가 기름투성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다. 그 고기들을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그리고 기름으로 오염이 되면 소금이 기름소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골(농촌)에서 모두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연보호는커녕 사업에만 열중하여 자연보호는 상관도 하지 않는다.

땅도 골고루 양분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땅에 1/3만이 많은 양분을 먹기 때문에 한 곳에만 많은 양분이 먹게 되어 한 곳에만 곡식, 식물들이 많이 자란다.

‘자연보호’는 그냥 ‘자연보호’가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는 뜻에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첫째, 멋이 있는 풍경, 둘째는 산사태, 홍수, 가뭄 등을 막아준다. 셋째는 곡식, 주로 산삼, 인삼, 도라지, 버섯, 나물 등을 주고, 넷째는 맑은 공기를 준다. 나무는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나쁜 공기를 깨끗한 공기로 바꾸어 우리 사회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파괴된 자연도 자연보호를 하면 깨끗한 자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하

할머니! 사랑해요.

정희재 (생연초등학교 6년)

신 나는 일요일.
우리는 이번 일요일도 어김없이 할머니댁을 찾는다. 60이 넘으신 우리 외할머니는 아직도 정정하시다.

혼자서 하루종일 쉬는 시간도 없는 식당에서 일하시려면 피곤하실 텐데도 항상 우리들을 안아보시곤

“아이고, 우리 희재, 현석이 많이도 컸네.” 하신다. 그러면 우린 할머니를 번쩍 안아올려 보인다.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깔깔 웃으시며,

“아이고, 나 죽네. 힘센 것 알았으니 어서 내려놔.” 하신다.

우리 할머니는 공장에 딸린 식당을 하고 계신다. 할머니께서 인심도 좋으신터라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과자하고 과일을 항상 갖다 주신다. 그러면 할머니는 안잡수시고 계셨다가 우리가 오면 그때 내놓시곤 한다.

“어머님. 요번엔 집에 가지죠.”

하고 아빠가 말씀하시면 항상 거절하신다. 할머니께서 왜 우리랑 같이 안사실까? 어릴때 할머니가 미운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할머니의 생각 때문이라는 걸 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말동무도 친지도 없는, 그 외진 어유지리에서 할머니는 쓸쓸한 표정 한 번 지으시지 않고 꼭 참고 계시다. 어떻게 보면 할머니께 아무런 부담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곳이 더 마음 편할지도 모르겠다.

1월 중순경, 할머니는 마음고생을 톡톡히 하셨다.

울엄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이신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언제나 냉정하시며 굳세시던 우리 할머니께서 대성통곡을 하시며 슬퍼하시는 모습은 항상 내가 봐왔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그런 모습은 너무 낯설었다. 그래서 할머니! 쓸쓸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어버렸던 것 같다. 지금은 그게 후회된다. 할머니가 나에게 주었던 사랑만큼 난 보답할 길이 없는게 답답하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나의 이 한마디가 할머니 가슴에 울려 퍼지기를...

장려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아저씨

김 서 로 (탐동초등학교 4년)

우 리들 곁엔 항상 국군아저씨가 계십니다. 국군아저씨들은 매일 잠도 잘 이루
시지 못하시며 휴전선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국군아저씨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지 않을 것입
니다.

국군아저씨들이 휴전선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국군아저씨
들이 휴전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국군아저씨도 영원한 국군아저씨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크면 군대를 가서
국군아저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통일이 된다면 우린 국군이 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이 지금 일어나면 그때 휴전선을 지키는 국
군아저씨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국군아저씨를 도와서 함께 국군이 되어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
면 국군이 돼야 할텐데, 만약에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열심히 도망가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면 우린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까 지금부터라도 국군아저씨들이 하는 모습을 잘 공부해 봤다가, 이 다음에 커서
그 모습 그대로 싸워서 꼭 이기고 군대 생활을 무사히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또
돌아와서도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나쁜 일만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 국군아저씨가
나라에서 쫓아내야 겠습니다.

여태까지 종합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군아저씨께 보답하자는 것입니다.

장려

크나큰 은혜

송 지 애 (소요초등학교 6년)

지 금 나에게 봄바람처럼 들려오는 크나큰 은혜라는 작은 속삭임이 내귀를 간지럽게 합니다. 벌써 5월이라는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5월의 감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은혜는 필요할 테니까 말이예요. 아버지 은혜와 스승의 은혜, 5월에 두가지 은혜 언젠가는 잊어질 것 같아도 잊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밤낮으로 마음고생 하시며, 고생 고생 길러주신 은혜 이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스승의 은혜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예날 스승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승 또한 우리 제자들을 위해 마음고생 하셨을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할 일은 없는 것일까요. 어느것보다 높고 푸르름을 닮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에 보답은 아버지가 바라는 '건강'과 스승이 바라는 '열심히'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아버지에게, 스승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느끼지 못할 뿐이예요. 이렇게 자식과 제자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아버지와 스승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가슴을 찢어보면 시커멓게 타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스승은 크나큰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조그만 노력만을 바라지 않을까요. 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 추억과 은혜라는 나에게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을 위해서 이겠지요. 그 크나큰 은혜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아세요? 저도 모르는 하나의 열쇠예요. 하지만 전 그걸 사랑이라는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는 희망이 나타내 주는 보답이 아닐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저의 생각일꺼예요.

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힘들었던 일이 무척 많아요. 아버지 은혜를 보답

하기 위해서 심부름 잘하기, 건강해 지려고 편식하지 않기, 공부 잘하려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끙끙대면서 지내왔었어요.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내가 못하는 공부나 과목을 열심히 해 본적이 많아요. 너무나 힘들었던 세월들이예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들을 위해 마음쓰신 것 보다는 작은 것이겠지요. 이렇게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은 높고도 힘든 것인가 봐요. 내가 겪어왔던 모든 보람과 힘든 세월이 헛되 지나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마 그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아는 모든 어른들께 감사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저는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찌나 보답할게 많은지 걱정이 됩니다. 칭찬을 받지도 못할 일을 하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 정다운 은혜와 사랑이 그리워서 그런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실감나게 말해드릴 테니까요. 멀고도 험한 보답의 길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하겠죠?

나의 머나먼 보답을 아버지 은혜, 스승의 은혜를 위해서 길고 긴 세월을 닦아 놓아야 겠어요. 그 크나큰 보답과 은혜를 위해서 말이에요.

이제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세월을 띄어 보내렵니다.



장려

불과 싸우는 소방관 아저씨

승 호 영 (생원초등학교 4년)

“쉬 쉬”

소방관아저씨가 힘차게 불을 끄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특히 가스 때문에 불이 날 경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뜨거운 불속에 들어가 구출하는 모습은 슈퍼맨처럼 용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요즘은 긴급구조대 119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미국의 91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소방관 아저씨의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또 소방관아저씨들이 더 구하려고 노력하다, 부상과 사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전엔 모른체 했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이 하나 없어진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 산불도 많이나 설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자나깨나 불조심, 작은 불도 큰 불이 된다는 포스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또 이런 일들도 많이 해 봤어요. 백화점 입구에 담배불이 번질려고 빨강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른 발로 밟아 꺼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도 소방관아저씨의 일을 한 가지라도 덜어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도 무관심이었다는게 가슴 아팠어요. 지금은 외출할 때는 “엄마, 가스 잠그셨어요?”

라고 물어보아요. 저도 항상 불조심을 해요. 이제부터 소방관아저씨를 생각하며 불장난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관 아저씨 화이팅!

장려

산 새

이 지 혜 (소요초등학교 6년)

우 리 고장에는 나무가 많다. 물도 맑고, 산새도 많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주말이 되면 여러 곳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또 관광하는 사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공기도 좋고, 물고 맑고, 경치도 좋다고...

내가 보기엔 관광 온 사람들은 얼굴도 하얗고, 옷도 예쁘고, 깨끗한데 무슨 말일까? 자연은 우리가 깨끗하고 사람은 서울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오빠와 함께 소요산 개울 옆 미류나무 꼭대기에 있는 까치집을 뒤지기로 약속했었다. 오빠는 땀을 흘리며 누가 볼까 걱정하며 끄끙거리며 올라 갔었다. 까치알 2개를 주머니에 넣고 줄을 타듯 내려왔다. 오빠와 나는 하나씩 나눠 가졌다.

그 다음날 학교에 왔다. 그러니까 4월 셋째 월요일이었다. 마침 학교에서는 자연보호 운동에 대하여 공부를 했다. 나는 어제 까치집을 뒤진 일이 마음에 걸렸다. “다시는 그런짓을 하지 말아야지”하고 다짐했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보호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물으셨다. 송희는 종이와 깨진 병 조각을 줍는 것이라고 했고, 민경이는 돌 위에 낙서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인영이는 나무나 꽃을 꺾지 않는 거라고 했다.

그때 나는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새집을 뒤지지 말고, 새장을 만들어 달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선생님께서는

“모두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각기 할 수 있는 자연보호를 해 보세요.” 하셨다.

지금 우리 학교 운동장 교문밖에 울타리에는 새장이 가지런히 달려 있다. 하얀 페인트를 칠한 새장 속에 새들이 자유로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

고 싶었다. 그리고, 다시는 새집을 뒤지지 않겠다.

우리 고장에는 나무도 많고, 새도 많고 물도 맑아 여러 곳에 사는 관광객 손님이 찾아온다. 쓴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가시는 손님도 계시지만 쓴 자리를 치우지 않고 가시는 손님들도 계시다. 또 식당 같은 곳이나 관광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찌꺼기를 냇가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다니... 아휴! 한숨만 나온다.

우리들은 선생님 말씀처럼 제각기 할 수 있는 자연보호를 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또 자연을 잘 보호하여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 주겠다.



장려

어머님 은혜

임 보 름 (사동초등학교 6년)

밥 하시랴, 집안일 하시랴, 힘드신 어머니. 비가 오려고 하면 허리가 아프신지 말씀도 하시지 않고 혼자 허리를 두드리시며 인상을 찌푸리신다.

가게일 하시랴, 아기 돌보랴, 이러저리 쪼달리며 바쁘신 어머니는 말씀도 하시지 않고 걱정만 하고 계시니 용돈 달래기가 미안하고 죄송하다.

“아름아, 콩나물 사와라.”

동생 아름이는 인상을 쓰며 마지못해 콩나물을 사러간다. 아름이가 콩나물을 사러간 사이에 애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울어댄다.

애기가 울면 큰딸인 내가 더 미안한 생각이 든다. 애기를 달래려고 안아도 애기는 계속 울어댄다. 가게일이 바쁘신지 조금 뒤에 들어오신 엄마는 아기를 달래고 잠을 재워 후다닥 나가서 가게일을 하셨다. 너무 힘드셨는지 얼굴 곳곳에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다.

잠잘 시간이되자 다시 아기를 재우고 잠이 드셨다. 피곤하셨는지 엄마 코에서 코피가 났다. 수면제를 드시고 잠이 드셨다.

아침이 되자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부랴부랴 밥을 하셨다. 엄마는 웃으면서 밥을 하셨지만 아직도 피곤하신지 얼굴에 피곤이 가득하셨다. 아기 우유를 타 놓고 김치와 찬밥으로 아침을 때우신다.

학교에 갔다 오면 화장을 하지않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는지 화장을 예쁘게 하고 계셨다.

“보름아, 오늘은 오징어 국이야!”

나와 내동생은 한참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징어가 싱싱하지 않았던지

“보름아, 오징어 말고 김치찌게 먹자!”

하는데 아름이가 실망했나 보다. 드디어 저녁시간!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라왔다. 오징어 국보단 못하겠지만 엄마가 해 주셔서 그런지 맛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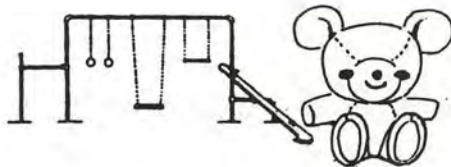
김치찌개를 먹고 엄마를 주물러 드렸다. 엄마는 시원하신지 흐뭇해 하시며 500원을 주셨다. 우리는 그 돈으로 저금을 했더니,

“착한 아름이, 보름이.”

하고 하시며 흐뭇해 하시자 너무 기분이 좋아졌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내가 크면 클수록 어머니 은혜에 감사한걸 느끼고 있다. 나는 항상 엄마를 사랑하며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야 겠다

“어머님 감사해요!”



동두천시 이담(伊談)농악에 관하여

김 홍 래 (동두천여상 풍물반 지도교사)

<유 래>

이담(동두천의 고명)농악은 경기, 충청 판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해방전후부터 행해졌던 경기 북부지역의 행단농악(현동두천시 지행동)과 송내농악(현 동두천시 송내동)과 안흥농악(현 동두천시 동안동)에서 발굴, 재현시킨 것이다.

당시 행단농악에서 활동하였던 어윤희(동두천시 지행동)씨와 송내농악벽구로 활동하였던 장병우(동두천시 내행동), 어윤성(동두천시 송내동), 이윤수(동두천시 송내동)씨의 고증에 의하면 4월초과일부터 단오절까지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천년역사를 가진 은행나무 밑에서 마을 농사일을 위한 품앗이 주민 대동굿을 벌여 마을의 안녕과 액운을 떨쳐내고 화합과 단합을 위한 연희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한다.

특히 당시 행단농악단 상쇠로 활약했던 이인승(작고, 동두천시 지행동)씨는 단무동위에서 상쇠 복상을 돌려 출중한 기량으로 양주(남양주와 분리전)지역에서 그 기량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가락으로는 광복가락이 있으며 또한 벽구들은 농사철이 동작을 직접 소고를 들고 행하였다.

농기에는 태극기를 그려 넣었던 것이 특이한 면이라고 이 고을 주민 이강진(동두천시 지행동)씨와 송내농악 수벽구 장병우(동두천시 내행동)씨는 전한다.

<특 징>

- (1) 쇠가락이 힘차고 섬세하며 윗놀음이 화려하며 12상모가 돋보인다.
- (2) 상쇠의 채발림이 화려하고 채상놀이가 뛰어나다.
- (3) 판제가 다양하며 가락의 수는 많지 않으나 1채, 3채, 7채 굿거리가 적절하게 잘 다듬어져 있다.
- (4) 본 고장에서 행했던 일년농사의 형태를 가락에 맞추어 판굿에서 재현한다.
- (5) 전승의 내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락이 신명나다.

기 지촌으로만 알려진 동두천에서 각 마을마다 우리 전통 농악이 행하여져 왔다는 사실들은 지금의 신세대들은 잘 모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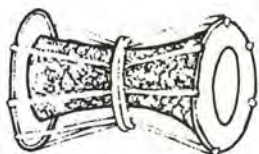
이담농악의 본거지는 송내동, 지행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농악판에서 활약하셨던 분들께 직접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필자는 내심 다짐하였다.

문화적으로 열세인 본 지역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계승시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고 말이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노력도 더 해야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이룩해 낸 결과에 대하여 필자를 믿고 따라준 본교 학생과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상 경력〉

- 94년 10월 세계사물겨루기 풍물부문 버금상
- 10월 제6회 전국고등학교 풍물겨루기 마당 은상
- 10월 제2회 전국농악경연대회 장려상
- 95년 10월 세계 사물겨루기 풍물부문 버금상
- 10월 제7회 전국고등학교 풍물겨루기 마당 장원
- 10월 제3회 전국농악경연대회 차상
- 96년 9월 제1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최우수상
- 10월 제8회 전국고등학교 풍물겨루기 마당 장원(2연패)
- 10월 제4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장원



수상작 모음

문화원 백일장 (Ⅱ)

[시]

<일반부>

차 상 오 월/이보영 外

<고등부>

시조장원 경심가/한재성 外

<중등부>

장 원 햇 살/윤희준 外

<고등부>

장 원 소요산/조현아 外

일 반 부

차상

오 월

이 보 영 (동두천시 광암동)

당신님 편지를 받은 그날로
고단한 여정은 끝이었습니다.
간밤은
더 이상 꿈도 없이 아늑해서
아침
차 한잔으로 한숨 그 끝자락을 놓습니다.
어디
더 이상 서러운 풍설도 없습니다.
오월인가요?
당신님 입맞춤에 매달린
연보라 꽃잎이 조롱조롱 깊이 향기로운데
나비는 누구인가요?
지난해 그리움 사랑이 머물던 자리에
꽃잎으로 피어난 지난해 애기들의 혼령인가요?
사랑은 가도 추억은 돌아 돌아
내가 앓은 이 산 저기 여기 나홀로
주저앉아 기억을 찾아내, 아프지?
다시 가슴 더듬으며 내게 안기어 오며 묻지만,
사랑은 가도 사랑을 사랑해...
오월이야,
가난하지만, 행복한 새덕이지요.

차상

어머니께 드리는 글

이 복 하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듯한 절벽아래
 모래사장 하얀꿈 적시어드는 굽은 강을 거울삼아
 대청마루 시원함도 군불뎌 안방도
 내것이 아닌양 들밭, 산골짜기 다락지논으로
 하루에 하루를 더해서 어제만 만들더니
 오월의 중순 싱그러운 현실은 왜 모르고
 차디찬 흙베개로 놀라눕는 내 어머니

긴의자 모퉁이로 자갈굴리는 물소리 요란하고,
 어느것하나 아쉬운 것이 없는데
 내아이 크듯 어머니는 저만치 잃어지고
 죽으면 썩어질 살인데 아껴서
 어린가슴에 잊혀질 수 없음이
 빛바랜 당신 모습이 새롭습니다.

떠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말고
 그저 두손에 담길만한 행복으로
 이제 당신의 염려를 제가 해 드리며
 귀밑 흰머리 셀 때 후회없도록
 모나지 않은 자갈같은 생이되어
 떠나실제 근심함을 덜어서
 계신 자리를 돌아봐 드릴게요.

고 등 부

시조 장원

경 심 가 (敬心歌)

한 재 성 (신흥고등학교 1년)

오! 어머니, 그대를 무어라 부르리까.
따스함 스며들어 살포시 감싸줘어
그대의 명안을 보매, 인고만 가득하오.

두려워 두려워 그대가 두려워
부끄럼에 부끄럼에 바라봄도 부끄럼에
한없는 눈물조차도 보답치 못하리오.

내 마음 요동치는 경탄이 축복이
어머님 눈에서 낙화한 별꽃이리니,
자비로 환(換)하여 일배를 드리나이다.

차상

청 송 (靑松)

김 요 한 (신흥고등학교 3년)

주름진 가지끝
파리한 세월의 촉수로서
보살펴 주신 어머니.

허리춤에 삐뚤어진 몸뚱아리를
바로 세워 주시고
자랄 길을 열어주시네.

어머니!
풍뢰의 고요함에도
흐느끼는 나를 위해
늘 푸른 빛을 보이시고

스산한 달빛아래
쓰러지는 잎새 뒤로
절대히 지지 않으려는 나를 위해
밤낮 기도하시던 어머니.

수평선을 타고 넘어
세찬 바람이 밀려와
또 하나의 나이테가
그어져도 죽사와
나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으렵니다.

차하

어 머 니

허 재 용 (신흥고 3년)

고운 손 뽀얀 살결,
하이얀 무명치마
투명하리만큼 깊고 푸른
달 같은 눈동자.

이제는 닳고 닳아
현 잿빛이 되어
밤마다 고운 얼굴
그림자만이 드리운다.

따뜻한 곳이면,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면,
삭막한 도시기운이
달지 않는 곳이면,
날 위해 자릴 보아 주시던
뽀오얀 손마디가,
이제는 고목나무의
마른 잎사귀가 되어
저고리 속으로 감추어진다.

어리고 작은 나에게
고운 마음 되라시던
영롱한 음성.

어두운 곳에 있으면
가느다란 손길고 데려가시던
사랑스런 어머니님.

이 다음 성인이 되어
마른 가지같은 어머니의 손길을
감싸 드린다는
나의 약속.

반드시 빛이되어
나의 촉매이신 어머니의
어두운 마음
고이 밝혀 드리리라.

장려

사랑 속의 눈물

한 정 우 (동두천고등학교 1년)

억만 겹의 고통속에
울부짖는 한 생명.
행복한 미소짓고,

한 생명 끝나가면
큰 시름 놓지 못해
슬픔에 묻혀 사네.

순수한 그 모습에
부드럽게 감싸 주며
자애롭게 바라보네.

나올 길이 없는
거대한 사랑에 빠져
오직 눈물만 흐르네.

건강하게 자라나니,
모든 시련 잊어버려
따스하게 살피 주네.

씩씩한 그 기상에,
자랑스런 마음 앞서
기뻐하며 맞아 주네.

행복 찾아 떠날 제
속으로 눈물 지으며
축복하며 배웅하네.



차하

어머니의 손마디

홍 석 중 (동두천고 2년)

휘어진 손마디
20년 인고의 세월자락을
움켜쥌다.

나의 고통을 털어준
포만한 어머니의 손마디
그 안에 사랑이란 단어가
터질 듯 꿈틀거린다.



장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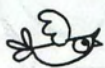
외로운 이끼

남 석 우 (동두천고등학교 2년)

물이 돌 사이를 흐를 때
나는 돌에 붙어
물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다.

물위에 떠도는 낙엽보고
친구하자 하지만
낙엽은 잠시 머물렀다 간다는
말도 없이
홀쩍 떠나 버린다.

나는
또 다른 친구가 올 때까지
나는 홀로
물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다.



장려

도 시 락

남 석 우 (동두천고등학교 2년)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의 도시락을
만드시네.

정성스레 만든 도시락
우리의 굶주린 배를
어김없이 채워주네.

어머니의 정성속에
우리는 자라나네
어머니의 정성스런 도시락 속에
우리의 꿈이
커간다.



중 등 부

장원

햇 살

윤 희 준 (신흥중학교 1년)

살며시 웃음짓는
햇살처럼

넘치도록
베푸시는

언제나 밝게
살아가라며

부모님의
사랑을

푸르고 곧은
소나무처럼

감사라는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는지...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온갖
정성과 사랑을

차상

어머니

서 은 희 (동두천여자중학교 3년)

푸르게 여무는산
투명하게 반짝이는 물
오월의 활기참 속에
무르익는 찬란함.
그 찬란함과 같이
언제나 굽어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 고요한 마음속엔
항상 내가 자리잡고 있는
나의 모습.

어머니의 울타리 안에서
여린싹이 되버린 나는
사랑을 듬뿍받아
언제나 촉촉하다.
가끔 불안함의
거친 바람이 몰아칠 때
어머니는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신다.

끝없는 사랑의 고귀함은
그 어떤것과 견주어도
한껏 빛나리니
머지않아 열매맺을
그날이 오면
그 한없던 고마움에
보답하리라.

오늘도 내리쬐는
사랑의 햇볕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평온의 바람.
조심스레 오늘도
뿌리를 내린다.

부모님

정 윤 정 (동두천여자중학교 1년)

맑은 하늘, 푸른 나뭇잎
가을 단풍, 여름 냇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주신 분들.

타박타박
흙빛을 밟으며 걷는 학교 교정
이렇게 마음껏 땅 위를
걸을 수 있게 해 주신 분들.

쫄로롱 쫄롱 산새소리,
호롱호롱 바람소리,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신 분들.

그 감사 느낄 수 있는 마음까지
가슴속에 심어주신 분들.

가슴 한 아름 사랑주시며
작은 효에도
눈물겨워 웃음 지으시는 분들
눈가에 작은 주름이
아름답습니다.

고생이라는
고통과 아픔속에서도,
가난이라는
설움과 슬픔속에서도

부모라는 이름은 언제나
제 자식을 위해
자신이 처한 환경을
행복으로
승화시킵니다.

그 절대적이며 애뜻한 사랑을
이제 조금이나마
이 어린 딸들은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두분의 사랑 만큼이나 따스한
5월의 한 가운데 서서
두분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는
이 순간도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긴 시간 중 일부분 이겠지요.

저에게 시간을 주신 분들.
사랑을 주신 분들
마음을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늘끝, 땅끝까지
푸르름으로 가득 메울만큼
언젠가 저도

두분과 같은 마음으로
두분을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 그 후론
죄송한 마음이
제 가슴을 메우겠지요...



차하

아버지의 촛불

김 소 현 (보영여자중학교 3년)

어제 저녁
 뜻 없이 던진 나의 투정 한마디
 술을 벗삼아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의 모습 앞에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철없는 투정질 하나에
 나의 멧 모르는 반항 하나에
 주름 더해가는 그분의 모습보며
 나는 고개를 숙입니다.

거울 앞에 앉아
 멧내기에 바쁜
 이 철부지 어린 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시는
 그분의 마음을

이제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어린 촛불이
 스치는 바람에
 꺼져 버리지는 않을까
 두 손 모아
 바람을 막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새벽 태양 떠오르면
 들녘 나아가
 이마의 땀방울도 개의치 않고
 지친 하루를 보내시는
 그러나 웃음 지으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온실 속의 아름다운 장미보다는
 차라리,
 들녘의 자유로운 한 포기 잡초가 되라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분은 내 삶의 테두리입니다.

이제,

이 철부지 못난 딸은

그분의 어두운 삶을

비춰드리는

작은 촛불이고 싶습니다.

작은 희망이고 싶습니다.



차하

아 버 지

김 우 진 (중앙중학교 3년)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항상 그곳에 머물러서

높은산 꼭대기에서
흐르는 강물을 말없이
바라보시네.

그 강물 계속해서
흐르게 해주시고,
마르지 않게 해주시니

내 그 산 바라보며
가본적 없는 푸른바다
찾아 떠나가리.



차하

사랑이 고마움을 느낄 때

최원희 (동두천여자중학교 3년)

이제는
석양 노을지는 슬픈 하늘을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한 채 체념으로 가득찬
당신의 삶을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언젠가는
저 또한
당신의 길을 걷게 되겠지요.

하지만, 전
당신의 길을 걷지 않으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당신을 남기려 합니다.

참되고 솔직하게
자라라는 당신의 가르침.
이것하나만은
당신을 남기려 합니다.

암흑과 같은 어둠속에서도
환히 비춰질
당신을 전
...인정합니다.

조금더 당신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조심스레 고개를 듭니다.

전 이 모든게
당신이였기에
참아내어 살아옴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려

아버지의 해

박 영 신 (중앙중학교 1년)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힘겨운 한숨 소리를

남몰래 흐르는
아름다운 눈물의 가치를

너무나 기뻐하신
하늘의 선물
자식 때문에

한평생 해바라기처럼
우리만 바라보며 사십니다.

이제는 그런 아버지를
나는 나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꽃이 되신
아버지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러니 이젠 꽃이 바라볼 수 있는
자랑찬 해가 되립니다.

장려

고마운 이에게

이 주 연 (보영여자중학교 3년)

어스름한 새벽
희미한 가로등 불 아래
혼자서 묵묵히
땀흘리는 이여.

오늘도 여전히
그 고독의 거리에서
버려진 양심을
말없이 쓸고 있네요.

이마에 맺힌
그 여운은
보람의 열매가 되어
불을 타고 흘러내리고,

먼지로 뒤엉켜진
아저씨 옷에서는
우리를 생각하는
질은 내음 퍼져갑니다.

하늘이 빛이 생기고
아저씨 모습 감추면
당신이 쓸고 간 자리
생기의 발걸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다시
사람의 이기심들이
무참히 버려지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검은 양심을 슬퍼하며
마음의 눈물을 흘리겠지요.

그리고
버려진 양심 주우시느라
애쓰고 계시겠지요.

아저씨!

당신의 고마움은
공기보다도 같은 것.

보이지 않기에
변함이 없기에
아무런 고마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고마움이
더욱 중요하고
더욱 소중한 것.

고맙습니다.
당신의 봉사정신에
고개를 숙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정신에
무릎을 꿇어 봅니다.

당신은...
말없이 웃고만 계실테지요.



장려

환경미화원 아저씨께 바치는 시

이 진 희 (보영여자중학교 2년)

5월의 화창한 하늘아래
세제탄 희미한 비눗물같은 새벽부터
우리들의 손이 닿지않는 곳까지
이곳저곳 숨어있는 온갖 쓰레기들을
초록빛 자가용에 싣고 가시는
환경미화원 아저씨

쓰레기들은
아저씨의 무기인 빗자루를
아주 무서워 하지만
아저씨는
미소로 쓰레기를 달래어
초록빛 자가용에 싣고 가신다.



장려

선생님과 태양

서강원 (신흥중학교 2년)

스승의 은혜는
저 하늘 높이 솟아 있는
따스한 태양같다.

태양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자기아래 품어 주듯이
자신의 아이 그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 정성과 눈물

밤이 되면 어둠 때문에
아침을 기다리는 햇살같이
자신의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안절부절 걱정을 금치 못한다.

스승의 은혜는
아주 맑고 투명한 물과도 같다.
티없이 맑은 물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선생님의 모습이 물 위에 떠오른다.

초 등 부

장원

소 요 산

조 현 아 (소요초등학교 6년)

깊은 산골짜기
줄줄 흐르는 자연아래

푸르고 푸른
나무밑 그늘아래

아이들 시끌벅적
그림, 글짓기를 하고

우리 마음은 벌써
저 하늘 구름위로 올라간
우리의 마음.

차상

어머니

박정은 (사동초등학교 4년)

사랑깃든 마음모아
책가방에 싸주시고

기분좋은 기쁨모아
도식탁에 넣어주고

그래도
허전하신 눈으로
바라보시는 어머니



차상

스승의 사랑

허승일 (사동초등학교 6년)

철판의 글씨가
늘어날수록

분필의 길이도
짧아지고

공책이 채워질수록
선생님 사랑은
깊어지네.



향토문화의 발자취

문화유적

사패지(賜牌地) 경계석(境界石)

향토유적 제1호-동두천시 생연동 379



<사패지 경계석>

사 패지 경계석의 위치는 조선 초기의 무신(武臣) 어유소(魚有沼 1434~1489) 장군이 1488년 국왕인 성종과 함께 어등산(御登山)에 올라 화살을 쏘아 맞춰 솔개가 떨어진 지점이라 하며, 이로 인하여 현 동두천시 일원(一圓)을 사패지로 주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전해온다.

이 무인석은 맞은편 생연초등학교 후문 우측의 무인석과 대좌향을 이루었다 하나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일설에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복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입구 양쪽에 세웠다는 설도 있다.

능안 마을의 밭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사패지 경계석은 일반 무인석보다 그 규모가 작으며 머리 부분은 6. 25사변 때 그 일부가 파손되어 탄흔(彈痕)이 역력하다.

규모는 높이가 140cm, 폭이 47~50cm이다.

목행선(睦行善)선생 묘(墓)

향토유적 제2호-동두천시 생연동 산 11번지



<목행선 선생 묘>

목 행선(1609~1661)선생은 조선중기의 문신(文臣)으로 자는 행지(行之), 호는 남간(南澗), 본관은 사천(泗川)이다.

인조8년(1630)에 진사가 되고 인조11년(1633)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성균과 전적(典籍), 예조 및 병조좌랑을 거쳐 인조14년(1636) 병자호란 때는 경기도사(京畿都事)로 있으면서 곤궁에 빠진 백성을 진휼(賑恤)하는데 공이 컸다.

묘는 배위(配位) 과평윤씨, 광주이씨와 합부(合祔) 되었고 묘 앞 중앙에는 묘비, 상석, 향로석 그리고 좌우에는 望柱石을 갖추었으며 묘역이 새로 단장되어 있다.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찬(撰)으로 된 원래의 묘비(좌측)는 백대리석으로 높이가 133cm, 폭 61cm, 두께 20cm이다.

비 앞면에는 6. 25배의 탄흔으로 판독이 어려울 정도여서 1985년 5월 새로 옥개를 얻은 비를 세웠는데 흑대리석 재료에 규모는 높이 150cm, 폭 55cm, 두께 24cm이다.

홍덕문(洪德文)선생 추모비(追慕碑)

향토유적 제3호 -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31



<홍덕문선생 추모비>

홍 덕문 선생은 이 고장이 낳은 한말의 애국지사로서 휘는 병준(秉俊),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1919년(己未) 3. 1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선생은 음력 2월 25일(동두천 장날) 정오에 1천여명의 군중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선생은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했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다.

그 후 출옥한 선생은 일본 헌병이 가한 형독(刑毒)으로 인하여 수년 후 향리인 결산동에서 세상을 떠났다.

1975년 당시 동두천읍 노인회 주관으로 독립유공자 추모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에 김석경(金錫卿) 옹을 추대, 읍민의 성금을 모아 이곳에 추모비를 세웠다. 화강암으로 된 비신의 앞면에는 애국지사 홍덕문 추모비라 음각했고, 뒷면에는 선생의 행적을 세졌다. 비의 규모는 : 총높이 188cm, 폭은 80cm, 두께는 22cm이다.

어유소(魚有沼) 장군묘(墓) 및 신도비(神道碑)

향토유적 제4호 - 동두천시 광암동 산70~2



<어유소 장군 묘>

어 유소(1434~1489) 장군은 조선 초기의 무신으로 자는 자유(子游),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세조 2년(1456) 무과에 장원한 후 세조 6년(1460) 야인(野人) 정벌에 큰 공을 세웠고 회령부사(會寧府使)를 거쳐 세조 13년(1467)에는 좌대장으로 이시애의 난을 평정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이 되어 예성군(藥城君)에 봉해지고 공조판서에 특진 되었다.

그 해 겨울 명나라가 건주위를 칠 때 좌대장으로 큰공을 세웠고 예종 원년(1469) 함경북도 절도사, 성종2년 좌리공신 4등이 되고, 두 차례나 영안북도 절도사를 지냈다, 이후 우참찬으로 도총관을 겸임했고 병조판서 우찬성을 지냈다.

성종 10년(1479) 건주위 정벌 때 서정대장으로 출전했으나 작전상 회군한 죄목으로 한때 유배되었다가 다시 풀려나 도총관 이조판서 동지중추부사, 영안도 순찰사를 역임했고, 성종 19년(1488) 판중추부사 겸 도총관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장(貞莊)이다.

성종 10년(1479) 건주위 정벌 때 서정대장으로 출전했으나 작전상 회군한 죄목으로 한때 유배되었다가 다시 풀려나 도총관 이조판서 동지중추부사, 영안도 순찰사를 역임했고, 성종 19년(1488) 판중추부사 겸 도총관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장(貞莊)이다.

묘는 배위 고령신씨의 묘가 부전(祔前)되어 있으며 묘 앞에는 묘비, 상석, 무인석이 갖추어져 있다.

봉분높이는 230cm이다.

신도비는 투구형의옥개석과 장방형의 대석이 있으며 비문은 어세검이 짓고 안침이 글을 썼으나 지금은 마모가 심하여 알아볼 수가 없고 다만 「貞莊公神道碑銘」이라는 전액만 남아있다.

신도비의 규모는 : 높이 158cm, 폭이 68cm, 두께는 20cm이다.

탑동석불 (塔洞石佛)

향토유적 제5호 - 동두천시 탑동 산168



<탑 동 석 불>

고려시대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자그마한 석불좌상이다.

지금으로부터 1백여년 전 이곳에 살던 주민 배기주와 이우삼이 어느날 꿈에 부처의 현몽, 다음날 이곳을 파보니 땅속에 미륵좌상 석불과 탑이 묻혀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이 건물을 세워 석불을 안치하고 극락암이라고 명명했는데 토지 소유자 이우삼이 일본인에게 탑을 매매한 후 이곳은 폐허가 된 채 석불만 남아있게 된 것이라 한다.

일설에는 고려말~조선초기의 대찰 회암사의 9암자중 하나가 위치했던 곳이라고도 전해온다. 마을 지명이 탑동이라 유래

하게 된 것도 바로 이곳에 탑과 석불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화강암의 석불좌상은 연화문이 선명히 조각된 대좌위에 항마좌(降魔坐)를 하고 있는데 육계와 삼도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나발에서 수인에 이르기까지 심한 마모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얼굴 부분은 온화한 느낌을 준다.

석불좌상의 높이 80cm, 최대높이 100cm이다.

석불 주위에는 기와장과 주춧돌이 산재되어 있다.

정사호(鄭賜湖)선생 墓 및 神道碑

향토유적 제6회-동두천시 안흥동 산21번지



정 사호(1553~1616)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몽여(夢與), 호는 화곡(禾谷),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장령 이주(以周)의 아들로 태어나 선조6년(1573) 사마시를 거쳐 선조10년(1577) 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주서, 호조, 좌랑, 안동부사, 호조참의 등을 지냈다.

선조35년(1602) 대사헌으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이듬해 황해도 관찰사가 되고 뒤이어 경상도, 평안도, 경기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1609년 선조가 죽자 이조참판으로 동지춘추관사를 겸하여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이어 한성판윤을 거쳐 광해군7년(1615) 형조판서에 올랐고, 얼마 뒤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글씨는 잘 써 당대에 많은 비문을 남겼다.

사후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묘 앞 중앙에는 「형조판서 겸 오위도총부도총관 정사호지묘」라고 쓴 묘비와 상석, 향로석, 그 좌우에는 석인, 문관석, 망주석 등이 설비되어 있다. 묘 측면에는 배위 창원유씨와 인천채씨의 묘가 있다. 한편 묘소 아래 약100m 지점에는 정사호 선생이 쓴 선고 성재 정이주 선생의 비가 오랜 세월이 마멸된 채로 서 있고 그 옆에 정사호 선생의 신도비가 있다. 비문은 유척기 찬(撰), 한익모 서(書), 이천보 전(篆)으로 되어 있으며, 비신의 규모는 높이가 153cm, 폭은 56cm, 두께는 29cm이다.

어유소(魚有沼)장군 사당(祀堂)

향토유적 제7호-동두천시 탐동(동점) 168



<어유소 장군 사당>

조 선 초기 세조, 성종대의 탁월한 무인 어유소(1434~1489) 장군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다.

본래 사당은 광암동(좌기골) 묘소 옆에 위치해 있었으나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의 수탈이 심해 현 위치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러나 본래의 건물은 6. 25사변때 불타 없어지고 최근에 현재와 같은 목조건물을 신축하고 막돌 흙담을 둘렀다.

사당 안에는 제상과 성종20년(1489)에 만들어져 전해 오는 오동나무 재료를 쓴 위패가 모셔져 있다.

위패는 가로 10cm, 세로 13cm의 규격이다.

자 재 암 (自在庵)

향토유적 제8호 -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



<소요산 자재암>

자 재암은 신라 선덕여왕 14년(645) 원효대사가 창건한 유서깊은 사찰로서 고려 광종25년(974) 왕명으로 각규대사가 중창했으며, 의종7년(1153) 화재를 당해 이듬해 각령선사가 대웅전과 요사 일부를 중건했다.

그 뒤 조선 고종9년(1872) 원공선사와 제암화상이 퇴락된 이 사찰을 44간의 건물로 복원하고 영원사라 개칭했다.

순종 원년(1907) 정미의병 때는 이곳이 의병 활동의 근거지였던 탓으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불태워졌다.

그 후 제암화상과 그의 제자 성파스님이 복원, 원래 이름인 자재암으로 고쳤다.

그러나 6. 25때 다시 폐허가 되어 1961년에 대웅전을, 1971년에 요사를, 1974년에는 포교당과 원효대를, 1977년에는 삼성각을 각각 건립했다.

경내와 주변에는 1980년에 조성한 석굴, 추담대사 사리탑, 속리고, 세심교가 있다.

최초의 창건자 원효대사가 수행하는 동안 요석공주가 이들 설총을 데리고 와 머물렀다는 요석공주 궁지와 사자암지, 소요사지, 현암지, 원효사지, 조선 태조 행궁지가 있다고 하나 그 위치는 알 수 없고 의상대, 나한대, 금송굴, 선녀탕, 선녀폭포, 청량폭포 등이 경관을 더해 주고 있다.

삼 충 단 (三忠壇)

향토유적 제9호 - 동두천시 상패동 105번지



<삼 충 단>

삼 충단은 조선 단종 원년(1453)부터 세조2년(1456)까지 세조의 왕위찬탈에 항거 단종의 복위 운동에 가담했던 민신(閔伸), 김문기(金文起), 조극관(趙克寬) 등 세 충신의 호패비를 모신 곳이다.

민신(?~1453)선생의 호는 둔암(遯菴), 본관은 여흥(驪興)이며, 문종때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단종 원년 계유정난때 현능 비역(碑役)을 감독하던 중 김종서의 일파라하여 비역소에서 참살 당했다. 정조때 복관되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김문기(?~1456)선생의 호는 백촌(白村), 본관은 금령으로 세종8년(1426)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검열 정언, 함길도 관찰사를 거쳐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세조2년(1456)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다가 처형되었는데 영조때 복관되니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조극관(?~1453) 선생의 본관은 양주(楊州)이다. 태종14년(1414) 문과에 급

제한 뒤 세종23년(1441) 우승지, 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문종원년(1451) 동지중추부사, 대사헌 우참찬을 지냈다. 단종원년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계유정난(1453) 때 김종서의 일파로 몰려 격살 되었다.

곡담 내 대리석 호패비들은 각각 높이 67cm, 폭 28cm, 두께 10cm이며, 삼층단의 규모는 정면 9.6m, 측면 7.2m다.

고령신씨(高靈申氏) 신도비군(神道碑群)

향토유적 제10호 - 동두천시 상패동 92



<고령신씨 신도비군>

고령신씨의 신도비군은 신용개, 신발, 신양 그리고 도로변 입구에 위치한 신익상 선생 등 네분이 포함된다.

신용개(申用漑 1463~1514) 선생의 호는 이낙당(李樂堂)이며, 조선초기의 명신 신숙주의 손자이다. 성종19년 별시문과에 급제 뒤 도승지 대제학 우참찬, 대사헌을 거쳐 이조, 병조, 예조의 판서, 우찬성을 역임했다. 다시 우의정이 되고 중종13년(1518) 좌의정에 올랐다.

비의 총 높이는 256cm, 폭은 85cm, 두께는 20cm이다.

신발(申撥 1523~1616) 선생의 자는 체백, 용개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여주(汝柱)이다. 효자의 아들로 천거받아 80세에 노인직으로 당상에 오르고, 90세에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비의 높이는 240cm, 폭은 82cm, 두께는 27cm이다.

신양(申滂 1596~1663) 선생의 호는 호은(湖隱), 발(撥)의 손자이며, 응구(應矩)의 아들이다. 사마시에 합격한 뒤 공조좌랑 구례현감을 지냈다.

신익상(申翼相 1634~1697) 선생의 자는 숙필, 호는 성재, 양(滂)의 아들이다. 현종2년(1661) 정시문과에 급제한 뒤 대사헌을 거쳐 숙종20년(1694) 공조판서, 이듬해 우의정에 올랐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비신의 높이는 285cm, 폭은 94cm, 두께는 90cm이며, 위에 옥개를 얹었다.

문 단

동천문단

- I. 산 문
- II. 시
- III. 교단문예

산문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장미자 (동두천시 생연4동)

김수환 추기경.

우리는 그를 가리켜 '우리 시대의 양심' '정신적 지주'라 말한다. 사회문제 또는 시국문제에 대하여 성직자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메시지를 발표하는 그의 모습을 가끔 TV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도전적이지도, 억센 억양도 아니면서 솔직 담백하고 명쾌한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어수룩한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친근감을 더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그의 글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를 구입하는 데는 조금의 망설임도 필요 없었다.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이 김수환 추기경이 카톨릭시보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65년부터 94년 현재까지 발표한 각종 기고문이나 강론, 메시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총집대성하여 재구성한 것이라 한다. 30여년 동안의 글모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하나 오늘의 세태에 딱 들어맞는 것이, 그의 예언자적 안목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내용 전반에 걸쳐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인간이 존엄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어찌보면 너무나 상투적인 말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짚아보라면 다섯손가락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렇듯 늘 익숙해 있으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사랑의 결여, 문제를 저자는 추상적인 외침이 아니라 가슴팍으로 스며들도록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지적해주고 있다.

또한 그가 말하는 사랑은 포괄적이다.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일 것이다. 이런 관계의 사랑이 인간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사는

뿌리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것에 관하여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여기에서 사랑을 마무리 짓지 않는다. 가족간의 사랑을 토대로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가난한 이, 저임금의 노동자, 장애인 등. 이들 모두 우리의 이웃이며, 더욱 끌어안아야 할 사람들임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가?’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이런 회의와 반성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가난은 가난 그 자체로서 문제되기 보다는 고르지 못한 데서 문제되는 것이라 한다. 즉,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은 서로 나누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나누는 것에 인색한가? 또 얼마나 이기적인가?

추기경은 가진 이들부터 나눔의 실천을 통해 거듭 태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부자는 빈자에게, 정상인은 장애인에게, 건강한 이는 병든이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나눔이야말로 저자가 강조하는 ‘인간 사랑’이 바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에는 「말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읽는 동안 어느 영화에서 보았던 대사가 생각났다. “항의해야 할 때에 침묵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죄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정치·경제·언론·문화·노동 그리고 국민 모두의 당면 과제인 통일에 관하여 소신있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 인사, 그리고 모든 국민이 가슴에 새겨야 할 명쾌한 조언을 함에 그는 조금도 서슴치 않고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는다.

이 책의 막바지를 읽는 동안 김수환 추기경에게 더욱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종교인이면서, 더구나 카톨릭교의 대주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종교계, 특히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솔직한 반성을 토대로 비판한 점이다. 종교인에 대한 사회의 규탄에 대하여 오히려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보다 더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뜨고, 그의 복음으로 복귀하는 계기와 채찍이 된다고.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역경을 하나의 밀씨가 떨어져서 싹이 트면 거기에서 많은 결실을 얻는 과정, 생명 성장의 과정으로 볼 때 행복과 완성이 있다는 그의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가치있고 희망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누구나 한 때에는 인간의 진짜 척추라 믿고 애써 간직하려 했던 귀한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개개인의 마음 속에 소유한 아름다운 정신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밖으로 던져버리기가 일쑤이다. 한 가정을 지키는 주부가 되어 생활 속에 부대끼다보니 가끔 그런 위험을 느낀다. 새내기 주부로서 타성에 젖은 기성세대가 되기 전에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집을 보면 평범한 한 가정으로서 자식들과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지녔던 김수환 추기경, 그래서 더욱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친근감을 주는 그의 조언 하나하나는 더 깊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었으리라.



꿈꾸는 자의 행복

정인숙 (동두천 하봉암동)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라는 동화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는 기발한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야기속의 주인공 앨리스는 어디론가 서둘러 가고 있는 토끼를 따라 갔다가 길을 잃고 그만 울어 버리는데 그녀가 흘린 눈물로 집이 온통 눈물로 가득 차 오르고, 가든 파티를 하고 있는 곳에 가 보았더니 거기서도 차를 마시며 도통 앞뒤가 안맞는 대화를 하고 있다. 절대군주로 군림하는 여왕은 홍학의 다리를 잡고 고슴도치를 공으로 치며 크리켓 경기를 시키고 또 트럼프 그림 속의 근위병들은 여왕의 명령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그녀를 공격한다. 얼마나 황당스런 이야기인지... 그러나 그것이 다 잠깐 잠이 든 꿈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며 그 황당무계를 정당화 하면서 작자는 이야기의 끝을 맺는다.

우리들 모두는 꿈을 꾸며 산다. 자면서 꾸는 꿈이든. 자신의 이상(理想)이든...

나는 비교적 꿈이 많은 편에 속한다. 때로는 오늘밤엔 무슨 꿈을 꾸게 될까 하고 잠자리에 들기전에 은근히 기대해 본다. 또 꿈을 꾸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건 꿈이니까 깨고 나면 잊어버릴지도 모르니 잘 기억해 두어야지'하며 꿈의 장면과 그 전개를 조심스럽게 되짚어 보곤 한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는 항상 꿈을 기억해 내려고 애쓰고 그 의미를 곰곰 생각해 보고 미심쩍은 부분은 더러 남에게 묻기도 한다. 그래도 꿈의 상징성이나 의미에 궁금증이 생기면 해몽책까지 뒤져 보기도 하니 나의 꿈에 대한 의존도나 집착은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십대 초반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입문> 이란 책과 더불어 <꿈의 분석> 이란 책을 사서 주야로 탐독했던 것을 보면 나의, 정신세계와 자면서 경험하는

또 다른 세계_꿈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다.

그러나 꿈이야 어찌됐던 길흥의 여부에 기분이 좌지우지되어 중요한 일을 그르친 적이 없으니 그리 염려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현실이 아닌 잠속에서 무의식과 의식을 넘나들며 겪는 불가사의한 정신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들여다 보고 싶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그런 관심의 차원인 것이다.

가끔은 칼라로도 꿈을 꾸 현실세계에서 보다 더 현란한 빛과 색채의 향연을 즐기기도 하고 유창한 외국어로 외국인과 자유자재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니 그것이야말로 꿈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지금은 그래도 운전면허 따답시고 학원에 다니며 핸들이라도 만져보고 악셀레이터며 클러치가 무엇인지 알아 그 자동차라는 물건을 굴러가게 하는 재주를 조금은 익힌 바지만 (주행시험에서 두 번 낙방한 후 합격할 때까지 나는 재수는 필수요, 삼수는 기본, 사수는 예의라고 떠들고 다녔다.) 운전을 어떻게 하는건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신나게 달리는 꿈을 꾸준히 있는데 그때의 그 기분은 분명 현실속에선 맛 볼 수 없는 기분이었기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의심하며 애꿎은 허벅지를 꼬집지는 않고 다만 그 기분만을 즐겼을 뿐이다.

인간은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학계의 권위자들 학설이 있고 보면, 꿈이 많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나는 사실 잠에서 깨어나서도 늘 피곤하다. 다른 병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면서 계속적으로 꿈의 세계를 돌아 다니느라 밤새 의식이 깨어 있으니..., 그건 내가 살아 있다는 징조이기도 하다.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진 않겠지.

어릴적 나의 꿈은 그 누구나처럼 간호원이 되는 것이었다. 그 후 조금 커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혹시 재수가 좋으면 돈이 많은 부자가 되거나, 영화배우나 유명한 탈렌트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

군인으로 일생을 보내셨던 선친은 생전에 내게 내가 간호장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의 소망을 피력하셨다. 그땐 이미 내 나름대로의 확고한 꿈이 있었기에 나는 당신의 소망에 부응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시험만이라도 보라는 간곡한 청만은 뿌리칠 수 없어, 너무도 빠른 결과가 나타날 것일 줄 알면서도 국군 간호사관학교 시험을 보았다.

장차 작가가 되리라는 생각에 밤이나 낮이나 책만 읽어대고, 읽고 싶은 책을 사기 위해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스스로 번 작은 돈으로는 새책을 살 엄두도 못 낸채 단골서점의 헌책만을 사서보던 나의 이과 성적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시던 아버지는 나의 실력을 과대평가 하셨던 모양이다. 결과는 너무도 뻔해 낙방을 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얀 간호원 캡을 쓴 간호장교 딸을 보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어찌되었든 나름대로 내가 선택한 길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아주실 그 분이 안 계시는 지금, 삼십대 후반의 나는 가끔 가슴이 아프다.

‘무엇이 되고 싶다’라든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나 꿈은 누구든지 갖고 산다. 문제는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이나 바라는 바의 실현을 위해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꿈만 꿀것이 아니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의 과제다.

요즈음의 나는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최면을 건다. 일이 안풀리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는데 잠자리에 들기전까지도 해소시키지 못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자나라의 공주다. 잠자리 날개같은 잠옷을 입고 실크로 만든 이불에 참새의 속털로 만든 폭신한 침대에 누워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한다. 내일은 나의 결혼식이다. 잘생기고 용기있는 왕자가 나를 맞으러 오기로 되어 있다. 그는 수많은 나라의 젊고 어여쁜 공주들 중에서 나를 자신의 신부감으로 골랐다. 나는 너무도 행복하다.’며 한껏 상상의 나래를 펴고 기분을 북돋운다. ‘주위엔 은은한 촛불들이 켜 있고 향내가 가득한 침실 저편에는 내일 입을 웨딩드레스가 보석처럼 반짝인다…’

누워서 이런 상상을 하는 사이에 어느덧 잠이 든다. 눈을 뜨면 무정한 아침의 햇살이 각박한 현실의 세계로 또 다시 나를 떠밀지라도….

상상은 돈이 안든다. 그리고 힘든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잠을 자려고 한 마리, 두 마리 하고 양을 세는 것 보아야 낮지 않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없고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왕자가 아니라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나의 밤에만 오는 이 공주병 증세는 ‘...내일 입을 웨딩드레스가 보석처럼 반짝이고...’까지다. 그 이상이 아닌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것이 꿈과 상상이 잠자리에 함께 할 때의 한계인 것 같다.

오늘도 나는 내일의 희망을 안고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리고는 꿈속에서나마 오늘에 이르도록 이루지 못한 나의 이런 저런, 작고 큰 소망들을 이루어 보기를 기대한다.

잠의 여신이어, 나의 눈에 모래를 뿌리소서.

신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노니.



참 효 (孝)

강 현 창 (동두천고등학교 2년)

『시 경소아(詩經小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시 「어머니 저를 낳으시고, 아버지 저를 기르시니,
 쓰다듬어 길러 주시고, 키워 주시고, 가르쳐 주셨네.
 거둬서 거둬서 살펴 주시고, 나고 들며 안아 주셨네.
 이 은혜 갚고자 하나 하늘처럼 높고 넓도다.』

윗 글은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다 보답하지 못할만큼 헤아릴 수조차 없이 크고 넓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아버이를 공경하는 마음. 바로 효(孝)일 것이다. 한문의 유래에서처럼 아버이를 제 몸같이 아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작년에 일어 났다. 바로 한 미국 유학생이 친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말도 안되는 사건이었다. 유복한 가정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난 그는 기막히게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산가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음에까지 몰아 버린 것이었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있을까?

효자로 꼽히는 증자나 심청이는 되지 못할망정 자기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제 아버이를 죽이다니...

아마도 효자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공·장자(孔·長子) 사상이 무너져 가고, 윤리도덕이 부재한 까닭이 아닌가 한다.

한적한 곳 벤치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주름살에 하나 씩 배어나는 그 슬픔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쌓아오신 땀인 것이다.

자식들에게 완전하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부모님, 우리는 따뜻한 마음 하

나라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땀을 헛되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이 없다」는 옛말은 옛말일 뿐이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일 바로 효(孝)에 있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영원한 테마. 효(孝).

바로 우리 세대가 짊어지고 일어서야 할 숙제인 것이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 효를 다하자.



겨울의 철학

서 태 원 (동두천중학교 2년)

겨울은 남중고도의 높이가 높아져서 날씨가 추워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다 떠나 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몹시 추워하고 있다. 몇해전 하늘나라로 가신 할머니, 얼굴도 못 본 할아버지, 추운 겨울, 서리가 내리듯 그들은 어느새 내 곁에서 떠나시고 없었다.

나는 머리를 깎을 때 우리 학교 옆 이발관을 찾아간다. 그곳에는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발을 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 할아버지가 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느새 나는 어린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느끼곤 한다. 그 기분이 좋다.

나는 나의 고향 동두천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뜨겁던 애정과 사랑스러움도 식어 간다. 풀 냄새, 쇠똥 냄새나던 나의 고향은 점점 도시가 되어 가면서 그 아름답던 미풍을 잃어 가고 있다. 어릴 적 물장구치고, 뛰어놀았던 나의 고향이자, 죽마고우인 동두천을 사랑한다.

벌써 오십길에 접어든 나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 피땀 흘리셨고, 노력하셨다. 그 이유에 나는 더욱더 부담이 생긴다. 어릴적,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기억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몇 달전 아버지는 심장수술을 받으셨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에서 중환자실에 있던 아버지가 가장 보고 싶어하던 사람은 나였다. 나는 아버지께 감사했다. 아버지가 떠나셨더라면 아마 나는 인생의 갈래의 반대편에 서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나와 생을 같이할 나의 아버지가 내곁을 떠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우리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분 계신다. 그분은 매를 들지 않으신다. 절대 그 이유로 그 분을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분은 인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 아이들과의 벽을 허물려고 노력하신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직업에 보람을 느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역력하다.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그분의 그 모습이 언제까지라도 빛 바래지 않는 것이다. 그분의 정직함, 겸손함,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를 본받고 싶다. 일년만 있으면 졸업이다. 그 분의 따뜻함을 간직하고 싶다.

사람이 태어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 견디어 내기 힘들때에 필요한 것은 벗이다. 나에게도 그런 벗이 하나 있다. 녀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따돌림을 받던 그 녀석을 나만은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우린 8년간 같이 자라면서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이가 됐다.

나의 곁에는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찬바람이 부는 이 겨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도 내가 껏껏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독후감

격몽요결

안 현 아 (동두천여자중학교 1년)

이 책은 요즘 사람이라면 모두 한 번쯤 읽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학문은 정말 중요하단 생각이다.

이 책에서도 나왔듯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머리속에 들은 지식은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머리속에 재산을 채워야 한다. 그 재산은 쓴다고 줄지않고 남이 도둑질 해 갈 수도 없다.

요즘 사람들은 효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학문을 닦는다.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뜻만 있어선 안된다. 바른 몸가짐을 갖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고, 세상을 바르게 산다. 우리들은 방학때마다 생활 계획표를 짠다. 하지만 잘 지키고 있지 않다. 그 사소한 것도 잘 못지키며 큰 뜻을 어떻게 세울까?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내일로 미루게 된다. 나도 방학숙제를 내일 내일 하다가 개학이 코앞에 닥쳐 있을 때 부리나케 한다. 이렇게 시간을 허무하게 보낸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 그 일에만 몰두하여야 한다.

옛말에 '예가 아니면 보지 말아라. 예가 아니거든 듣지도 말아라. 예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아라. 예가 아니거든 행하지 말아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예는 옛날 부터 중히 여겨져 왔다. 예도 학문의 일종인 것이다.

우린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 '책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처럼 글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 글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마음과 자세를 곧게 하고 뜻을 깊이 헤아리며 입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사람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잘 하지 못한다. 부모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자식들을 보호하며 사랑으로 감싸주시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 부모의 마음과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책 내용중 고려장 이야기가 있다.

늙은 아버지를 지게로 내다 버렸는데 같이 온 사나이 아들이 지게를 가져와 후년 아버지가 할아버지처럼 되었을 때 써야겠다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뉘우친 사나이는 아버지를 데려와 잘 모셨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공경보다 지나치면 버릇없는 자식이 되기 쉽다. 요즘에는 부모님에게 반말을 쓴다. 나쁜점이지만 나도 그렇다. 그게 더 편하고 부모자식간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이 책에서도 얘기 한다.

청돌이는 엄마 말과 반대로 행동한다. 엄마가 병으로 죽으면서 강에다 묻으라고 했다. 거꾸로 할 줄 알았던 청돌이가 뉘우치고 말을 들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철이 없기도 하다. 형제는 부모로부터 받은 한몸과 같은 사람이다. 옛날에는 그만큼 우애가 깊었다. 나는 언니와 매일 싸우지만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으면서 잘 지낸다.

사람들은 모이면 그곳에 없는 사람의 욕을 한다. 나도 그렇다. 얘길 하다 보면 할애기, 못할애기 구분을 못하게 된다. 허나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내가 잘못한게 있으니까 남이 날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다.

스스로 반성하자. 세상을 바로 살기 위해선 이웃과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이웃과 담쌓고 산다면 정작 내가 어려울 때 도움 청할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봄날 사자가 낮잠자는데 쥐가 잠을 깨우고 말했다. 사자는 화가 났지만 쥐가 살려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 사자는 비웃었지만 놓아 주었다. 며칠후 사자 울음 소리가 들려 쥐가 가보니 사자가 뒷에 걸려 쥐가 밧줄을 끊어 주어 사자가 살았다. 그 때 사자가 쥐를 먹었다면 사자가 죽었을 것이다.

사람은 돕고 살아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면 어렵다.

사람들은 공부할 여건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맘만 먹으면 안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맘만 먹어선 안된다.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행동과 많이 비교를 하였다. 내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학문 속에는 모든 것이 속한다. 부모 공경과 형제간의 우애 등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여지는 행동등도 이에 속한다. 그러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도하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세울 것이다.

현대사회의 부모와 자식관계

이 만 영 (보영여자중학교 3년)

감히 현대 사회를 '인간성이 메마른 사회'라고 부른다. 모든 것이 편리화 되어감에 따라 인간관계까지 편리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의 직장 동료나 이웃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볼 수 있었던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부모와 자식은 과거와 달리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서로 자신의 단점은 보지 못하고 서로가 더 나아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런 것이 심해질수록 가정은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요즘 신문을 보면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자식이 자기 부모를 죽이고도 죄의식 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와서 학원에 갔다 밤늦은 시간이 되어야 돌아오고, 부모 또한 직장 생활로 아이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일과 속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진정한 대화가 과연 몇번이나 오갈 수 있을까. 서로의 무관심과 바쁜 일과 속에 현대의 부모와 자식관계는 어느덧 이 메마른 사회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과거 가부장 시대의 부모와 자식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았다. 아버지의 말씀은 법과도 같았으며, 어기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부모는 자식의 교육을 담당하고 제일 첫 번으로 경험하는 사회인 만큼 중요시 되었다. 어머니 또한 정성과 사랑으로 아이들의 옷과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시는 동안에 자식들에 대한 사랑 또한 깊어졌다. 자식들 또한 부모를 효로써 섬겼으며, 부모님 어려운 줄을 알았다.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과거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과거 사회로부터 현대 사회로 사회가 변화하는 동안 전통사회에선 너무나 중요시 되었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과거의 자식은 부모에게는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까지 효를 실천에 옮겼다. 하지만 현대의 자식들은 어떠한가? 부모에게 대들지를 않나,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가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만을 골라서 하는 아이도 많다. 과연 현대의 아이들과 부모간의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있을까?

현대의 메말라 버린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첫 번째로 부모와 자식간의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하겠다.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멀어진 관계를 조금은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을 터놓고 숨기는 것 없이 다 말한다면 서로에 관한 의심이 풀어지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대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그것에 몰두 한다면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사랑이 메말라 버린 가족관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대사회가 인간성이 메말라버린 사회라면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이 사회의 희생 양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변해버린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과거 사회의 부모와 자식관계가 좋은 점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 사회의 메마른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좀 더 나아진다면 과거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보다 훨씬 서로를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너무나도 형식에 치우쳤고 너무나도 딱딱했다고 본다. 현대에서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 준다면 부모와 자식관계를 초월한 친구사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서로가 서로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산문

할머니 사시던 고향은

송 미사엘 (생연초등학교 3년)

강가에서 빨래하실 때 물이 생각나면 양손으로 강물을 떠서 드시던 전설의 고향.
 매미, 귀뚜라미, 물, 벌레소리 어우러져 합창하던 그 곳.
 바람, 물, 새, 짐승, 나무 만이 전부였던 깊은 산 속의 사찰.
 고전 소설에서나 읽을 수 있는 옛 이야기가 되어 버린 볼 수 없는 곳. 자연은
 항상 우리 곁에 묵묵히 서 있는데 때리고 꼬집어 짓밟아 상처를 입히는가!
 물고기가 뛰놀고 강물엔 자갈이 흰히 보이던 곳. 검정색 물감이 되어 버렸고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춤을 추던 곳, 미술시간은 하늘색 칠하기가 가장 힘
 들게 변해만 간다.

산을 방문하면 빛바랜 종이조각이 날리고, 담배꽁초 여기저기 보이고, 비닐 봉
 지는 땅 속에 묻혀 있고 보이는 곳마다 쓰레기가 먼저 반긴다.

자연은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고 한다. 빌려 왔으면 고장은 내지 말아야지, 여
 기저기 찢고 할퀴어 손톱자국, 핏자국을 남겨 어떻게 돌려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
 다.

나는 요즘 빨래 비누로 머리를 감고 식초로 헹구어 낸다. 샴푸와 린스를 사용
 할 때보다 다소 불편하고 짜증스럽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고 버리는 물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란 생각이 드니 마음이 깨끗해지는 듯 했다.

어머니는 분리수거를 하신다며 매일 종이, 병, 부엌용 쓰레기를 따로따로 보관
 하셨다 버리신다. 동생들과 나도 다 쓴 공책은 종이함에 넣는 것을 꼭 실천한다.

아빠는 낚시를 무척 좋아 하신다. '낚시를 하면 물이 오염이 된다'고 하시면서
 요즘은 거의 다니지 않으신다.

가족과 산과 들을 찾을 때면 항상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가 주위의 지저분한
 모든 것을 우리 차에 싣고 오곤 한다. 식목일 날은 한 그루의 나무라도 손수 심

어 봐야 된다시며 아버지께서는 묘목을 사 가지고 오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산에다 심어 주셨다.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다.’

나무를 심고 내려오는 길에 나무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나무 사이 사이를 조심히 내려오게 되었다. 아빠가

“좋은 경험했지?”

하시면서 나의 이마의 땀을 닦아 주실 때 시원한 바람이 어느새 산 위에서 나에게 불어와 머리를 날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산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꽃노래가 저절로 흘러 나왔다.

우리 가족은 하나, 둘 씩 실천하는 일이 할머니가 사셨던 그리운 고향, 꿈에서 나 볼 수 있는 그 곳에 한 발짝 앞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산문

자랑스런 우리 아버지

노 정 미 (생연초등학교 6년)

우리 아버지께서는 슈퍼를 하고 계신다. 살아가는 데는 별로 힘들지 않다. 그만큼 아버지께서 맘을 많이 흘리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벌써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보이기 시작하신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신다.

벌써 마흔이란 연세가 되셨다. 새삼 내가 컸다는 걸 느끼실 때면 괜히 쓸쓸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6살짜리 동생 덕택에 우리 가족은 언제나 웃음이 넘친다. 항상 걱정은 혼자 어깨에 메고 계시는 아버지 짐을 이제는 내가 하나 둘씩 덜어 드려야겠다. 나, 내동생, 엄마를 짊어지고 살아 가시는 아버지의 어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다. 아버지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으며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어서 걱정을 하신다. 하지만 내가 이룰 못지 않게 잘 해 드릴 자신이 있다. 또 크면 아버지를 꼭 모시고 살거다.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뒤에서 조용히 밀어 주실 우리 아버지, 은혜 잊지 않고 꼭 보답해 드리겠다. 자신보다 가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 가시는 우리 아버지는 비록 돈이 많지도, 아주 건강하시지도 못하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훌륭하고 자랑스럽다.

난 이런 아버지를 두어서 정말 행복하다.

예수를 바라보며

강 신 복

빛 바랜 포장지 속에
아롱다롱 추억이 그득히 쌓였다.
허술한 자락 사이 뼈죽이 보인다.
금새 터질 것 같은 석류알처럼

追憶이 영상처럼 밀려온다.
소중했던 무거운 짐들
스잔한 가을 찬바람처럼
힘없이 떨리는 이슬 방울처럼

잠시 지나가는 세월 자락을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을 어찌리
예수를 바라 보는
거울에 비쳐진 나의 얼굴을.



가을에는

김 동 순

그대
가을에는
마당을 쓸어 두고
기다려요.

잊어버린 추억들이
낙엽되어
다녀갈지 몰라요.

그대
가을밤에는
창을 열어 두고
기다려요.

아직도 먼 우리 사랑이
은밀한 빛 되어
차오를지 몰라요.

그대
가을에는
가을에는
비워 놓아요.

창공을 긋고 일어서는
기러기의 그리운 소리
들려줄지 몰라요.

어느날 밤에

박 문 희

흐느끼는 선율은
빗줄기
가슴에 촉촉히 젖어두고

불 밝혀진 촛대는
먼지를 떨궈 내는데

빈 마음으로 선
나는
눈부신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흘러, 흘러 나오는
가야금 산조는
후회의 눈물
추억속에 다시 흐르고

빛 바랜 꿈은
비늘조차 떨어진 채
온종일 비를 맞고 있습니다.

두눈 꼬옥 감아버린
일상의 시계가
잔상으로 남아
재촉 하는데

세찬 빗 줄기에
여지없이 젖어드는 나의 육신처럼

그리움만
요란스레 흔들어 깨웁니다.



포 장

이 은 경

포장된 하루
 천(天)
 지(地)
 간(間)
 인간(人間)
 오직 삶의 정착을 향한 애뜻한 몸부림

포장된 도로,
 그것만으로도 인생행로와는
 전혀 관계 없는 위의 세계
 애정 품은 모든 인생들의 희망사항인듯.

포장된 하늘
 그리 높지도 얇으면서 잡을 수 없는 것은
 가로막은 것도 없는데
 밟은 땅마저 없어서란 말인가?

나!
 그렇게 사육된 비둘기처럼
 포장에 사육되어져야 안전하단 그 진실 앞에
 어이없이 돌아누워 뱉는 말...

젓가슴이어라
 젓
 가
 슴
 이어라...

길

조 순 자

욕망의 정착지 찾아 달린 길
날개 달고 헤쳐 나가도 끝이 없는 길
짙은 안개 속에 갇은 것은 허무함.

집착의 끈끈한 욕심이 찾은 길
해질 녘 가을밤에 뒹구는 낙엽진 길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닌 허탈감.

인내로 교육에 진실을 쏟은 언덕길
영혼의 일부가 살아 숨쉬는 열매가 있는 길
가슴 가득 한아름 안겨 오는 벽찬 환희



북에서 온 홍수

최영숙

하늘빛이 맑아
조용하고
평화가 잔잔히 흐르던
田園都市 蓮川이어.

水魔가 할퀴고간 자리
넋없고 앉아
기가 막힌 水災民은
失語症을 앓고

바다도 아니면서
떨물도 아니면서
田畚은 갯벌이 되어
家屋은 廢墟가 되어

殺人적인 暴雨에
어이 茫然自失 앓으리
怨望 한들
天災地變 인 것을

歲月가도 못잊어
南쪽 하늘 바라보다
半世紀 그리던 恨
흙물되어 찾아온건 아닐는지.

나목을 읽고 나서

김 기 애 (동두천여상 2년)

현실에 소리치고 싶고
반복되는 기억들이 싫었다.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

어머니가 끓인 김치국이 싫고
어둠 속의 물건들이 소름끼쳤다.
환쟁이들의 세상에 대한 투정도
어머니의 슬픔없는 마지막도
그녀에겐 의미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려고 했다.

현실이 선에서 벗어나고
양심의 원에서 뛰쳐 나왔다.
그러나 그녀가 있는 곳은 현실이었다.
지금 그녀가 사랑하여야
하는 것은 현실이었다.

항아리와 추억

김 성 은 (동두천여상 3년)

흘러가는 시간을 담을 수 있다면
나 예쁜 항아리에
추억 담으리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늘에
푸르름을 선물하고 싶다.

정든 교정을 떠나는 날
따스함을 가슴으로 느끼며
햇살이 가득해도 좋을꺼야.

우리들의 흘러가는 이야기는
예쁜 항아리 속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우리들은 노을에 노을을 태운다

유 혜 정 (동두천여상 1년)

창 밖은 노을에 젖어 붉은데
우리는 고개한번 드는것도 허용해 주지 않는
네모난 책상 안에만 갇혀
오늘도 하늘 노을속에 태워간다.

어른들은 곧잘 이렇게 말한다.
지금같은 세상에 공부보다 쉬운게 어디 있냐고
너같이 공부 못하는 놈을 어디에 써먹냐고
지발 니가 공부 잘해서 에미 소원 풀고 집안짐
일으키라고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만 이렇게
반박한다.
능력있는 정치가나 부자들이 공부로 성공한 거냐고
인기있는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들이 공부 잘했냐고

이제 막 땅을 헤치고 올라와 푸른 빛을 반짝였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작은 꿈은
햇빛을 찾지 못해 잎을 다 퍼기도 전에
어둠속에서 빛을 잃고 시들어 버렸다.

창밖은 노을에 젖어 온통 붉은데
이미 우리는 창밖 노을의 빛깔은 잊은지
오래여서
대신 노을을 영어로 외우고 노을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하루를 노을 속에 노을과 함께 태워 버린다.

익명의 섬

전 애 영 (동두천여상 1년)

언제나 반복되는 시간들 사이에서
조금 더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장박감으로
오히려 무의미하게 보내는 나날들이
우리에게겐 벽차기만 하고

우리 수많은 좌표 속에서
최선을 외치지만
그들은 최고만을 위하여
힘들게 지쳐버린
이름없는 익명의 섬이 되고



잊는다는 건...

조 승 미 (동두천여상 1년)

언제나 나의 마음엔 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베어버릴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나무입니다.
어느날 나는 그 나무를 베어 버렸습니다.

나의 마음엔 베어진 나무 밑둥 뿐입니다.
언젠가는 그 밑둥까지 뽑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움이 슬픔이 되고 슬픔이 아픔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무를 베는 아픔보다 그 아픔이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난 베어진 나무입니다.



부 모

지 룡 (동두천중학교 2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문득
돌아다보면
나는 따뜻한
격려속에 살고 있다.

절망의 끝에서
실망의 끝에서
돌아보면
변함없는 희망의 빛이 기다리고 있고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포근하게 인자하게
들리는 그 음성이 나를 위로하여 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마다
느껴지는
내가 아닌
다른
기쁨과 슬픔이 있다.

내 삶의 격려자.
내 인생의 보호자.
나의 길잡이,
태양보다도 찬란히
나의 길을 비추고 있다.

가을 하늘

김기선 (동두천여중 2년)

파아란 하늘 아니어도 좋아라
빨간 고추잠자리때 날고있는 하늘
아니어도 좋아라
생각하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 그려보아라
그런게 바로
너의 가을이란다.
그것이 바로
너의 하늘이란다.

세상이 가을하늘을
꾸며주는구나
붉게... 푸르게...
눈을 감고
세상을 그려보아라
가을을 날고있는 하늘이
세상의 꿈이란다.

낙엽 떨어지는 하늘
아니어도 좋아라
기억속에 남아있는 깊은 추억
아니어도 좋아라
느끼는 감정 그대로
떠올려 보아라
그런게 바로
너의 희망이란다
그것이 바로
너의 추억이란다.

산 새

주 현 정 (보영여중 3년)

울창한 가지사이로 햇살이 밀려들 때
하루의 시작 알리는 작은 목소리

철새없는 날개짓에
보금자리 부리로 끈게 엮어 놓고

그 속에 몸을 맡겨 노래를 부른다.

지나가던 산들바람 그 소리 듣고는
나뭇잎 사이에 사뿐히 앉아

조그만 목청으로 내뿜는 그 소리에
시원한 함박웃음 지어 보낸다.

세월의 흔적을 물씬 보여주듯
보금자리 어느새 양증맞은 요정들

어미가 물어다준 사랑을 안으며
산 속의 귀여움을 독차지 한다.

그러나 질투하는 날카로운 눈빛은
나무를 감고 올라와 맹독의 죽음을 부른다.

은으로 수놓은 접시가 깨뜨려지듯
어미는 구슬픈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린다.

자라나는 우정의 키

이 지 혜 (동두천여자중학교 2년)

내 친구의 키는 155cm

내 우정의 키는?...

친구와 한 번 웃을때마다

내 우정의 키는 한뼘 자라고

친구와 한 번 다들때마다

내 우정의 키는 두뼘 자라난다.

그들과 내가 서로 웃을 때

우리 우정의 키는

마음으로 느껴지며...

그들과 내가 서로 도우며

서로를 위해 물어줄 때

우리의 우정은

마음에서 자라난다.

지금,

나와 내 친구의 키는 작아도

우리의 우정의 키는

세상 무엇보다도 높을 것이다.

지나가던 산들바람 그소리 듣고는

나뭇잎 사이에 힘없이 앉아

하염없이 슬퍼하는 그모습 보며

싸늘한 기운만을 남겨 보낸다.

낙엽

김현민 (소요초등학교 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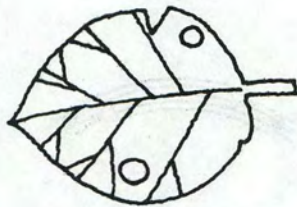
파랗던 나뭇잎
누래져 떨어지고

여름에 함께 놀던
친구들이 나뭇잎에 담겨 있다.

겨울에 다시 온
흰 눈땀에 자리를 양보하는 건가

나뭇잎에 담겨있는
웃음소리, 다투는 소리를 주웠다

책갈피에 끼웠다가
곱게 전해줘야 겠다.



들 녘

임 은 지 (소요초등학교 6년)

이른 아침 들녘을 돌 때,
햇님이 막 잠을 깨고 나온다.
고운 볼에 붉게 화장한 들꽃,
방긋 웃으며 아침인사하고.
풀잎마다 맑게 맺힌 이슬
거울처럼 온세상을 밝게 비춘다.

이른 저녁 들녘을 돌 때,
햇님이 막 산으로 숨는다.
붕우리 단고 살포시 자는 들꽃,
이슬 맺을 준비하고
풀잎마다 밝게 비춰주는 반딧불
이세상 모든 어린이 마음을
밝게 밝게 비춰준다.



머무르고 싶은 순간들

김 영 태 (동두천여상 교사)

校庭에 휘날리는 낙엽...
잔가지에서 끝맺음을 아쉬워 하며
에처롭게 몸짓하는 가을의 잔해!
그들을 사랑하며
희미한 아쉬움에 몸을 움츠린다.

처음 시작할 때의 새로움과 꿈들은
마냥 푸르렀고
순간을 맞이하는 마음의 작은 희열들은
살아있는 보석이었다.

태양이 빛나는 아스팔트의 열기로
정열을 불태웠고

푸르름이 지배하는 날의
사랑과 우정을 꾸미던 시절들을
젊은날의 추억을 새기기 위한
너와 나의 몸부림 이었다.

지금 또 다른 시작의 霧點에 서서
남아있는 모든 흔적들을 기억하고픈
오늘도 노을진 하늘을 바라다 본다.

소요산 향기들

박혜련 (보영여자중학교 교사)

당신의 입김으로 온 자연을 감싸게 하시고
 자연의 촉촉함이 나의 가슴으로 스며드누나.
 하루 하루의 변화하는 모습이 더욱 더
 매력있는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친구들,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어린이가 된다.
 더욱 더 예쁘고 고운 소녀가 된다.
 행여 자연 속에 내 모습이 자연을 덜 예쁘게 할까 조심스럽다.
 단풍잎들을 하나 하나 주워 나의 사랑 만들자.
 입김 속에 잠겨 있는 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자연 친구들을 더욱 생기있고 곱게 반짝이게 한다.
 소프라노 새들은 아침 식사 준비에 부산하다.

하늘 빛 구름의 미소에
 가을 옷을 입으신 자연님이시여,
 당신앞에선 모두 당신의 어린이가 됩니다.
 인간의 좁은 마음, 괴로운 마음, 모두 감싸주시는
 그 크신 마음이여,
 당신은 우리에게 맑음과 아름다움을 주시는 착한님이신데
 저희는 당신께 드리는 것이 고성방가와 쓰레기 뿐이옵니다.

당신 앞에선 꿈쩍도 못하면서 이런 인간의
 마음까지 깨끗이 하여 주소서.
 당신은 나의 어머니시여
 늘 인간을 품에 안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독거리시지요.

겨울 눈

이 경 상 (동두천여상 교사)

기나긴
겨울 낙엽의 아픔을 덮어주고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천지의 슬픈 소리마저 포근히 감싸주는
너의 이름은 겨울 눈

우리들의
옛 추억을
하이얀 포플라에 아름답리 담귀
진한 향수로 다가서게 하는
그는 겨울 눈

메마른 가지에
푸르른 새싹이 돌아날 때
세상 모든이에게
생명의 미소를
남기고 간 겨울 눈

내가 사랑했던
그해
겨울 눈

東豆川文化院會員名單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장	자 택
고 문	陸 堯 相			
고 문	方 濟 煥			
고 문	李 英 基			
고 문	李 興 九			
고 문	金 成 根			
고 문	任 仕 彬			
고 문	陸 泰 信			
고 문	李 起 馥			
고 문	李 源 錄			
자문위원	李 允 澄			
자문위원	洪 景 燮			
자문위원	安 國 承			
자문위원	鄭 東 教			
자문위원	劉 永 珏			
자문위원	李 根 春			
자문위원	陳 良 炫			
원 장	趙 寅 熙			
부 원 장	權 在 浩			
부 원 장	李 允 宰			
부 원 장	安 旻 奎			
감 사	鄭 裕 和			
감 사	尹 致 弘			
이 사	劉 在 奎			
이 사	李 明 洙			
이 사	張 基 默			
이 사	慶 求 顯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장	자 택
이 사	朴 贊 兮			
이 사	朴 亨 柱			
이 사	尹 永 淑			
이 사	崔 南 順			
이 사	金 成 權			
이 사	咸 恩 淑			
이 사	金 壬 順			
이 사	李 鍾 完			
이 사	李 京 海			
사 무 국 장	李 啓 弘			
회 원	李 德 仁			
회 원	金 英 淑			
회 원	李 鍾 洽			
회 원	趙 一 默			
회 원	許 義 康			
회 원	梁 政 禮			
회 원	朴 鍾 子			
회 원	李 澤 雲			
회 원	李 德 男			
회 원	金 榮 奎			
회 원	金 大 根			
회 원	尹 用 彬			
회 원	柳 敬 玉			
회 원	梁 承 瑋			
회 원	潘 鐘 明			

보산동분원회원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장	자 택
명예분원장	최 경 준			
분 원 장	이 장 식			
총 무	목 영 하			
회 원	이 중 오			
회 원	박 용 진			
회 원	최 정 술			
회 원	강 길 원			
회 원	김 원 규			
회 원	김 승 천			
회 원	김 태 훈			
회 원	장 세 동			
회 원	남 창 길			
회 원	조 철 호			
회 원	최 규 천			
회 원	이 강 현			
회 원	김 병 준			
회 원	이 강 희			
회 원	이 해 주			
회 원	곽 종 선			

逍遙의脈

〈제10집〉

1996년 12월 25일 인쇄

1996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처 : 동두천문화원

TEL : (0351)865-2923

FAX : (0351) 63-1020

발행인 : 조 인 희

편집인 : 이 계 홍

〈비매품〉

